

A study of consumption trends: Applying  
big data analysis to Goyang City's stimulus  
prepaid card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분석 연구

윤신희

A study of consumption trends: Applying big data analysis to Goyang City's stimulus prepaid card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동향 분석연구

### 연구책임자

윤신희(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데이터센터 센터장)

### 공동연구자

김지훈(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 위촉연구원)

이세훈(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발행일** 2021년 5월 31일

**저자** 윤신희, 김지훈, 이세훈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요약 .....	i
<b>제1장 연구개요 .....</b>	<b>0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5
<b>제2장 재난소득지원금 정책 현황 .....</b>	<b>07</b>
제1절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	9
제2절 광역·도 단위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	16
제3절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	19
<b>제3장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현황 분석 .....</b>	<b>27</b>
제1절 분석개요 .....	29
제2절 위기극복지원금 기본 현황 분석 .....	45
제3절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사용 현황 .....	67
<b>제4장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사별 세부분석 .....</b>	<b>69</b>
제1절 KB 국민은행 선불카드 분석 결과 .....	71
제2절 NH 농협 선불카드 분석 결과 .....	102
제3절 분석의 한계 .....	136
<b>제5장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시민의식 조사 .....</b>	<b>137</b>
제1절 조사개요 .....	139
제2절 조사결과 .....	140

<b>제6장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종별 매출액 증감</b> .....	<b>153</b>
제1절 조사개요 .....	155
제2절 조사결과 .....	156
<b>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b> .....	<b>159</b>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61
제2절 정책제언 .....	163
<b>참고 문헌</b> .....	<b>165</b>
<b>Abstract</b> .....	<b>168</b>

## 표 목차

[표 2-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9
[표 2-2]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11
[표 2-3]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12
[표 2-4]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14
[표 2-5] 서울특별시 재난긴급생활비 개요	16
[표 2-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7
[표 2-7]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19
[표 2-8]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20
[표 2-9]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21
[표 2-10] 수원시 재난기본소득과 수원형 긴급 재난 지원금	22
[표 2-11]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23
[표 2-12] 용인시 재난기본소득과 용인형 긴급 재난지원금	25
[표 3-1] 데이터 정의서	30
[표 3-2] 데이터 상세정보	30
[표 3-3] 업종분류표	31
[표 3-4] 대상별 지급내역 (단위: 명)	42
[표 3-5] 동별 지급내역 (내국인+외국인)	43
[표 3-6]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 별 전체 사용량	67
[표 4-1] KB국민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94
[표 4-2] KB국민 4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96
[표 4-3] KB국민 5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98
[표 4-4] KB국민 6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100
[표 4-5] NH농협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128
[표 4-6] NH농협 4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 별 사용량	131
[표 4-7] NH농협 5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133

[표 4-8] NH농협 6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	135
[표 6-1] 대분류 및 중분류 업종의 소비 증감 .....	158

## 그림 목차

[그림 3-1] 분석 프로세스 .....	41
[그림 3-2] KB국민 &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시계열 추이 .....	45
[그림 3-3] KB국민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량 .....	47
[그림 3-4] KB국민 위기극복지원금 월별 사용금액과 사용횟수 .....	47
[그림 3-5]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량 .....	48
[그림 3-6]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월별 사용금액과 사용횟수 .....	48
[그림 3-7] KB국민 &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분야 .....	49
[그림 3-8]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51
[그림 3-9]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전체 사용량 .....	52
[그림 3-10]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전체 사용량 .....	54
[그림 3-11]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55
[그림 3-12]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문화/레저 관련 용품 분야 전체 사용량 .....	57
[그림 3-13]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전체 사용량 .....	58
[그림 3-14]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전체 사용량 .....	59
[그림 3-15]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전체 사용량 .....	61
[그림 3-16]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전체 사용량 .....	62
[그림 3-17]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전체 사용량 .....	63
[그림 3-18]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64
[그림 3-19]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전체 사용량 .....	65
[그림 3-20]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유흥 분야 전체 사용량 .....	66
[그림 3-21]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량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68
[그림 4-1] KB 위기극복지원금 시계열 추이 .....	71
[그림 4-2] KB 위기극복지원금 4월, 5월, 6월 사용 분야 (대분류) .....	73
[그림 4-3] KB 위기극복지원금 전체기간 사용 분야 (대분류) .....	74
[그림 4-4] KB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76

[그림 4-5] KB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76
[그림 4-6] KB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전체 사용량 .....	78
[그림 4-7] KB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월별 사용량 .....	78
[그림 4-8] KB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전체 사용량 .....	79
[그림 4-9] KB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월별 사용량 .....	80
[그림 4-10] KB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81
[그림 4-11] KB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81
[그림 4-12] KB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82
[그림 4-13] KB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83
[그림 4-14] KB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전체 사용량 .....	84
[그림 4-15] KB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월별 사용량 .....	84
[그림 4-16] KB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전체 사용량 .....	85
[그림 4-17] KB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월별 사용량 .....	86
[그림 4-18] KB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전체 사용량 .....	87
[그림 4-19] KB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월별 사용량 .....	87
[그림 4-20] KB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전체 사용량 .....	88
[그림 4-21] KB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월별 사용량 .....	89
[그림 4-22] KB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전체 사용량 .....	90
[그림 4-23] KB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월별 사용량 .....	90
[그림 4-24] KB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91
[그림 4-25] KB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91
[그림 4-26] KB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전체 사용량 .....	92
[그림 4-27] KB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월별 사용량 .....	93
[그림 4-27] KB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95
[그림 4-28] KB 4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97
[그림 4-29] KB 5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99



[그림 4-30] KB 6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101
[그림 4-31] NH 위기극복지원금 시계열 추이 .....	102
[그림 4-32] NH 위기극복지원금 4월 사용분야 .....	103
[그림 4-33] NH 위기극복지원금 5월, 6월 사용분야 .....	104
[그림 4-34] NH 위기극복지원금 전체기간 사용분야 .....	105
[그림 4-35] NH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107
[그림 4-36] NH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107
[그림 4-37] NH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전체 사용량 .....	109
[그림 4-38] NH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월별 사용량 .....	109
[그림 4-39] NH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전체 사용량 .....	111
[그림 4-40] NH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월별 사용량 .....	111
[그림 4-41] NH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112
[그림 4-42] NH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113
[그림 4-43] NH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114
[그림 4-44] NH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115
[그림 4-45] NH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전체 사용량 .....	116
[그림 4-46] NH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월별 사용량 .....	116
[그림 4-47] NH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전체 사용량 .....	117
[그림 4-48] NH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월별 사용량 .....	118
[그림 4-49] NH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전체 사용량 .....	119
[그림 4-50] NH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월별 사용량 .....	120
[그림 4-51] NH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전체 사용량 .....	121
[그림 4-52] NH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월별 사용량 .....	121
[그림 4-53] NH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전체 사용량 .....	122
[그림 4-54] NH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월별 사용량 .....	123
[그림 4-55] NH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124

[그림 4-56] NH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124
[그림 4-57] NH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전체 사용량 .....	125
[그림 4-58] NH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월별 사용량 .....	126
[그림 4-59] NH 위기극복지원금 유희 분야 전체 사용량 .....	127
[그림 4-60] NH 위기극복지원금 유희 분야 월별 사용량 .....	127
[그림 4-61] NH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129
[그림 4-62] NH 4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130
[그림 4-63] NH 5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132
[그림 4-64] NH 6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134
[그림 5-1]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여부 .....	140
[그림 5-2]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주체 .....	141
[그림 5-3] 위기극복지원금 미신청 이유 .....	141
[그림 5-4]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시기 적절성 .....	142
[그림 5-5] 위기극복지원금 지출항목 .....	143
[그림 5-6] 위기극복 지원금 지출 감소 항목 .....	143
[그림 5-7] 지출예정 항목 .....	144
[그림 5-8] 위기극복지원금 도움 정도 .....	145
[그림 5-9] 월평균 가구소득 .....	145
[그림 5-10] 위기극복지원금 금액 만족도 .....	146
[그림 5-11] 위기극복지원금 추가 지원 필요성 .....	147
[그림 5-12] 위기극복지원금 적정 금액 .....	147
[그림 5-13] 신청방법 편리성 .....	148
[그림 5-15] 지원금 지원 형태 .....	149
[그림 5-16]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	150
[그림 5-17] 희망 추진 정책 .....	151
[그림 5-18] 지역 애착심 향상 정도 .....	151

## 요 약

### 1. 연구개요

#### □ 연구배경

- 2019년 12월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침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다수의 국민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경제적 재난사태라 말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위기는 과거 1920년 미국 대공황에 견줄 정도이며, 그 여파는 전례가 없을 정도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준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도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이 여파는 상당히 크고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고 모든 지역의 상권은 침체되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소득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원하였고, 이에 지역별로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형태, 지원대상 등이 다른 상황임. 고양시 역시 위기극복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 시민에게 2020년 7월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양시민의 업종별, 지역별 소비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위기극복지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용량, 지역별 소비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함이며, 지원금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향후 추가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함

## 2. 분석 개요

### ○ 분석대상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2종(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2,766,221건 데이터 분석에 활용

### ○ 분석대상의 기간

- KB국민카드 : 2020년 4월 14일 ~ 2020년 6월 25일
- NH농협카드 : 2020년 4월 16일 ~ 2020년 6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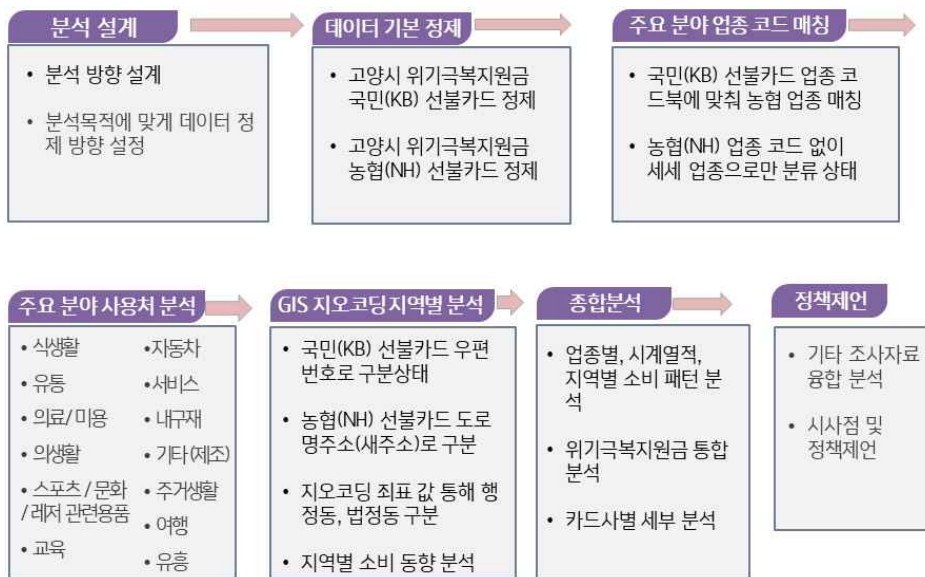
### ○ 분석업종

- KB국민은행 분류 체계 기준,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와 업종분류코드 참조하여 세부항목 신규 작성

### ○ 소비금액

- 수혜신청을 받은 국민카드 및 농협카드사별 금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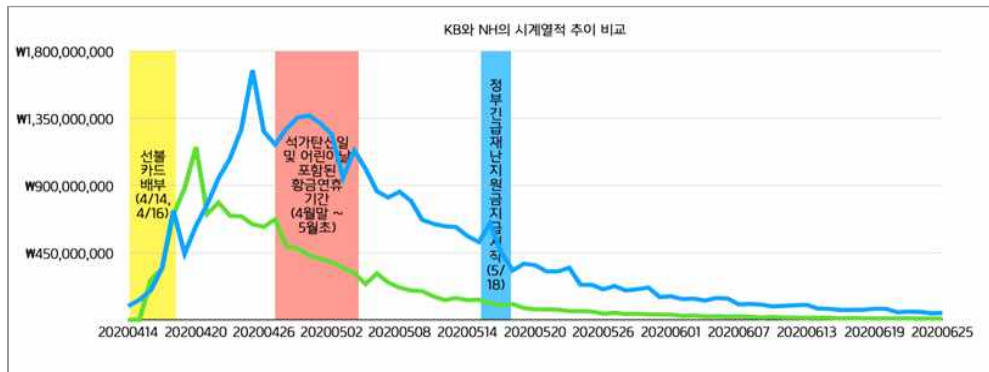
### ○ 분석 프로세스



### 3.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분석결과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두 개의 유형 선불카드로 지급되었고, KB국민은행 선불카드의 경우 4월 14일부터 지급되었고 NH농협 선불카드는 4월 16일부터 지급되었음. 전체 소비동향 분석을 위해 우선 두 카드를 통합 매칭하여 분석에 사용함
- 먼저, 고양시민들은 위기극복지원금의 시계열적 소비 동향을 보면 두 카드 모두 지원금 지급 초기부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지급 후 2-3주 내에 급격하게 사용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KB국민은행 카드의 경우 총 사용량은 총액은 34,534,830,930원으로 집계되고, NH농협 선불카드는 14,559,349,591원으로 집계됨. 사용 시기를 보면 국민은행 카드의 경우 4-6월 사용량 중 5월의 사용량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카드의 경우 4월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시계열 사용량(국민+농협)



- 전체 업종별 소비 동향을 보면 대다수가 ‘식생활(41%)’과 ‘유통 (38%)’ 분야에서 79% 사용되었음. 다음으로 의료 및 미용(9%), ‘의생활(3%)’, ‘레포츠/문화/취미 (3%)’, ‘교육(2%)’, ‘자동차 (2%)’, ‘서비스(1%)’, ‘내구재(1%)’의 순을 보임. 반면 ‘유흥’, ‘여행’, ‘기타(제조업)’의 경우는 1% 미만의 소비량을 보임
- 업종별 세부 소비현황을 보면 식생활의 경우 한식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 졌으며, 유통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음. 의료 및 미용의 경우 약국에서의 소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미용원, 일반 및 치과 순을 보임

- 의생활에서는 기성복과 안경점의 소비가 높았으며, 스포츠 및 문화분야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소비가 높았음. 교육분야는 문리계학원, 문방구점에서 소비가 높았고, 자동차분야는 주유소의 소비가 가장 높았음. 서비스 분야의 경우 대다수 세탁소에서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내구재 분야는 주방 및 가전용품점, 일반 가구점에서 소비가 높음. 제조업의 경우 국민카드는 식품류제조업, 농협카드의 경우 기계류 제조업에서의 사용량이 편중되어 있으며, 주거생활의 경우 철물점에서의 소비가 가장 많았음. 여행의 경우 전체 대비 1% 미만의 소비를 보이며 그중에서도 국민카드는 기타숙박업, 농협카드는 민예/공예/토산품 업종에서 소비가 가장 높았음. 유흥분야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의 사용이 금지업종이나 노래방은 스포츠, 문화분야 오락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소비가 가능한 업종으로 분 분석에서는 농협카드에서 소비가 발생함
- 이러한 결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금액자체가 5만원으로 절대적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식생활과 식음료 분야에서의 소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분야별 세부 사용처를 보면 약국, 안경점, 세탁소, 철물점 등에서 타 업종에 비해 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들 업종은 일상생활과 밀착된 업종이며 5만원 금액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분야에서 1-2회 지출로 소비가 이루어졌음 짐작해 볼 수 있음(국민은행 건별 사용액 기준)

#### 4. 위기극복지원금 시민 의식 조사

- 위기극복지원금의 가계 도움여부에 대해서 69.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고,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정도는 만족이 22.4%, 불만족이 12.1%를 보이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 여부는 70.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금에 대한 적정금액으로는 10만원이 3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만원이 24% 순을 보임. 지원금 신청방법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리'(25.8%), '다소 불편' (23.1%)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신청형태의 경우 '온/오프라인 병행'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모바일)

신청'(30.4%), '오프라인(직접) 신청'(18.5%) 등의 순을 보임.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불카드(기존 방법과 동일)'(38.9%), '현물 지급'(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계지출 감소 분야로는 '여행/숙박/교통'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요식/유흥'(14.6%), '스포츠/문화/ 레저/관련용품'(12.2%), '의류/잡화'(11.9%) 등의 순을 보임. 추가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사용 예정 분야에 대해서는 '음/식료품'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약국/의료'(12.5%), '의류/잡화' (10.2%), '요식/유흥'(9.1%) 등의 순을 보임
-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면, 위기극복지원금을 통해 소비하고자 하는 분야가 실제 소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시민들은 위기극복지원금을 실생활과 밀접한 식생활, 유통, 의료, 의류 등의 업종에서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1차 지원금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희망업종에서의 소비가 실질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향은 첫째, 위기극복지원금의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연령별 맞춤 서비스, 둘째, 지급형태의 다양화, 지원금액의 상향, 위기극복지원금 추가지원 등이 요구됨

#### 4. 결론(시사점) 및 정책제언

- 일반 신용카드 분석을 통한 업종별 매출액 증감결과와 위기극복지원금 소비동향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식, 미용, 화장품, 의류업종의 경우 2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에 해당됨. 그러나 위기극복지원금 소비량 분석을 보면 본 업종들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음. 본 결과로 위기극복지원금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 검증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에게는 소비지출의 혜택을 주었고, 위와 같은 일부 업종 사업자들에게는 매출액 증가의 혜택을 주어 정책적 효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 특정화 할 수는 있음
- 또한 위기극복지원금 및 고양페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두 정책이 연계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방향성이 지역 상권 활성화인지 시민들의 소비지원과 사

용편의성 확보인지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가 목적이라면 업종별로 인센티브나 마일리지를 다르게 적용해 줄 수 있음. 그러나 소비자 소비 지원 및 사용 편의 향상이라면 다양한 시정 정책과 연계된 소비자 혜택 우선의 정책이 발굴되어야 함. 따라서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본 분석은 고양시 차원의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비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추가 지급에 대한 기준 및 비교 대상의 잣대가 될 수 있음. 또한 경기도 및 정부 지원금 소비동향과의 비교 그리고 타 데이터(타 카드 및 서베이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고양시 차원의 재난소득지원금의 실질적인 사용처와 향후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를 둠



# 제 1 장

##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2019년 12월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침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다수의 국민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경제적 재난사태라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위기는 과거 1929년 미국 대공황에 견줄 정도이며, 그 여파는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준 코로나19는 대한민국에도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이 여파는 상당히 크고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는 중이다. 그동안 매해 전염병 여파에서 잘 대응해온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여파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코로나19는 정부, 기업, 개인 예외없이 모든 계층에 영향을 주었다. 우선, 코로나 19는 새로운 사회상을 만들었다. 비대면 재택근무, 원격 교육, 로봇, 자율자동차 등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언택트(UNTACT)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으며, 오프라인 소비는 얼어붙었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은 유동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 비정규직 등 생존을 위협받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사회전반의 변화속도는 과거 제3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중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은 물론, 단체, 기관, 정부까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측해야 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염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소비가 위축되었고, 모든 지역의 상권은 모두 침체된 상태이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소득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원하였고, 이에 지역별로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형태, 지원대상 등이 다른 상황이다. 고양시 역시 위기극복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 시민에게 2020년 7월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양시민의 소비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소비 동향을 파악하여 시민들의 실제 사용처와 사용량을 분석한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과 시민들의 체감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코로나 이전 이후의 실제적인 매출액 증감 정도와 위기극복지원금의 실제 사용처를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향후 추가 지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유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연구의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위기극복지원금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선불카드 형식으로 5만원씩 지급된 지원금이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위기극복지원금이 지급된 4월부터 6월까지가 된다.

또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위기극복지원금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종별 매출액 증감 정도와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업종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낸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먼저 재난소득 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카드 분석을 수행한다. 카드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극복지원금 업종별 소비동향 분석, 둘째,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소비동향 분석, 셋째,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카드사별 소비동향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위기극복지원금 시민 의식조사 결과와 카드분석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확산 이후 업종별 매출액 증감과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처를 비교 분석한다.

### 3.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실제 사용처 및 지역별 소비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추가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와 실제 지원금 사용현황을 비교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유추한다.

셋째, 다양한 분석결과들을 통한 향후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제 2 장

# 재난소득지원금 정책현황

제1절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제2절 광역·도 단위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제3절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 제절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 1.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4월 30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전 국민’이 2020년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달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대상은 2,171만 가구였으며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 각각 지급되었다.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의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현금 수령을 할 수 있었으며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표 2-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구분	내용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신용카드, 체크카드) : 2020.5.11.~2020.6.5.</li> <li>· 지역화폐 온라인 신청 : 2020. 5. 18. ~ 2020. 6. 12</li> <li>· 오프라인 : 2020. 5. 18. ~ 2020. 8. 24</li> </ul>			
지급대상	주민등록표상 거주자(세대주 신청 원칙)			
지급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li> <li>· 가구별 지급</li> </ul>			
지급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체크카드 :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li> <li>· 지역화폐 : 온라인 (지역화폐 사이트, 지역화폐 모바일 앱)</li> <li>· 선불카드 : 오프라인 (세대주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불편 주민(고령, 장애인)이 “찾아가는 신청”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지급(상품권, 선불카드)</li> </ul> </li> <li>①전화상담 → ②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③지급준비 통보 → ④대상자 재방문,지급</li> </ul>			

## 2.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와 논의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20년 9월 24일부터 지급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규모는 총 7.8조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가구 등을 대상으로 '선별지급'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새희망자금'으로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되었는데 '집합금지업종(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은 2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 '폐업 점포'는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 감소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감소할 경우 지급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인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되었다.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에는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교육은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교사, 운송은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철도 관련 종사자 등, 여가는 연극배우, 작가, 버스종사원 등, 판매는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등, 서비스는 골프장 캐디, 정수기 방문 점검원, 간병인 등, 기타는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등을 의미한다. 1차 지원금 수급자에게는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1차 지급때 기준 미달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육아부담가구'에는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학교의 휴교나 어린이집의 휴원으로 인해 육아의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유아·초등학생(만 12세 이하)의 자녀 1인당 20만 원, 중학생(만 13~15세)자녀 1인당 15만 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신속 지급되었으며 홈스쿨

링을 하는 가구도 별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었다.

‘생계위기가구’에는 ‘긴급생계지원비’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중위소득 75%이하이면 서 재산이 기준(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하며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 되었다.

‘미취업 청년’인 만 18세~34세의 청년 구직자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었다

이외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경우 ‘통신비 지원금’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1인당 2만 원이었다.

[표 2-2]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대상	종류	내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1인당 50만 원 ~ 2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50만 원 ~ 150만 원
육아부담가구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5만 원 ~ 20만 원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가구 당 40만 원 ~ 100만 원
미취업 청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인당 50만 원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금	1인당 2만 원

### 3.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2021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 안이 의결되었으며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

급이 2021년 1월 6일 공고에 들어갔으며 11일부터 지급되었다. 기존에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러한 대상은 65만명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신청 접수를 한 뒤 지급 조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이 맞으면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총 지급액은 4,000억 원이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도 지원대상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되었는데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총 지급액은 4조 1,000억원 규모였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 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와 방과후학교 종사자의 경우에도 50만원씩 지원되었으며 그 규모는 500억 원이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2020년 10월 1일 전에 입사하여 지급시기까지 계속 근무중인 법인 택시기사가 대상이며 이 대상자들 또한 50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이는 400억 원 규모이다.

**[표 2-3]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대상	종류	내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인당 100만 원 ~ 3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3차)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1인당 50만 원
법인택시 기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2차)	1인당 50만 원

## 4.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3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었으며 현금 지원 총액은 8조 1천억 원이다.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 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이 시작되었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노점상, 대학생(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소규모 농가,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였으며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집합금지(지속)업종의 경우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의 경우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 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300만 원,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4차)’로 기존 대상자는 50만 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2차)’을 통해 지원되었으며 대상요건은 3차 재난지원금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1차)’와 동일하며 지원금액은 50만 원이었다.

법인택시기사는 20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공공일 기준(2021년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각 70만 원씩 지급되었다.

노점상은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지급되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과 같은 이유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의 경우 ‘코로나 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 지원되었으며 교내 근로(시간당 9,000원)나 교외 근로(시

간당 11,150원)로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다.

가족이 코로나 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등으로 분류되거나 만 8세 이하, 초 2학년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원하거나 휴교하게 되어서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소규모 농가도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중 20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2020년 소농직불금 수령농가의 구성원이 2021년 4월 1일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매출이 감소한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에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되었으며 이는 농가 및 마을단위로 지원되었다. 지원 대상의 기준은 공고일인 2021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운영실적 입증이 가능한 농가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이것이 입증된 경우에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에도 가구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2019년과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 중중소도시 기준 3.5억 원 이하,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었다.

**[표 2-4]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대상	종류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인당 100만 원 ~ 5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4차)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2차)	1인당 50만 원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1인당 70만 원

대상	종류	내용
노점상		1인당 50만 원
대학생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1일 5만원 (최대 10일)
소규모 농가		30만원(바우처)
회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 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 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농가지원바우처	100만원(바우처)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		가구당 50만 원

## 제2절 광역·도 단위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 1. 서울특별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하였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73만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생활비지원, 코로나 19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일자리사업, 청년수당 제도 중 하나 이상 지원 받은 경우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2-5] 서울특별시 재난긴급생활비 개요

구분	내용			
신청기간	· 2020.3.30.~2020.5.15			
지급대상	·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받는 가구 제외하고 지급 ※외국인의 경우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함)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10%추가혜택), 선불카드			
지급금액	· 가구별 지급			
	1~2인가구	3~4인가구	5인가구	비고
	300,000	400,000	500,000	서울사랑 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 혜택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고령자,장애인), 동주민센터 접수			
지원금	·선불카드 :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사용방법	·서울사랑상품권 :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 시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접수가 있으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소득 조회가 이루어진 후 지급 결정된다.

##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4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 단체로는 처음으로 1,300만 명이 넘는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해당되었으며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 중 한 가지 수단으로 지급되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제외)은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1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서 '2차 재난기본소득'도 지급되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며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 기준일에 부모중에 한명이라도 경기도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 하였다면 지급가능하였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지급액, 사용매장, 사용기한과 같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는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표 2-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구분	내용	
신청 시기	2020년 4월 ~ 7월	2021년 2월 ~ 4월
지급 대상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	지급기준일(1월 19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내용	
지금 액수	1인당 10만 원(사용기한 3개월 이내)	
신청방법	경기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 선불카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도내 농협 지점(주소지 기준)	경기지역화폐 및 신용 체크카드 : 온라인 경기지역화폐카드 :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 스, 외국인
사용매장	주민등록지 사군의 전통시장 및 연매출10억 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 제3절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원정책

### 1. 고양시

#### 1)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고양시는 고양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하여 정부, 경기도, 고양시 지원금 3종을 지급하였다. 소득 상위 30% 시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지원액을 합쳐(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5만원) 1인당 총 15만원 지원금을 지급받으며 소득하위 70% 가구의 경우 5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지급수단은 일회용 선불카드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하였다.

[표 2-7]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구분	내용
신청기간	· 2020.4.14.~2020.7.31
지급대상	· 고양시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 취득자
지급수단	· 일회용 선불카드 지급
지급금액	· 1인당 50,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용처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2) 특별휴업지원금

고양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12종(대형학원, 헌팅포차, 감성주점, 룸살롱·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뷔페)에 정부의 2차 재난금 중 ‘새희망자금’과 별개로 ‘1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고양시 자체 시비로 약 1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폐업한 시설을 제외한 총 1,2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150만 원씩 추석 명절 전에 지원되었다.

코로나 2.5단계가 지속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고양시는 2021년 2월 ‘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2차 특별휴업지원금’은 1차에 비해 그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되었는데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하는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만 원, 영업을 제한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등,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m<sup>2</sup>)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집합금지 5,279개소와 영업제한 16,307개소로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개업하여 공고일까지 운영중인 업체로 총 21,586개소에 269억 원 규모였다. 또한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개인 택시기사는 100만 원, 법인 택시기사는 50만 원을 차등지원했는데 고양시 차원에서 이 차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한 것이다.

**[표 2-8]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구분	1차 특별휴업지원금	2차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시기	2020년 9월	2021년 2월
지급 대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 1,285개소	집합금지 시설 7종 영업제한 시설 12종 법인택시 기사 약 780명
지급 액수	업소 당 150만 원	7종 집합금지 시설: 업소 당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업소 당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 1인당 50만 원
시 소요예산	약 19억 원	약 300억 원

## 2. 수원시

### 1)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였다. 시청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으며 지급방식은 현금과 상품권,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 받으며 사용처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다.

[표 2-9]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구분	내용												
신청기간	· 신용카드 : 2020.4.9.~2020.4.30												
	· 선불카드 : 2020.4.20.~2020.7.31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대원 수</th> <th>접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4인이상</td> <td>2020.4.20~4.26</td> </tr> <tr> <td>3인가구</td> <td>2020.4.27~5.3</td> </tr> <tr> <td>2인가구</td> <td>2020.5.4~5.10</td> </tr> <tr> <td>1인가구 및 미신청자</td> <td>2020.5.11~5.17</td> </tr> <tr> <td>전체</td> <td>2020.5.18~7.31</td> </tr> </tbody> </table>	세대원 수	접수기간	4인이상	2020.4.20~4.26	3인가구	2020.4.27~5.3	2인가구	2020.5.4~5.10	1인가구 및 미신청자	2020.5.11~5.17	전체	2020.5.18~7.31
	세대원 수	접수기간											
	4인이상	2020.4.20~4.26											
	3인가구	2020.4.27~5.3											
2인가구	2020.5.4~5.10												
1인가구 및 미신청자	2020.5.11~5.17												
전체	2020.5.18~7.31												
지급대상	· 수원시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수단	· 현금(계좌이체), 상품권, 지역화폐(수원페이), 선불카드												
지급금액	· 1인당 10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수원시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용처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 사용가능)												
기타 정책	·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전담 콜센터 운영												

## 2) 수원형 긴급 재난 지원금

수원시는 2021년 수원시 1회 추경으로 마련한 총 263억 규모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청년실직자, 피해 소상공인 등에 집중하여 지급하였다.

우선 소득이 감소하였고 2021년 3월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대상은 1만명으로 총 50억 원이 투입되었다.

청년실직자 역시 50만 원의 희망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2,000명에게 총 10억원이 투입되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21년 3월 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했으나 2020년 12월 20일 이후 퇴사해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었다.

감염병 예방조치에 동참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되었고 4800개소에 100만원씩 지급되었다. 또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아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상점·마트 등 300㎡이상 종합소매업이 대상이다. 1만 9,000개소에 50만원씩이 지원되었다.

[표 2-10] 수원시 재난기본소득과 수원형 긴급 재난 지원금

구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수원형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2020.04.09 ~ 07.31	2021.03.15 ~ 04.02
지급대상	수원시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청년 실직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50만 원 청년 실직자 50만 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00만 원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50만 원

### 3. 용인시

#### 1)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용인시는 용인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과 합하여 1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되었다. 신청방식은 지역화폐, 신용카드로 지급받으며,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카드 미보유자의 경우 선불카드를 방문신청 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농협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또한 경기도내 다른 시·군과 동일하다.

[표 2-11]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구분	내용												
신청기간	· 신용카드 : 2020.4.9.~2020.4.30												
	· 선불카드 : 2020.4.20.~2020.7.31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대원 수</th> <th>접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4인이상</td> <td>2020.4.20~4.26</td> </tr> <tr> <td>3인가구</td> <td>2020.4.27~5.3</td> </tr> <tr> <td>2인가구</td> <td>2020.5.4~5.10</td> </tr> <tr> <td>1인가구 및 미신청자</td> <td>2020.5.11~5.17</td> </tr> <tr> <td>전체</td> <td>2020.5.18~7.31</td> </tr> </tbody> </table>	세대원 수	접수기간	4인이상	2020.4.20~4.26	3인가구	2020.4.27~5.3	2인가구	2020.5.4~5.10	1인가구 및 미신청자	2020.5.11~5.17	전체	2020.5.18~7.31
	세대원 수	접수기간											
	4인이상	2020.4.20~4.26											
	3인가구	2020.4.27~5.3											
2인가구	2020.5.4~5.10												
1인가구 및 미신청자	2020.5.11~5.17												
전체	2020.5.18~7.31												
지급대상	· 용인시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 취득자												
지급수단	· 체크·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												
지급금액	· 1인당 100,000원												
신청방법	· 신용카드(온라인)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선불카드(방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농협은행/지역농협 방문신청												
사용처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2) 용인형 긴급 재난 지원금

용인시의회는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된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제252회 임시회서 271억여원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하게 된다. ‘용인시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용인 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되었으며 그 대상은 각각 다음과 같다.

우선 용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관내 2만 8,000여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 자금과는 별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 원 지원하였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272곳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여행업, 박물관, 미술관) 127곳에도 100만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1,000명)을 위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더하여 용인시 관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806개소에 100만 원 씩(2차에 나눠 지급) 지급하였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등록 장애인 2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장애아동·청소년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자녀 셋 이상의 가정(자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에는 가구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규모는 1만 가구였고,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에도 가구당 1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시설에 지정성금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표 2-12] 용인시 재난기본소득과 용인형 긴급 재난지원금

구분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용인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0.04.09 ~ 07.31	2021.02~2021.03 지급대상별로 상이
지급대상	용인시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소상공인, 청년, 예술인, 관광업, 복지 관련 등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집합금지 100만원, 영업제한 50만 집합금지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200만 원 관광업계(여행업, 박물관, 미술관)지원:100만 원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60만 원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50만 원 어린이집 긴급지원:1개소당 100만 원 장애 아동 청소년 특별 돌봄 지원:1인당 10만 원 3자녀이상 가구 생활안정지원: 가구당 10만 원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가구당 10만 원 아동복지시설: 시설당 100만 원(지정성금)



# 제 3 장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현황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위기극복지원금 기본 현황 분석

제3절 지역별 위기극복지원금 사용 현황



## 제절 분석 개요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는 총 2종(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이며 총 데이터 샘플 수는 2,766,221건이다. KB국민카드는 2,500,000건, NH농협카드는 266,221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 2. 분석대상의 기간

KB국민카드의 경우 2019년 6월 25일 ~ 2020년 4월 14일, NH농협카드는 2019년 6월 25일 ~ 2020년 4월 16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3. 분석업종

분석대상의 업종별 분류는 KB국민카드의 경우 업종 분류가 카드 분류 업종 코드로 분류된 상태이나 NH농협카드의 경우 대분류 없이 세세 분류 명칭으로만 분류된 상태이기에 KB국민은행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와 업종분류코드 참조하여 농협 업종 분류의 세부항목을 신규 작성하였다.

### 4 소비금액

소비금액은 수혜신청을 받은 국민카드 및 농협카드사별 금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추정한다

## 5.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데이터 정의

### 1) 데이터 정의서

[표 3-1] 데이터 정의서

구분	데이터 명	단위	출처	개요
카드 데이터	KB 국민 선불카드	기초구역번호	고양시	일별, 우편번호, 업종, 거래금액
	NH 농협 선불카드	도로명	고양시	일별, 우편번호, 카드통합가맹점번호, 가맹상호명, 가맹점 상세주소, 업종, 이용건수, 이용금액
고양시 지도 데이터	고양시 법정동 기준	법정동	국가공간정보 포털	고양시 53개 법정동에 대한 영역경계를 정의하고 설정함
	고양시 행정동 기준	행정동	국가공간정보 포털	고양시 39개 행정동에 대한 영역경계를 정의하고 설정함
	고양시 기초구역	기초구역번호	공공데이터	고양시 기초구역 기준으로 영역경계를 정의하고 설정함
설문조사 데이터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시민의식 조사	설문문항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신청현황, 소비항목, 금액/신청방법, 기여도, 희망사항 및 의견, 응답자 정보

[표 3-2] 데이터 상세정보

구분	위기극복지원금		설문조사
	KB	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시민의식 조사
업종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소분류	대분류/소분류
데이터 최소단위	1회 결제 건 정보	일자별 가맹점 매출 총계	문항별 응답 기록
위치데이터	기초구역 단위 제공	상세주소(도로명주소) 단위 제공	행정동 & 법정동 단위로 기록
상호명	제공하지 않음	중복있음 가맹점 고유번호 제공	상호명으로 기록
데이터 성격	고양시 우편번호 단위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1인당 5만원)	- 고양시 상세주소 단위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1인당 5만원)	항목별 응답 기록

## 6.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업종 분류

[표 3-3] 업종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의생활	의류	맞춤복점	1001	남성복 맞춤업소,여성복 맞춤업소,와이셔츠 맞춤업소
		한복점	1003	남.여 한복 맞춤업소, 개량한복점 포함
		기성복점	1004	의류대리점(모피 및 교복 포함),남성기성복점,여성기성복점,와이셔츠판매점
		아동 및 유아복점	1007	아동복 및 유아복 판매점
		내의판매점	1008	내의,타월,양말,스타킹등 판매점
		양품점	1010	각종 양품,잡화 판매점
		기타 의류	1099	
	직물/침구류	옷감판매점	1101	양복,양장,한복등의 옷감 및 면직,견직,모직등의 직물류 판매점
		침구/커튼/카펫점	1102	이불,담요,베개,카바,커튼,카펫등 판매점
		수예점	1104	각종 수예품(자수,실포함) 판매점
		자석요	1105	자석요 수입,제조판매
		기타 직물	1199	
	신변잡화	악세서리점	1201	패션주얼리전문점(에미니골드 등) 및 모자,장갑,손수건,넥타이,스카프,벨트,브루치,머리핀등 판매점
		귀금속점	1202	금,은,보석등(귀금속 및 시계류 복합판매점 포함)
		시계전문점	1203	각종 시계류 판매점
		안경점	1204	안경,콘택트렌즈,선글라스등
		가방점	1205	가방,핸드백,트렁크,지갑등
		제화점	1206	구두류 맞춤 및 판매업소
		일반신발점	1207	구두류를 제외한 각종 신발 및 캐주얼화 판매업소
		가발전문점	1208	가발판매 전문점(미용재료업 제외)
	기타 신변잡화	1299		
식생활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2002	공항,고속도로,유원지의 휴게실 등
		제과점/아이스크림점	2003	빵,생과자,떡,아이스크림등의 판매업소
		커피/음료전문점	2004	
		패스트푸드점	2099	도시락판매점 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일반음식점	한식	2104	대중한식집 및 한정식 제공업소 (죽 판매점 포함)
		일식/생선회집	2107	장어구이,참치전문점 포함
		중식	2109	
		양식	2110	일반 레스토랑
		부페	2111	호텔부페, 부페전문점 등
		일반주점	2112	빠,비어홀,호프,생맥주(치킨호프 포함),소주방 등
		패밀리레스토랑	2113	TGIF,아웃백,스카이라 등 외식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기타	2199	출장외식업, 단체급식전문 위탁경영업체 포함
	음료식품	미곡상	2401	쌀,보리,콩,잡곡등의 곡물과 곡분판매업소 ( 방앗간 포함 )
		정육점	2402	한우,수입고기,돼지고기,닭고기등
		인삼판매점	2403	인삼,홍삼 및 관련가공품등
		건강식품점	2404	영지,로얄제리,벌꿀,알로에,스쿠알렌,흑염소,자연식품(선식,생식,녹즙 등) 및 다이어트 식품
		농·수·축산물점	2406	농산물(청과물 포함),수산물,우유,버터 등 축산물 판매점 (정육점 제외)
		주류판매점	2407	알콜성음료 전문판매점
기타 식품		2499	반찬가게, 각종 식품자재(고추장,된장 등 장류 포함) 판매 등	
주거 생활	연료판매	연탄 및 유류판매점	3302	조명/난방/취사용 연료 판매업소(연탄·무연탄등 고체연료, 경유 등유 중유 기타 액체연료)
		가스판매점	3303	가정용 LPG충전 및 판매업소
	건축관련업	건축자재	3401	시멘트,타일,철근,펄프,샷시,페인트,유리,요업제품,화공약품류 등
		기계류 건축설비	3402	산업용보일러, 냉동기 및 각종 기계류 건축설비
		철물점	3403	각종 철물 및 수공구 판매점
		실내장식	3404	인테리어제품판매 및 실내장식업소 (인테리어디자인 포함)
		지물 및 천막	3405	장판지,벽지,창호지,돛자리,천막등
		보안경비시스템	3407	집,사무소 보안경비 관련 기기 및 용품판매, 설치업소
		주택,건설	3408	아파트,콘도,연립주택,빌라 건설(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개보수 포함) 및 분양금
		기타 건축자재	3499	소방용품 포함
유흥	유흥	단란주점	2299	
		유흥주점	2312	유흥카페,룸싸롱,요정,극장식당 등
		나이트클럽	2317	카바레,디스코클럽 포함
		노래방	4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내구재		인마시술소	7104	휴게텔,전화방 등	
		유흥기타	7299		
	가구	일반가구점	3001	일반목재가구, 목재가구대리점등(침대,돌침대 포함)	
		철재가구점	3002	철재책상, 걸상, 캐비닛, 금고등의 금속제가구, 철재가구대리점등	
	전자제품	가전제품점	3101	TV,냉장고,카메라(광학제품,카메라부품 포함),유무선전화기,가정용재봉틀,영상기기 및 음향기기등 가정용 전기기기 판매업소	
		냉난방기구	3102	가정용 냉난방기구(에어컨,공기정화기,온풍기,가정용보일러, 태양열기기 등)	
		조명 전기기구점	3201	옥내배선,전구,플러그,퓨즈,스위치 및 조명장치등 각종조명,전기장치	
		기타 전자제품	3199	업소용 음향기기(노래방기기 포함),영상기기 및 해당 부품 판매업소 등	
	주방용품	주방기구점	3202	싱크대,부엌가구,조리대,녹즙기,전자저울 등	
		주방 및 가정용품점	3203	목욕용품, 세제류 등을 포함한 각종 주방,생활용품 판매점	
		정수기판매점	3204	정수기,이온수기,연수기,생수판매점 등	
		기타 주방용품	3299		
	사무기기	사무용기기	6101	팩시밀리,계산기,복사기,타자기,OA기기등	
		정보통신기기	6102	핸드폰,무전기,신용카드조회기등	
		컴퓨터기기	6103	컴퓨터 및 주변기기등 ( 전산 소모품,인크등 포함)	
	악기	피아노판매점	6109		
		기타악기판매점	6110		
	자동차	운송기구판매	국산자동차판매점	5501	국산자동차 신품 판매업소(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에 한함)
			수입자동차판매점	5601	수입자동차 신품 판매업소
중고자동차판매점			5602	국산,수입중고자동차 중개 및 판매업소	
오토바이판매점			5603		
자전거판매점			5502		
기타운송기구판매점			5604	농업용운송기구(예:경운기,트랙터) 등	
주유		주유소	5608	차량용 연료(휘발유,경유) 판매 및 주유업소	
		충전소	5609	차량용 LPG 충전소	
자동차 정비/유지		차량 정비/부품/인테리어	5605	차량정비업소,차량용 오일(엔진오일,윤활유 등),타이어 등 차량부품 판매 및 카인테리어점(GPS,네비게이션 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주차장	5610	자동차 세차,광택 차량견인서비스 폐차장 포함
		세차장	5611	
		차량견인업	5612	
		기타 차량서비스	5699	
유통	대형유통	백화점	4001	일용잡화,슈퍼,위탁판매등을 함께 하면서 매장면적이 3천 m <sup>2</sup> 가 넘고 매장직영율이 50% 이상인 대규모업소(쇼핑센터 포함, 필요시 "시장(대형점)개설 허가증"확인)
		대형마트	4107	백화점과 판매형태가 동일한 각종 대형 할인점 및 회원제 창고형매장 등(예:이마트,롯데마트 등, 필요시 "저가 지향형 점포지정서" 확인)
		농·수·축협직판장	4108	농·수·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소(예:하나로마트 등)
		대형쇼핑센터	4123	동일 장소에서 다양한 의류브랜드 등을 백화점 방식으로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운영사업자가 단독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쇼핑센터, 종합쇼핑몰, 아울렛)
	소매	슈퍼마켓	4101	중·소형할인마트, 연쇄점 포함
		편의점	4112	편의점(CVS)
		일반집화판매점	4110	주된 품목을 파악할수 없는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판매하는 집화점(수입집화 포함), 매점, 담배(전자담배)판매점
		소비조합	4103	은행이나 회사등에서 중간이윤을 절감하기 위하여 결성한 사내 매점
		선물의집	4104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4115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예:한솔CSN,인터파크 등)
		전자상거래(Passcity)	4118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당사 e-비즈니스팀과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중인 업소
		전자상거래PG	4120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
전자상거래오픈마켓		4121	사이버몰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통해 입점을 허용하고 판매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청약접수 등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전자상거래상품권		4124	전자상거래 업체용 상품권판매 가맹점	
전자상거래PG상품권		4125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PG)용 상품권 가맹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여행		전자상거래오픈마켓 상품권	4126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용 상품권 가맹점
		전자상거래PG_C2C 결제	4127	개인 간(Customer to Customer)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가맹점(신용카드 포인트기반 온라인안전결제 서비스 전용 당사 PG가맹점)
	통신판매	통신판매	4106	전화,우편,팩시밀리,케이블TV에 의한 상품판매업소 비료,사료,종자 포함 농업용자재 판매업소, 어업용품 판매업소(야어망 등)
	기타 유통	농어업용품	3406	중고가구,중고서적,중고가전제품,재활용품,물물교환센 터 등
		중고물품 판매점	4111	
		종교상품점	4114	
		다단계판매	4198	취급품목에 상관없이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인 업소(유사수신 및 금융파라미드 등의 비정상 다단계업체 제외)
		상품권	4200	상품권 취급업소(상품권 발행업체 및 발행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한 유통업체), 콘도회원권, 국제전화선불카드, 고속도로통행권
		성인용품점	6117	성인용품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8407	일정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각종 상품소매 운영업
		기타유통업	4199	
	비영리유통	공무원연금매점	420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연금매점 및 복지시설등 군,국가,지방단체의 직영사업체
		공공기관직영점	4202	
		보훈연금매점	4204	대한상이군경회(지회 포함)에서 승인한 업소("보훈매점승인서" 사본 징구)
	숙박	특급관광호텔	5001	특1급,특2급인 업소 ("호텔업등급인정증"사본 징구)
		일반관광호텔	5101	1급,2급,3급인 업소 ("호텔업등급인정증"사본 징구)
		기타관광호텔	5102	콘도미니엄,유스호텔,가족호텔,전통호텔등으로 분류된 업소
펜션/민박		5104	펜션, 민박	
기타숙박업		5103	관광사업등록증이 없는 숙박업소(모텔,여관,여인숙 등 )	
운송수단	항공사	5201	국내,외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고속,시의버스	5302		
	철도	5303		
	여객선	530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관광여행		렌트카	5305	전세버스 포함
		택시	5306	모범택시,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기타 운송수단	5399	
	관광여행	관광여행사	5301	여행업의 인가를 받고 영업중인 업소,여행대리점
		관광기념품점	5401	
		민예·공예·토산품	5402	칠기류, 죽세공품, 광섬유공예품, 조화, 토산품등
		외국인전용점	5403	수입품판매점, 외국인대상 판매점등
	면세점	5404		
레포츠 /문화/ 취미	레저/스포츠	스포츠용품점	6001	운동기구, 스포츠의류, 스포츠화등
		레저용품점	6002	골프, 스키, 스킨스쿠버, 요트, 등산용품, 낚시용품 등의 레저관련 용품판매 및 대여점
		총포류판매점	6003	각종 수렵용 총포류 판매업소
		골프장	6004	회원제골프장, 퍼블릭골프장
		골프연습장	6005	실내/실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테니스장	6006	테니스, 정구, 스쿼시 등
		볼링장	6007	
		스키장	6008	
		수영장	6009	
		종합스포츠센터	6010	휘트니스센터, 헬스장 포함
		당구장	6011	
		놀이공원	6012	에버랜드,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롯데월드등
		레포츠클럽	6013	자체모집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레포츠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이벤트업	6015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이벤트(행사) 관련 용품 판매 및 대여, 공연기획	
	외국인전용카지노	6016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소(해외회원에 한하여 승인가능, 국내회원 승인불가)	
	요가	6021	단학, 기수련원 포함	
	기타 레저업소	6099	수목원, 주말농장, 낚시터, 캠핑장 등	
	문화/취미	영화관	6014	
		공연장/전시장	6019	연극, 쇼공연, 행사공연, 각종 전시장(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경기장		6020	스포츠 경기관람 등	
비디오방/게임방		6018	DVD방, PC방, PS2게임방 등	
사진관		6107	필름판매 및 현상	
서점		6113	일반책 및 서적판매 등	
화랑		6201	미술, 서예등의 예술품등	
화방	6202	미술용품 및 서예용품 판매점		
회원	6203	생화, 화분, 관상수, 조경, 수석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완구점	6204	장난감,인형,오락기구등 아동 및 유아관련 용품 판매 및 대여점
		애완동물	6205	애완동물,관상조 및 관련 용품판매점
		골동품점	6206	골동품,도자기,고전가구,우표,동전등
		표구사	6207	족자,액자등의 표구제품 등
		수족관	6208	수족관,열대어등
		티켓판매(통신판매)	6209	통신판매에 의한 티켓판매업소
		티켓판매(전자상거래)	6210	전자상거래에 의한 티켓판매업소
		음반판매점	6111	레코드판,카세트테이프,CD등
		비디오 및 도서대여점	6112	비디오테이프,DVD,도서 등의 대여점
		문화/취미 기타	6299	신문,잡지 포함
의료/미용	의료기관/제약	종합병원	700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종합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포함)
		일반 치과 한방병원	700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일반 치과 한의원	7003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필한 의원급 의료기관(병실이 없는 개인병원)
		건강진단센터	7004	보건소 포함
		약국	7005	양약조제 및 판매업소
		한약방	7006	한약조제 및 판매,한약재 판매업소
		동물병원	7007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 동물병원개설신고를 필한 업소(가축약품판매업소 포함)
		유사의료업	7008	접골사,침구사,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 등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7009	의약품도매업체 포함
		산후조리원	7010	산후조리원,조산원 등
		의료기기 및 용품	7107	의료기구,치과기구,위생재료 등(보청기 포함)
		제약/의료 기타	7099	
	미용	이용원	7101	
		미용원	7102	
		피부미용원	7103	피부비만관리,체형관리,션텐,스포츠마사지,발마사지,네일아트 등
		찜질방/목욕탕	7105	증기탕, 사우나 포함
		화장품점	7106	
		미용재료	710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미용 기타	7199	
교육	학교	초·중·고등학교	8107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교육부 인가 정식 교육기관에 한함)
		대학 . 대학원	8108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등의 각종 납입금(교육부 인가 정식 교육기관에 한함. 대학에서 운영중인 평생교육원 포함)
		대학 . 대학원(등록금)	8115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등의 등록금 수납을 위해 당사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교육부 인가 정식 교육기관에 한함)
		초·중·고 학교납입금(자동납부)	811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종 납입금 자동납부 가맹점
	유아교육기관	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	8109	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포함
		유아전문 교육기관/놀이시설	8110	어린이전문교육학원, 유아놀이교육시설(예·집보리, 키즈카페 등)
	학원	기술/사무/가정계학원	8101	간호, 전자, 미용, 양재, 중장비, 컴퓨터학원, 주산, 부기, 타자, 속기, 웅변학원, 조리, 꽃꽂이 학원 등
		예체능계학원	8102	미술, 서예, 음악, 무용학원, 복싱, 유도, 태권도, 합기도, 육체미학원등
		문리계학원	8106	입시, 고시학원, 각종 보습학원 등
		외국어학원	8112	외국어전문학원
		자동차학원	8113	
		문화센터	8114	평생교육원 포함
		독서실	8111	고시원, 공부방 포함
		기타학원	8199	댄스, 음치, 언어교정 등의 각종 교습소 및 학원 등
		문방구점	6114	필기용구, 문구용지, 사무용품, 기타문구등
	학습자재	교육기자재	6115	각종 학교용실습기, 학습보조용품(엠씨스퀘어, 교육용테이프 포함), 유아교육용품
		학습지	6116	학습지 발행·판매업, 인터넷교육, 전화학습, 방문학습 포함
		과학기자재점	6105	과학실험기구, 암실장비, 쌍안경등
		기타 학습자재	6199	출판사 포함
	서비스	보험	생명보험	8001
손해보험			8002	국내·외 손해보험 본사, 지점 및 대리점
기타 보험			8099	
용역서비스		용역서비스업	8201	심부름센터, 인력공급, 경호, 청소대행, 번역 및 통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대리운전, 직업소개소 등
		유학원	8216	유학, 어학연수
		인쇄 및 광고	8202	인쇄물제작, 가치물제작 광고대행(생활정보지 광고 포함) 등
		기계 및 장비임대업	8203	가정용, 사무용 및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소
		보관 및 창고업	8204	보통, 냉장, 위험물, 농수산물등 보관업 또는 보세창고등
		화물운송업	8205	이삿짐센터, 각종 화물취급소(소화물택배 포함) 등
		시설대여업	8217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양로원, 단식원 등
		부동산 중개업	8210	
		부동산임대	8218	
		전문서비스업	8211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6104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업소 (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등 )
		세탁소	8406	세탁, 염색, 크리닝, 다림질, 의류수선 등
		철학관	8409	운명, 운세, 점, 사주 등
		기타 용역서비스	8299	개인과외 등
	수리서비스		가정용품수리	8301
		사무용기기수리	8302	
		컴퓨터 및 통신기기수리	8303	
		열쇠/도장	8304	디지털도어록 포함
		기타 수리서비스	8399	
가례서비스		결혼식장	8401	
		결혼서비스업	8402	결혼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업소(결혼상담업 포함)
		장의서비스/제수용품	8404	장의사, 장의자동차, 장의용품,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병원영안실, 장의관련서비스 및 제수용품 등
요금		케이블 TV	8206	케이블 TV 가입비 및 사용료 (위성방송 포함)
		인터넷이용료	8207	인터넷전용선 가입비 및 사용료
		공과금	8208	국가, 지방 자치단체등의 공과금(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용범위 및 기준
	업종	업종	코드	
		전화요금	8212	유무선전화, 호출기, 인터넷폰 등의 가입비 및 사용료
		전기 수도	8213	전기, 수도
		관리비	8215	아파트관리비
		우체국(우편요금)	8214	우체국(주무부에서만 입력 가능)
		국세	8219	(주무부에서만 입력 가능)
		지방세	8220	We-tax(행정안전부 지방세) 및 e-tax(서울시지방세) 가맹점(주무부만 입력가능)
		도시가스	8221	취사 및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업체
	회비	단체회비	8408	각종단체, 학회의 연회비, 등록비 등
		기부금	8410	종교단체 헌금/시주, 기부금, 후원회비 등
	기타	기타 제조/도매	기계류 제조/도매업	9002
식품류 제조/도매업			9003	별도의 업종적용이 어려운 식품, 음료수 등의 제조/도매업체 (예:김치공장 등)
기타 제조/도매업			9001	별도의 업종적용이 어려운 기계류/식품류외의 제조/도매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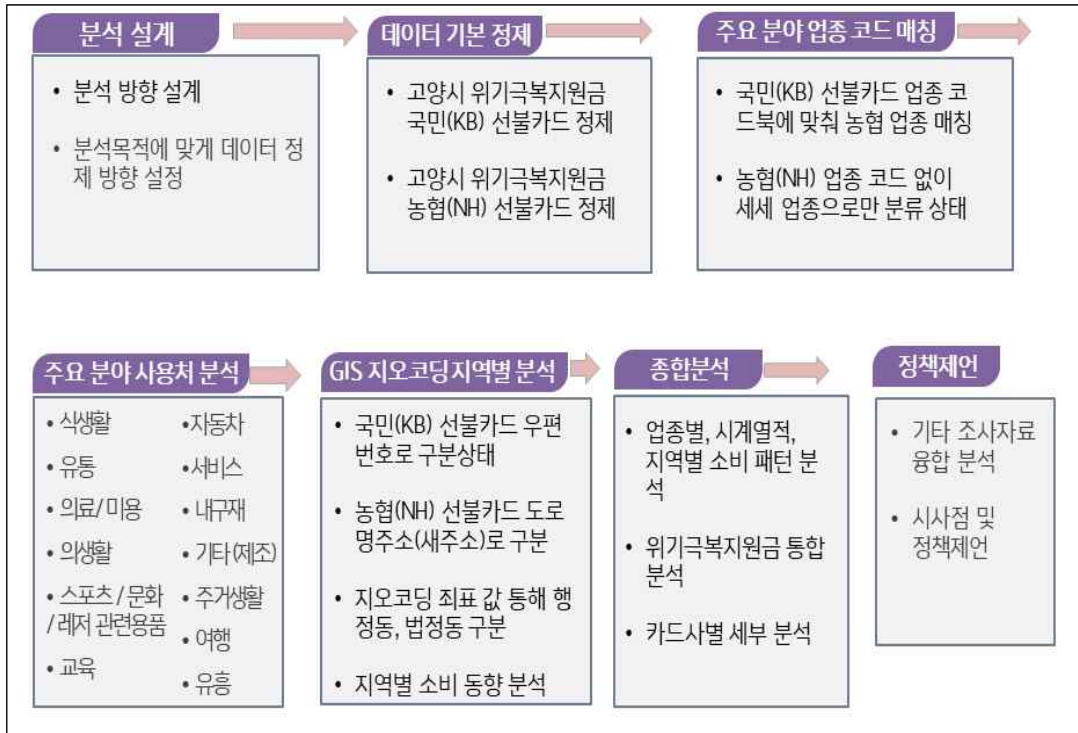


## 7. 데이터 정제 및 분석 프로세스

2종의 카드사 통합 분석을 위해 업종별 코드 신규작성 및 매칭 작업을 수행한다. 두 유형의 카드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카드사별로 제각각 분류된 업종에 대한 통일된 표준 코드북을 신규로 작성한다(KB국민은행 분류 체계 기준,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와 업종분류코드 참조).

지역별 소비동향 분석을 위한 지역별 매칭 작업을 수행한다. KB국민은행 선불카드 는 우편번호(구, 신 혼재상태) 체계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NH농협 선불카드의 경우 도로명 주소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 통일된 기준으로 통합하고 고양시 행정동으로 시각화 작업을 수행한다. 요일 보정로직은 미적용하였으며, 요일을 매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3-1] 분석 프로세스



## 8.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결과

### 1) 추진근거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결정) 및 제4조(지원 기준) 및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2020.4.1.)에 따라 지급하였다.

### 2) 사업개요

- (예 산 액) 56,171,500천원(시비 100%)
- (신청기간) 2020. 4. 14.(화) ~ 7. 31.(금) (단, 사용기간 2020. 8. 31.까지)
- (지급대상) 2020. 4. 1.(수) 24시 현재 고양시 내,
  -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내국인)
  - ② 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외국인)
- (지원금액) 1인당 5만원
- (지급방식) 국민-농협은행 선불카드 지급(5만원권, 10만원권)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3) 추진실적

#### (1) 대상별 지급

[표 3-4] 대상별 지급내역

(단위: 명)

구 분	지급대상 (‘20. 4. 1. 24시 현재)	지급실적	지급률
전 체	1,077,587	1,035,011	96%
① 내국인	1,073,367	1,031,457	96%
② 외국인	4,220	3,554	84%

## (2) 동별 지급

[표 3-5] 동별 지급내역 (내국인+외국인)

동 명	지급대상(명)	지급금액(원)
총 계	1,035,011	51,750,550,000
주교동	14,968	748,400,000
원신동	23,215	1,160,750,000
흥도동	43,317	2,165,850,000
성사1동	21,173	1,058,650,000
성사2동	11,355	567,750,000
효자동	9,861	493,050,000
삼송동	21,251	1,062,550,000
창릉동	19,290	964,500,000
고양동	29,882	1,494,100,000
관산동	35,252	1,762,600,000
능곡동	15,285	764,250,000
화정1동	36,980	1,849,000,000
화정2동	32,836	1,641,800,000
행주동	18,746	937,300,000
행신동	21,969	1,098,450,000
행신2동	31,978	1,598,900,000
행신3동	45,295	2,264,750,000
화전동	19,718	985,900,000
대덕동	2,330	116,500,000
식사동	33,211	1,660,550,000
중산동	46,599	2,329,950,000
정발산동	23,064	1,153,200,000
풍산동	38,495	1,924,750,000
백석동	29,943	1,497,150,000

등 명	지급대상(명)	지급금액(원)
백석2동	19,453	972,650,000
마두1동	23,899	1,194,950,000
마두2동	16,250	812,500,000
장항1동	10,149	507,450,000
장항2동	23,625	1,181,250,000
고봉동	21,526	1,076,300,000
일산1동	27,580	1,379,000,000
일산2동	18,680	934,000,000
일산3동	35,749	1,787,450,000
탄현동	51,199	2,559,950,000
주엽1동	27,528	1,376,400,000
주엽2동	28,689	1,434,450,000
대화동	33,471	1,673,550,000
송포동	20,963	1,048,150,000
송산동	50,237	2,511,8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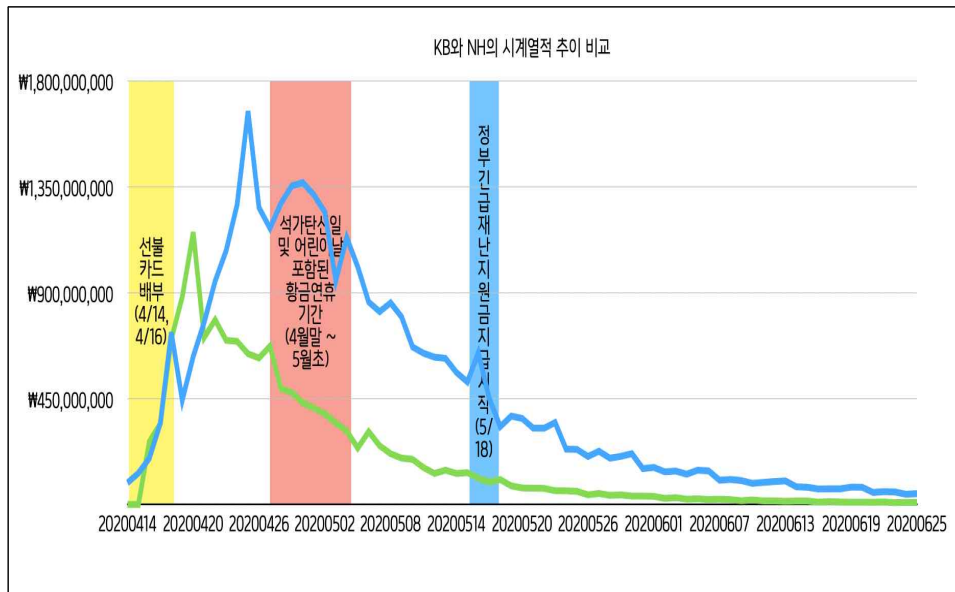
## 제2절 위기극복지원금 기본 현황 분석

### 1.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데이터 시계열 분석

#### 1) 국민(KB) 선불카드와 농협(NH) 선불카드의 시계열적 추이

국민(KB) 선불카드는 4/1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농협(NH) 선불카드는 4/16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위기극복지원금은 지급이 시작된 초기부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각각 최고 사용점(국민(KB) : 4/25, 농협(NH) : 4/20)을 지나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선불카드 모두 지급 후 2주 내에 급격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 KB국민 &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시계열 추이



## 2.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데이터 사용량 분석

### 1) 국민(KB) 선불카드와 농협(NH) 선불카드에 대한 전체 사용량 현황

국민(KB) 선불카드의 경우 '5월'이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4월'은 43%, '6월'은 7%의 비중을 차지했다. 농협(NH) 선불카드의 경우 '4월'이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5월'은 31%, '6월'은 3%의 비중을 차지했다. 농협(NH) 선불카드가 국민(KB) 선불카드에 비해 더 빠르게 소비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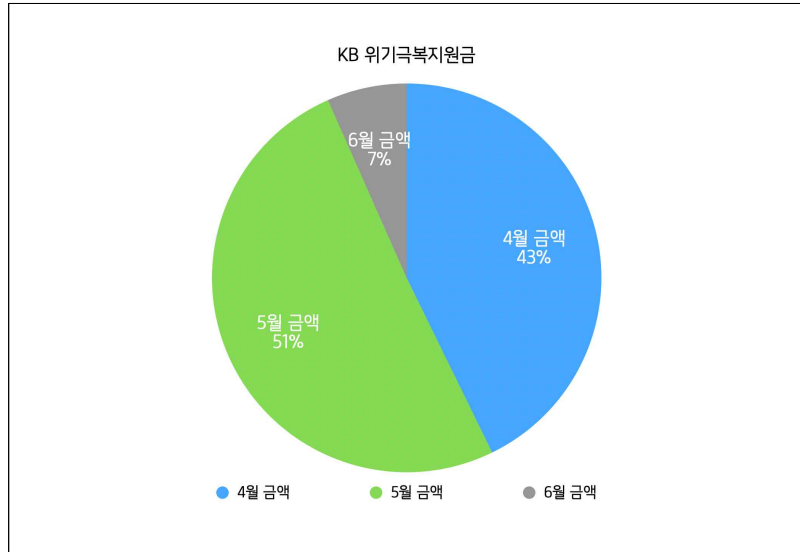
국민(KB) 선불카드를 이용한 위기극복지원금의 총액은 34,534,830,930원이다. 4월 사용량은 14,767,637,899원이며, 5월 사용량은 17,477,124,404원이며, 6월 사용량은 2,290,068,627원이다.

또한 농협(NH) 선불카드를 이용한 위기극복지원금의 총액은 14,559,349,591원이다. 4월 사용량은 9,581,150,674원이며, 5월 사용량은 4,572,463,387원이며, 6월 사용량은 405,735,53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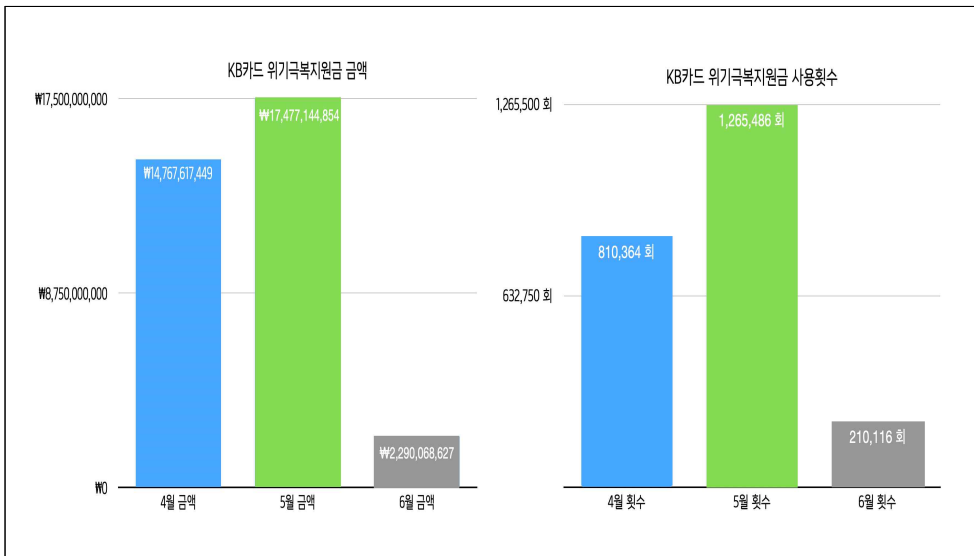
총 사용횟수로 살펴 보면, 국민(KB) 선불카드는 총 2,285,966회 사용되었으며, 농협(NH) 선불카드는 총 988,842회가 사용되었다.

전체 사용량으로 말하자면, 사용금액의 경우 '국민(KB) 선불카드'는 70.3% 정도이며, '농협(NH) 선불카드'는 29.7%를 차지한다. 사용횟수의 경우 '국민(KB) 선불카드'는 69.8%이며, '농협(NH) 선불카드'는 21.2%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초기 발급 단계에서 '국민(KB) 선불카드'가 '농협(NH) 선불카드'에 비해 신청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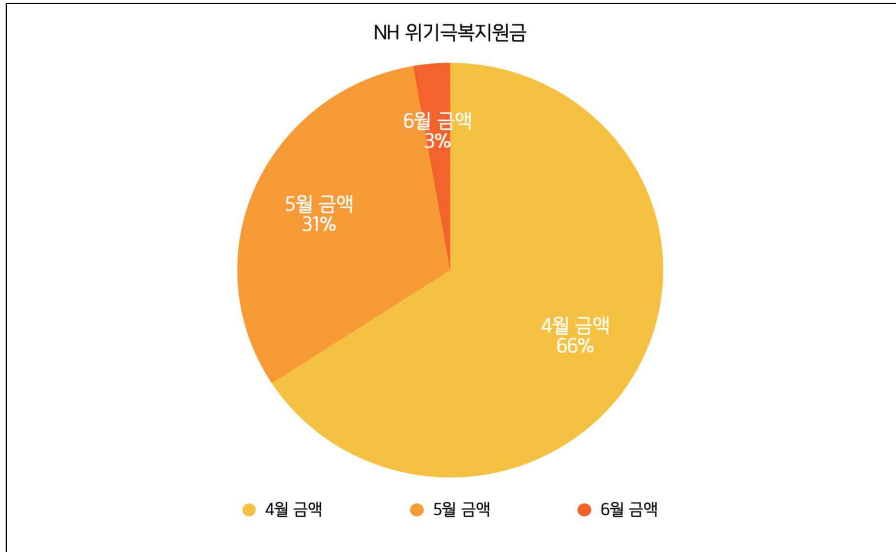
[그림 3-3] KB국민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량 파이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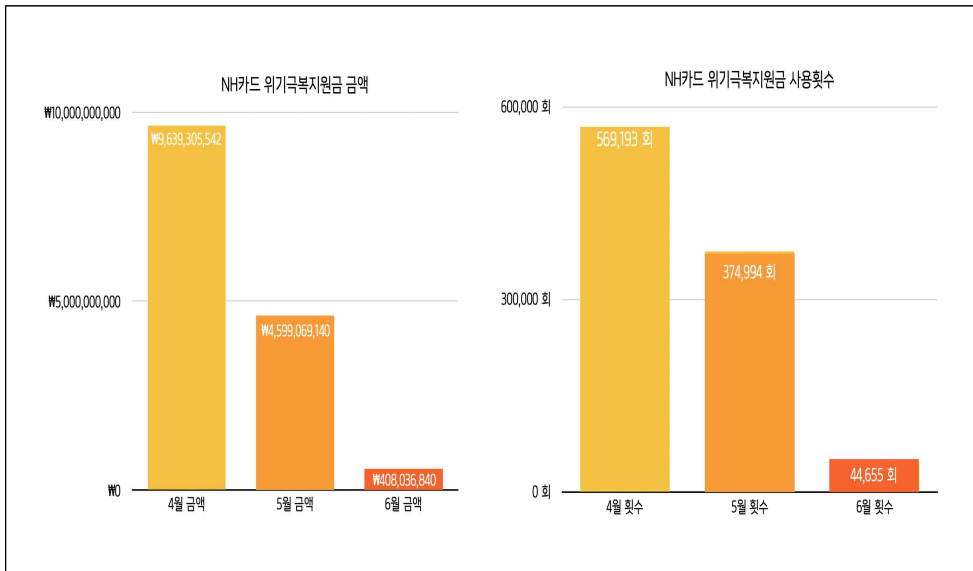
[그림 3-4] KB국민 위기극복지원금 월별 사용금액과 사용횟수



[그림 3-5]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량 파이차트



[그림 3-6]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월별 사용금액과 사용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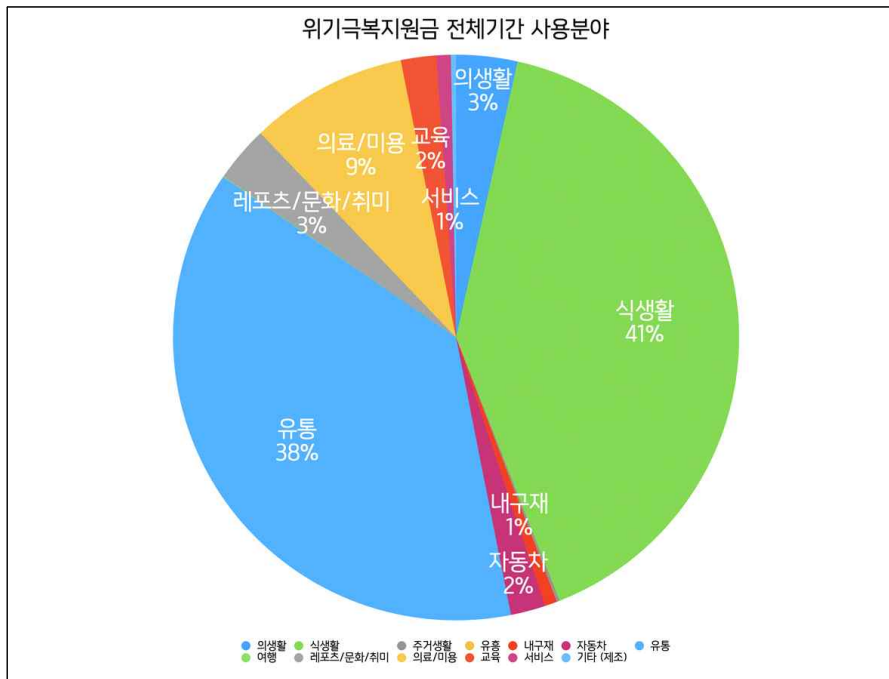
### 3.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데이터 사용업종 분석

#### 1) 국민(KB) 선불카드와 농협(NH) 선불카드 사용 분야 (대분류) 분석

위기극복지원금은 대부분 ‘식생활’ 분야와 ‘유통’ 분야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분야의 합이 79%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의료/미용’ 분야에서 9%를 사용했으며, ‘의생활’과 ‘레포츠/문화/취미’ 분야에서 3%씩 사용했다. ‘교육’과 ‘자동차’는 2%를 차지하며, ‘서비스’와 ‘내구재’ 분야에서 1%의 사용을 보인다.

‘유흥’ 분야는 위기극복지원금이 공적자금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됨을 공지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매우 적으며, ‘여행’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매우 적었다. 또한 ‘기타(제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상 위기극복지원금이 사용이 어려운 점 때문에 적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 KB국민 &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분야 파이차트



## 2)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소분류 분석

### (1)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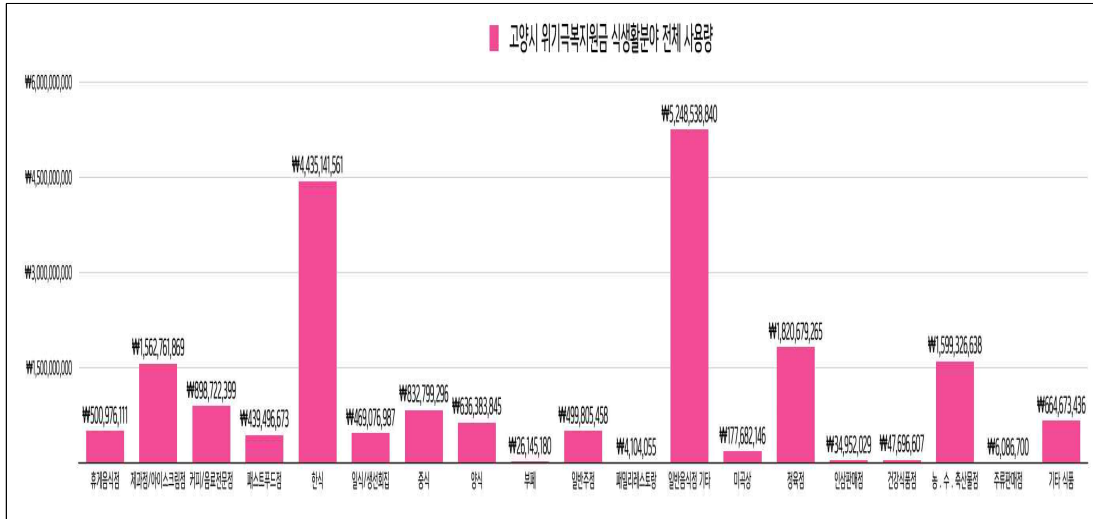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식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기타’ 소분류에서 5,248,538,840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그리고 ‘한식’에서 4,435,141,561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그 후로 ‘정육점’ 1,820,679,265원, ‘농,수,축산물점’ 1,599,326,638원과 ‘제과점/아이스크림점’ 1,562,761,869원 순으로 소비가 이어진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가 ‘식생활’로 41%를 차지한다. ‘일반음식점 기타’는 ‘식생활’의 26.37%를 차지하며, ‘한식’은 ‘식생활’의 22.28%를 차지한다. ‘정육점’은 9.14%로 나타났으며, ‘농,수,축산물점’은 8.03%와 ‘제과점/아이스크림점’ 7.85%로 상위 다섯 개의 소분류가 ‘식생활’의 7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 서술될 다른 대분류의 소비 동향과 비교하면, ‘스포츠/문화/레포츠’만이 고루 소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나머지 대분류에서 특정 소분류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국민(KB) 선불카드의 ‘식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로 사용된 위기극복지원금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위의 소분류에 사용된 금액이 다른 대분류 전체에 사용된 금액만큼 사용되거나 그 이상이 사용된 소분류도 존재한다. ‘한식’, ‘일반음식점 기타’, ‘농,수,축산물점’,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 순으로 소비가 일어났다. 위기극복지원금이 식생활 위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농협(NH) 선불카드의 경우, 농협(NH)의 ‘식생활’ 분야는 ‘일반음식점 기타’,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 ‘농,수,축산물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소분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협(NH) 선불카드 역시 ‘식생활’ 분야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8]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2) 유통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유통’ 분야를 살펴보면, ‘슈퍼마켓’ 분야에서의 소비가 11,500,000,000원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수,축협직관장’에서 3,370,725,776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그 후로 ‘편의점’ 3,080,952,076원, ‘일반잡화판매점’ 330,628,438원, ‘농어업용품’ 102,139,535원 순으로 소비가 이어진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가 ‘유통’으로 38%를 차지한다. ‘슈퍼마켓’ 소분류는 ‘유통’ 분야 소비의 62.09%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다른 대분류에서의 소비가 여러 소분류들의 소비들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된다. 단일 대분류 항목에서 단일 소분류 항목으로 가장 많은 소비량과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수,축협직관장’에서 18.2%와 ‘편의점’에서 16.64%로 나타났다. ‘농,수,축협직관장’과 ‘편의점’의 사용금액 차이는 289,773,700 정도이다. 그 후로 ‘일반잡화판매점’ 1.78%, ‘농어업용품’ 0.55% 순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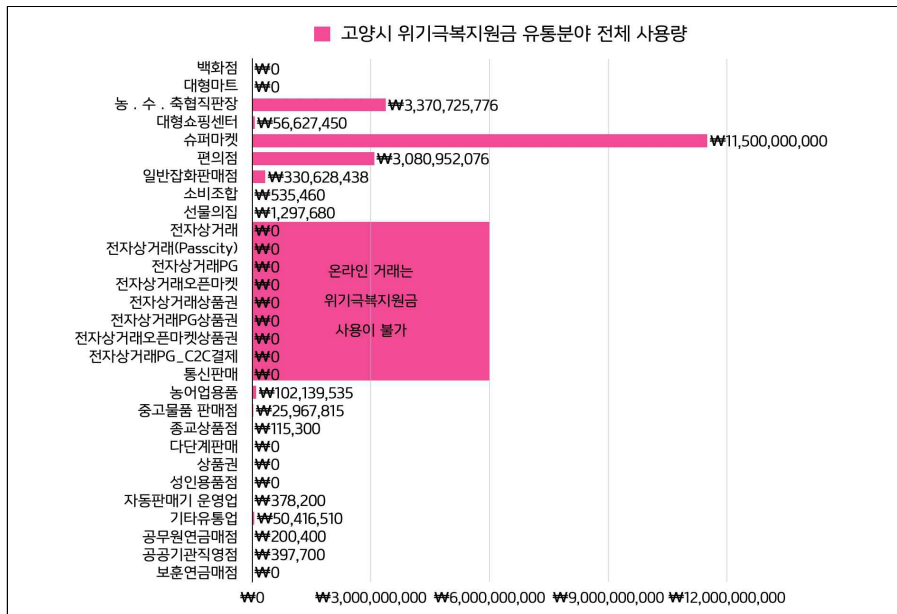
국민(KB) 선불카드의 ‘유통’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슈퍼마켓’

이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편의점’, ‘농,수,축협 직판장’, ‘일반잡화판매점’, ‘농어업용품’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국민(KB) 선불카드 또한 ‘유통’ 분야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유통’ 분야 역시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농,수,축협직판장’, ‘편의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소분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협(NH) 선불카드 역시 ‘유통’에서 전체 사용량 중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분류는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여 0원을 기록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온라인 채널의 결제 역시 불가하기 때문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은 분야가 다수 있다. ‘서울시 체로페이’의 경우 앱과 사이트에서 지역화폐(상품권)가 사용가능한 점에서 고양시 역시 온라인 거래를 확대한다면, 더 편리하고, 넓게 사용이 가능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림 3-9]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전체 사용량



### (3) 의료 / 미용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의료 / 미용’ 분야를 살펴보면, ‘약국’ 소분류에서 1,778,412,501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용원’에서 1,000,758,348원으로 두 번째로 소비가 많이 되었다. 또한 ‘일반·치과·한의원’ 분야에서의 소비도 567,617,002원으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후로 ‘화장품점’ 342,847,278원, ‘일반·치과·한방병원’ 259,427,723원 순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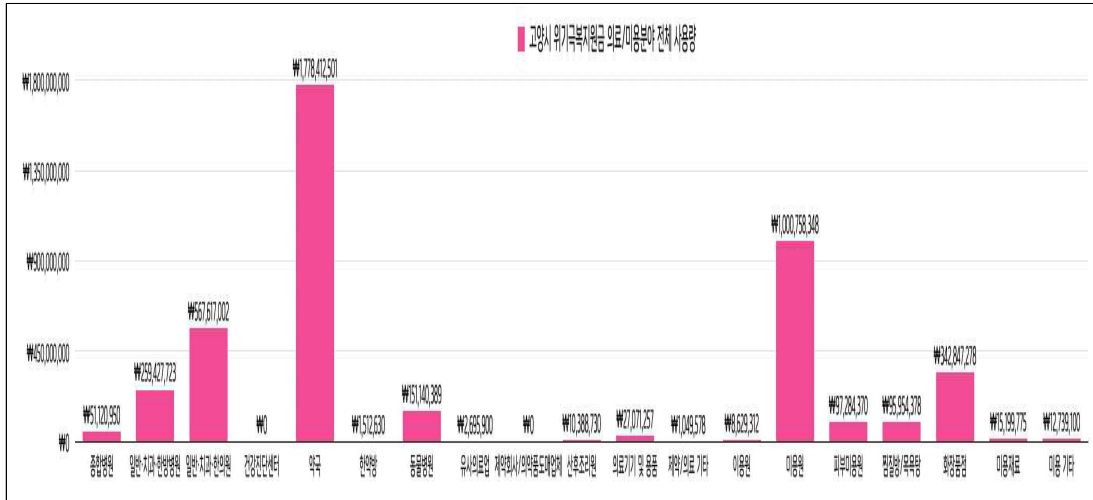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가 ‘의료 / 미용’으로 9%를 차지한다. ‘약국’ 소분류는 ‘의료 / 미용’ 분야 소비의 40.2%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미용원’은 22.62%로 나타났으며, ‘일반·치과·한의원’은 12.83%, ‘일반·치과·한방병원’은 5.86% 순으로 이어진다.

‘의료 / 미용’ 분야를 ‘의료’와 ‘미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의료’ 분야는 2,850,436,660원으로 64.43%를 차지한다. ‘미용’ 분야는 1,573,412,561원으로 35.57%를 차지한다. 이는 위기극복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비교적 비용이 드는 병원 치료에 소비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위기극복지원금이 단순 가계지원 정책이 아닌 의료·복지적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 가능한 점이다.

국민(KB) 선불카드의 ‘의료 / 미용’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약국’, ‘미용원’, ‘일반·치과·한의원’, ‘화장품점’ 순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KB) 선불카드의 또한 ‘의료 / 미용’ 분야에서 9%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의료 / 미용’ 분야 역시 ‘약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미용원’, ‘일반·치과·한방병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NH) 선불카드의 ‘의료 / 미용’ 분야는 8%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10]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전체 사용량



#### (4) 의생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의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기성복’ 항목이 554,342,171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안경점’에서의 소비는 500,540,661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안경점’은 ‘기성복’ 항목과 비슷한 매출 정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내의판매점’ 155,163,636원, ‘침구/커튼/카페트점’ 115,876,035원, ‘기타 신변잡화’ 99,054,207원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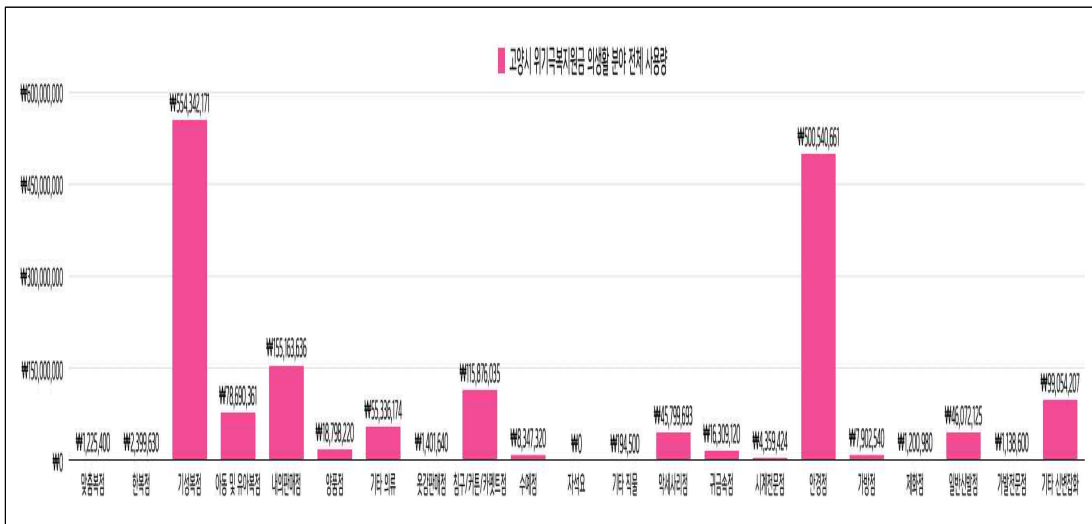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네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가 ‘의생활’로 3%를 차지한다. ‘기성복’ 소분류는 ‘의생활’ 분야 소비의 32.34%를 차지하며, ‘안경점’은 29.20%, ‘내의판매점’ 9.05%, ‘침구/커튼/카페트점’ 6.76%, ‘기타 신변잡화’ 5.78% 순으로 이어진다. ‘의생활’ 분야에서는 ‘기성복’과 ‘안경점’ 두 개의 소분류가 ‘의생활’ 소비데이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수품이 된 품목 중 안경과 렌즈가 가격대를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기극복지원금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KB) 선불카드의 ‘의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기성복

점’, ‘안경점’, ‘내의판매점’, ‘침구/커튼/카페트점’, ‘아동 및 유아복점’ 순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된 순서로 살펴보면, 실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안경, 콘택트 렌즈 등에 소비와 잠자리에 필요한 이불, 배개, 커튼에 대한 소비, 평소 착용하는 내의, 양말과 같은 소모품에 대한 소비, 그리고 아이들이 입는 아동 및 유아복점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KB) 선불카드 또한 ‘의생활’ 분야에서 약 3%의 비중을 차지한다.

서술될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의생활’ 분야 역시 ‘기성복’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안경점’, ‘기타 신변잡화’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NH) 선불카드 또한 ‘의생활’ 분야에서 약 4%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11]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5)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를 살펴보면, 다른 대분류들과는 다르게 많은 소분류 항목들이 각각 고루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소분류에서 많은 사용이 행해진 다른 대분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에서 제일 많은 소비를 보인 분류는 ‘스포츠용품점’으로 295,161,318원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서점’에서 208,756,302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소분류는 ‘화원’으로 206,072,100원이 사용되었다. 이어지는 소분류는 ‘완구점’ 154,461,356원, ‘애완동물점’ 153,730,932원 등 순으로 사용되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가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으로 3%를 차지한다. ‘스포츠용품점’은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 소비의 18.78%를 차지하며, ‘서점’은 13.28%, ‘화원’은 13.11%, ‘완구점’ 9.83%, ‘애완동물’ 9.78% 순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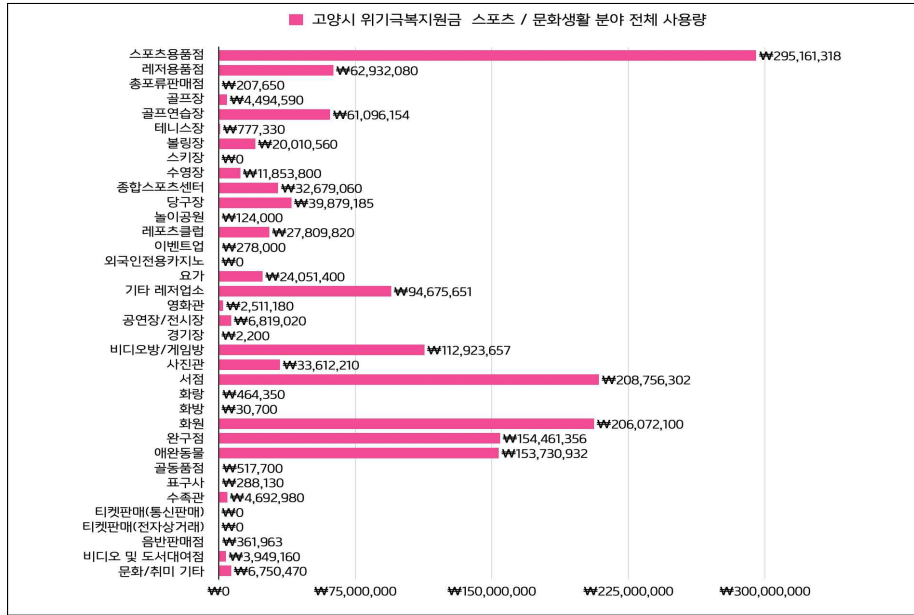
미리 국민(KB) 선불카드의 ‘스포츠 / 문화 / 레저’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스포츠용품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화원’, ‘완구점’, ‘서점’, ‘애완동물용품점’ 순으로 소비되었다.

후에 서술될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 역시 ‘스포츠용품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서점’, ‘기타 레저업소’, ‘화원’, ‘애완동물’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를 들여다보았을 때, 소분류 한 개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상위 여러 소분류에서 소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 전체 사용량



(6) 교육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문리계학원’이 312,620,993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인다. 그리고 ‘문방구점’에서 237,816,081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예체능계학원’이 173,394,677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였으며, ‘외국어학원’ 112,065,657원, ‘기술 / 사무 / 가정계학원’ 47,212,700원 순으로 소비가 이어진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여섯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가 ‘교육’으로 2%를 차지한다. ‘문리계학원’ 소분류는 ‘교육’ 분야 소비의 31.45%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문방구점’에서 23.92%, ‘예체능계학원’ 17.44%, ‘외국어학원’ 11.27%, ‘기술 / 사무 / 가정계학원’ 4.75% 순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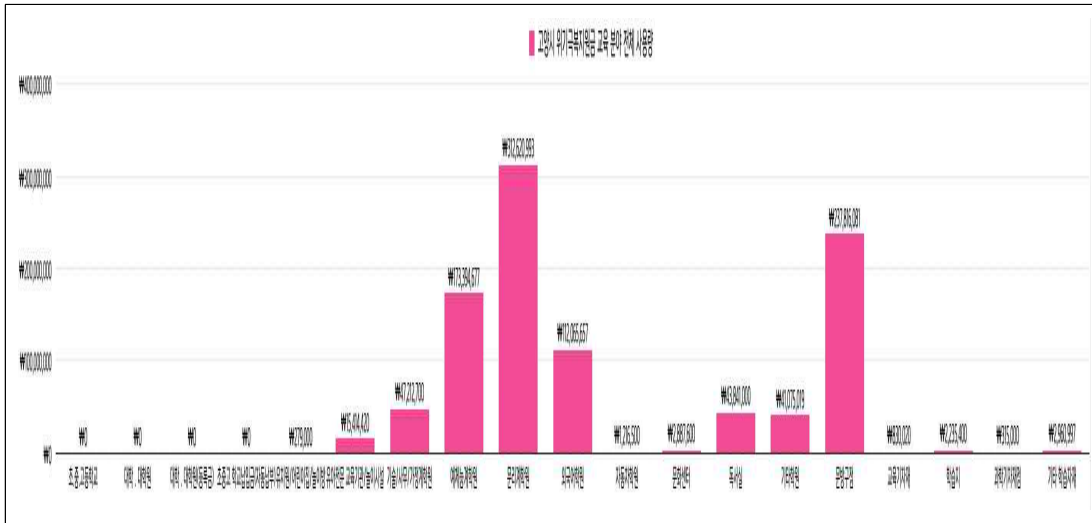
‘교육’ 분야는 ‘학원’ 분야에 사용한 소비와 ‘학습자재’에서 사용한 소비가 주를 이룬다. 위기극복지원금이 여러 종류의 학원 분야에서 사용된 것에 반해, ‘문방구점’은 단일

항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학원’ 소분류들이 73.86%를 차지하며, ‘학습자재’ 소분류들이 24.56%를 차지하며, ‘유아 관련’에서 나머지 1.58%를 차지한다.

국민(KB) 선불카드의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문리계학원’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났으며, ‘문방구점’, ‘예체능계학원’, ‘외국어학원’, ‘독서실’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교육’ 분야 역시 ‘문리계학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문방구점’, ‘예체능계학원’, ‘기술 / 사무 / 가정계학원’, ‘외국어학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전체 사용량



(7) 자동차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자동차’ 분야를 살펴보면, ‘주유소’ 분야에서 소비가 551,842,175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 역시 한 소분류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가 183,500,208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이후로 ‘자전거

판매점' 65,419,568원과 '충전소' 47,970,272원, '세차장' 24,699,890원 순으로 소비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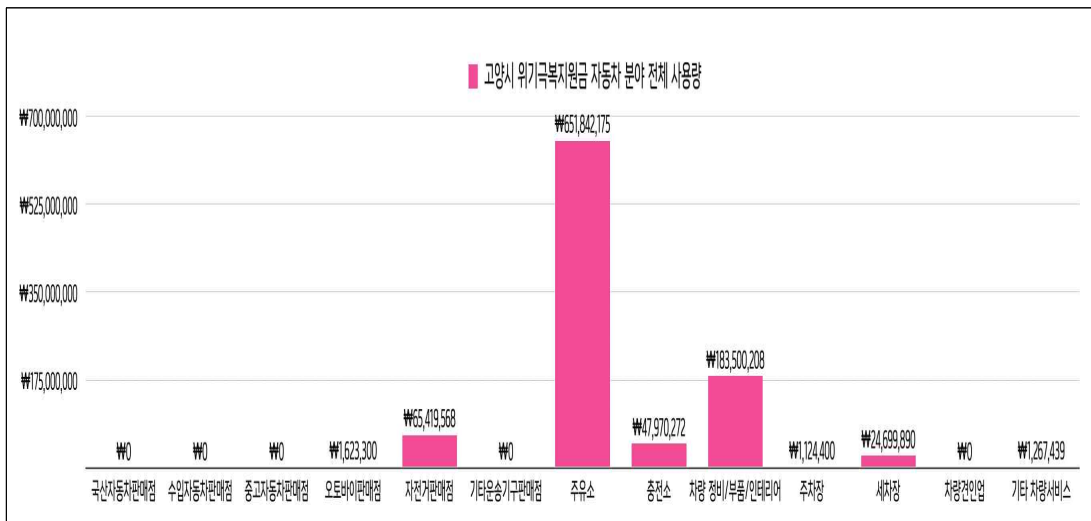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일곱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가 '자동차'로 2%를 차지한다. '주유소' 소분류는 '자동차' 분야 소비의 66.69%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이어서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가 18.77%로 나타나며, '자전거판매점'에서 6.69%, '충전소' 4.91%, '세차장' 2.53% 순으로 이어진다.

국민(KB) 선불카드의 '자동차'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주유소',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 '자전거판매점', '충전소', '세차장'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자동차' 분야 역시 '주유소'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 '충전소', '세차장'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이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특성상 '국산자동차판매점', '수입자동차판매점',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라는 물품이 워낙 고액으로 거래되는 분야이다 보니 오히려 차량 정비나 부품, 내부 인테리어용품 측면으로 소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4]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전체 사용량



## (8) 서비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서비스’ 대분류를 살펴보면, 다른 대분류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분야가 존재한다. ‘세탁소’ 소분류는 284,414,916원으로 ‘서비스’ 분야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된 소분류는 ‘기타 용역서비스’로 41,693,103원이 사용되었다.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된 소분류는 ‘시설대여업’으로 27,060,350원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각종 수리업종 서비스’가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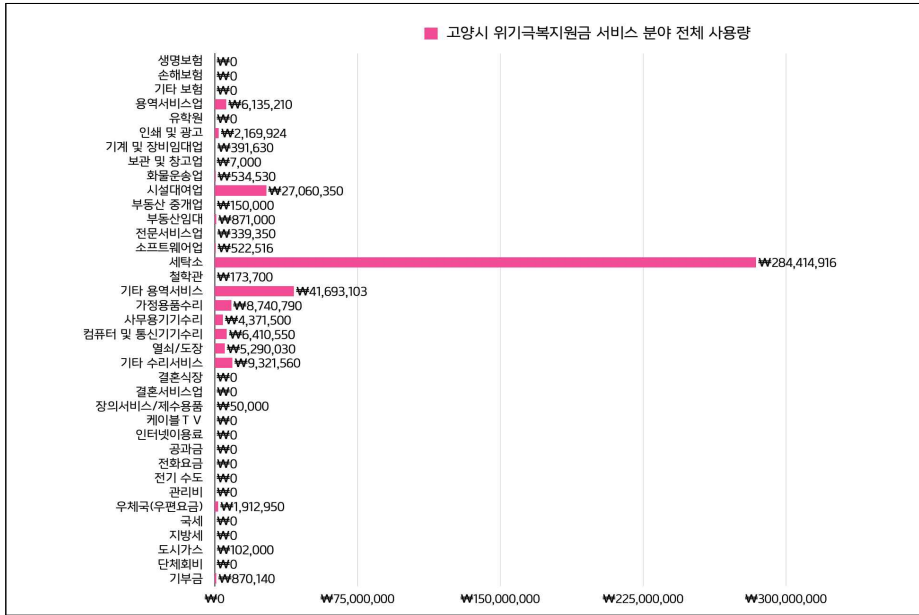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여덟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는 ‘서비스’로 1%를 차지한다. ‘세탁소’ 소분류는 ‘서비스’ 분야 소비의 70.83%를 차지한다. 그 후로 ‘기타 용역서비스’ 10.38%, ‘시설대여업’ 6.74%, ‘각종 수리업종 서비스’ 약 1~2% 순으로 이어진다.

미리 국민(KB) 선불카드의 ‘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세탁소’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기타 용역서비스’, ‘시설대여업’, ‘각종 수리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후에 서술될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서비스’ 분야 역시 ‘세탁소’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시설대여업’, ‘각종 수리업종’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 대면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대분류는 위기극복지원금 자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대면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업종은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음을 ‘세탁소’ 소비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세탁소’를 제외한 서비스업은 위기극복지원금의 소비가 현저히 낮음을 확인됨으로, 서비스업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5]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전체 사용량



(9) 내구재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내구재’ 분야를 살펴보면, ‘주방 및 가정용품점’에서의 소비가 145,059,827원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소비가 일어난 소분류는 ‘일반 가구점’으로 92,860,384원이 사용되었다. 그 후로 ‘가전제품점’ 35,100,040원과 ‘주방기구점’ 15,747,080원, ‘조명 전기기구점’ 15,346,449원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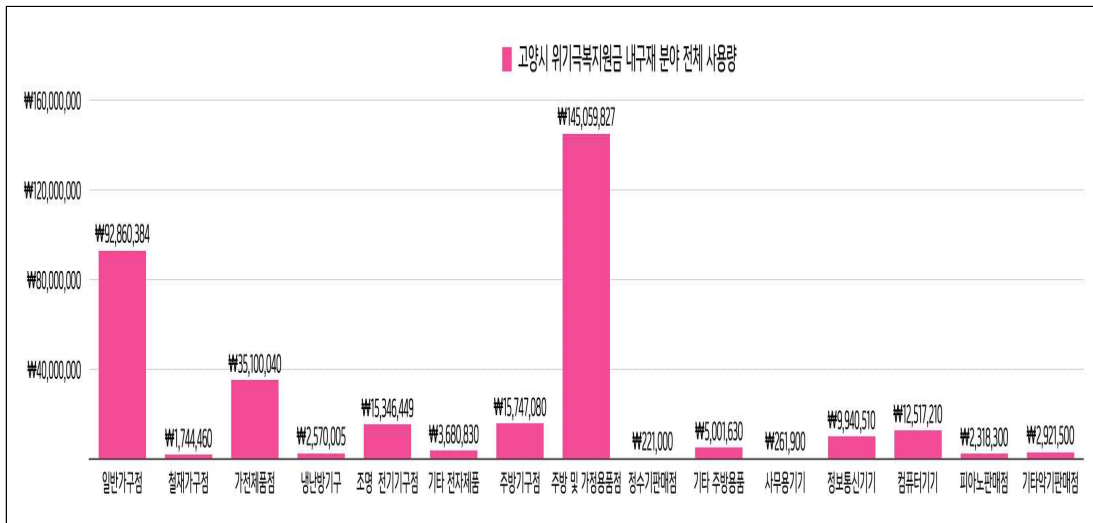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아홉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는 ‘내구재’로 1%를 차지한다. ‘주방 및 가정용품점’ 소분류는 42.01%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일반 가구점’에서 26.89%로 나타났다. 그 후로 ‘가전제품점’ 10.17%, ‘주방기구점’ 4.56%, ‘조명 전기기구점’ 4.44%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국민(KB) 선불카드의 ‘내구재’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주방 및 가정용품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일반가구점’, ‘가전제품점’, ‘조명 전기기구점’, ‘주방기구점’ 순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내구재’ 분야는 ‘일반가구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주방 및 가정용품점’, ‘가전제품점’, ‘주방기구점’, ‘정보통신기기’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재’ 분야의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라이프 스타일과도 연관이 깊다. 외부활동보다 내부활동의 시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주방 및 가정용품’의 소비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함으로 그 관심은 ‘일반가구점’, ‘가전제품점’, ‘조명 전기기구점’, ‘주방기구점’에서의 소비로 이어졌으리라 유추한다.

[그림 3-16]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전체 사용량



#### (10) 기타 (제조)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제조’ 분야를 살펴보면, ‘기계류 제조/도매업’, ‘식품류 제조/도매업’, ‘기타 제조/도매업’ 세 가지 소분류 중 ‘식품류 제조/도매업’에서의 소비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식품류 제조/도매업’ 소분류의 금액은 122,628,307원으로 다른 2개의 소분류의 금액을 합친 것과 5.78배의 차이를 보인다. ‘기

계류 제조/도매업'이 13,061,589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었으며, '기타 제조/도매업'은 8,143,369원으로 '제조' 분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된 것과 동시에 가장 낮은 소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이 '식품류 제조/도매업'에 편중되어 사용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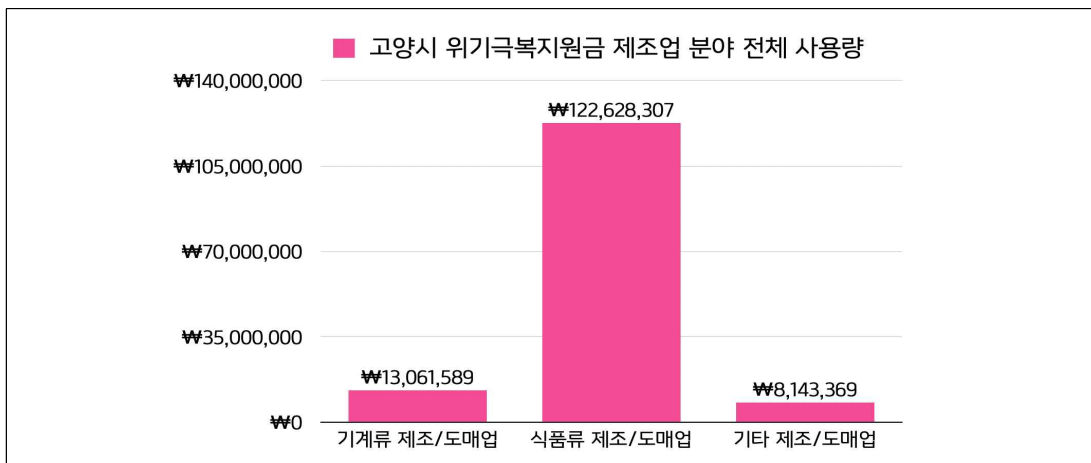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열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는 '제조(기타)'로 1% 미만을 차지한다. '식품류 제조/도매업'은 '제조' 분야 소비의 85.62%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다음으로 '기계류 제조/도매업'이 9.08%, '기타 제조/도매업'이 5.66% 순으로 이어진다.

국민(KB) 선불카드의 '제조(기타)'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식품류 제조/도매업'이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인다. 이어서 '기타 제조/도매업', '기계류 제조/도매업' 순으로 나타난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제조' 분야는 오직 '기계류 제조/도매업'에서만 발생했으며, 국민(KB) 선불카드의 사용처가 '식품류 제조/도매업'에서 많이 소비된 모습과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조' 분야 역시 산업특성상 위기극복지원금이 사용되기 어려운 업종이다 보니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3-17]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전체 사용량



### (11) 주거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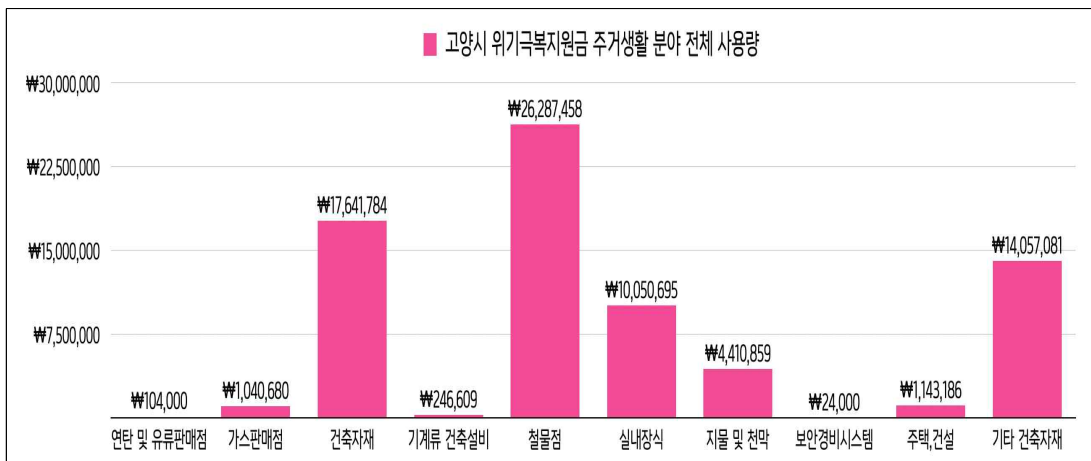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주거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철물점’, ‘건축자재’, ‘실내장식’, ‘자물 및 천막’ 순으로 위기극복지원금이 소비된 것을 알 수 있다. ‘철물점’에서의 소비는 26,287,458원으로 가장 많으며, ‘건축자재’ 소비액은 17,641,784원, ‘기타 건축자재’ 14,057,081원, ‘실내장식’ 소비액은 10,050,695원, ‘자물 및 천막’ 소비액은 4,410,859원이 사용되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열한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는 ‘주거생활’로 1% 미만을 차지한다. ‘철물점’에서의 소비는 ‘주거생활’ 분야 소비의 35.05%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건축자재’에서 23.52%를 차지하며, ‘기타 건축자재’에서 18.74%, ‘실내장식’ 소비액은 13.4%, ‘자물 및 천막’ 소비액은 5.88% 순으로 이어진다.

국민(KB) 선불카드의 ‘유통’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철물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건축자재’, ‘실내장식’, ‘자물 및 천막’, ‘주택, 건설’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주거생활’ 분야는 ‘기타 건축자재’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실내장식’, ‘건축자재’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 (12)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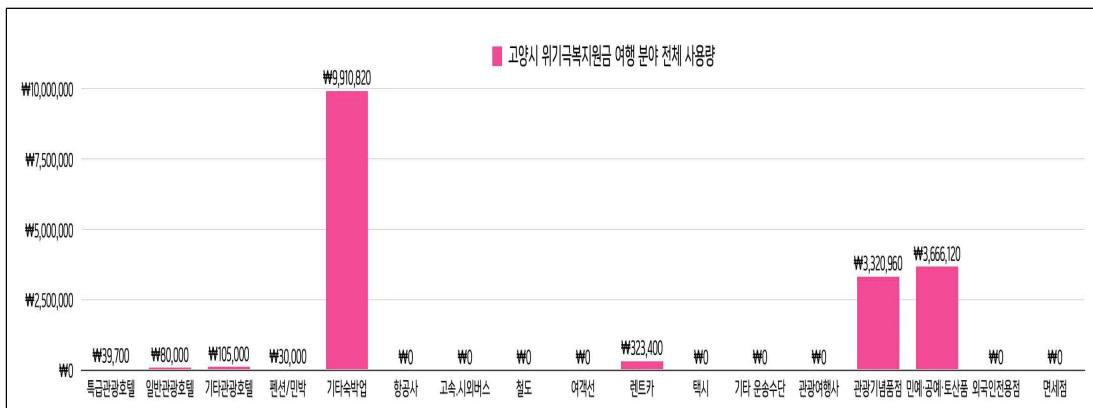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여행’ 분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분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소분류가 0원 소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여행’ 분야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숙박업’ 소분류에서의 소비가 9,910,820원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예·공예·토산품’에서 3,666,120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그 후로 ‘관광기념품점’ 3,320,960원, 그 외로 ‘렌트카’ 323,400원, ‘기타 관광호텔’ 105,000원 순으로 소비되었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살펴보면, 13개의 대분류 중 열두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분류는 ‘여행’ 분야로 1% 미만을 차지한다. ‘여행’ 분야 사용량은 ‘기타 숙박업’ 56.71%, ‘민예·공예·토산품’ 20.98%, ‘관광기념품점’ 19%, ‘렌트카 1.85%’, ‘기타관광호텔’ 0.6%순으로 이어진다.

국민(KB) 선불카드의 ‘유통’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선불카드 역시 ‘기타 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며, ‘민예·공예·토산품’, ‘렌트카’ ‘기타관광호텔’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여행’ 분야는 ‘관광 기념품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며, ‘기타숙박업’, ‘민예·공예·토산품’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전체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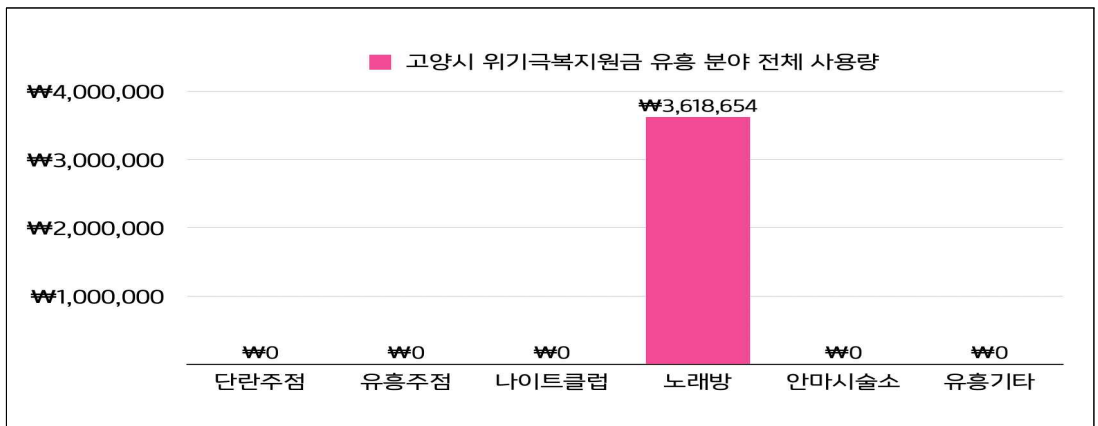
### (13) 유흥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선불카드 데이터 중 ‘유흥’ 분야를 살펴보면, ‘노래방’에서의 소비가 3,618,654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며, 유일한 소비를 보인다. 또한 모든 위기극복지원금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사용된 대분류이다.

미리 국민(KB) 선불카드의 ‘유흥’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유흥’ 분야의 소비는 전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지원금 성격이 강한 ‘위기극복지원금’ 특성상 처음부터 ‘유흥’ 분야의 소비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별 소비량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후에 서술될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유흥’ 분야에서 ‘노래방’ 소분류만 소비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흥’ 분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사용이 제한된 업종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노래방’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업종분류코드에 따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카드사의 업종분류표에 노래방을 ‘유흥’ 대분류로 분류했을 뿐, 실질적으로 ‘노래방’이나 ‘코인노래방’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3-20]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유흥 분야 전체 사용량



## 제3절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지역별 사용 현황

### 1. 고양시 행정동별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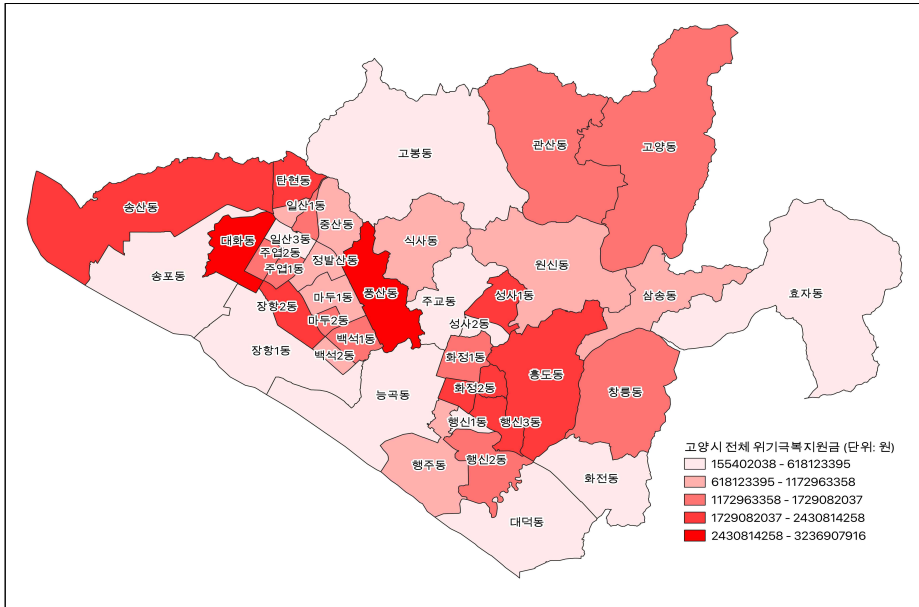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량을 고양시 구별,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별로 보면 덕양구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일산서구, 일산동구의 순을 보인다. 행정동별로 살펴보면 일산서구의 대화동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으며 다음이 일산동구의 풍산동, 덕양구의 성사1동 순을 보인다.

[표 3-6]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전체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총합	₩21,220,371,577	1
	주교동	₩330,506,340	36
	원산동	₩1,028,231,480	23
	흥도동	₩1,922,933,112	9
	성사 1동	₩2,430,814,258	3
	성사 2동	₩265,927,658	37
	효자동	₩155,402,038	39
	삼송동	₩816,785,915	27
	창릉동	₩1,556,083,408	13
	고양동	₩1,369,182,368	16
	관산동	₩1,621,718,205	11
	능곡동	₩496,865,537	34
	화정 1동	₩1,565,223,953	12
	화정 2동	₩2,230,394,002	4
	행주동	₩881,673,680	25
	행신 1동	₩540,163,074	32
	행신 2동	₩1,406,879,973	15
	행신 3동	₩1,949,054,452	7
	화전동	₩479,432,240	35
	대덕동	₩173,099,884	38

구	행정동	금액	순위
일산동구	<b>총합</b>	<b>₩13,855,528,070</b>	<b>3</b>
	식사동	₩1,042,737,521	22
	중산동	₩1,138,385,416	21
	정발산동	₩1,172,963,358	20
	풍산동	₩3,013,597,679	2
	백석 1동	₩1,299,767,132	19
	백석 2동	₩915,963,890	24
	마두 1동	₩831,542,322	26
	마두 2동	₩1,358,970,778	17
	장항 1동	₩546,036,681	31
	장항 2동	₩1,936,007,626	8
	고봉동	₩599,555,667	30
일산서구	<b>총합</b>	<b>₩14,016,219,504</b>	<b>2</b>
	일산 1동	₩746,116,898	28
	일산 2동	₩1,500,745,693	14
	일산 3동	₩535,654,663	33
	탄현동	₩2,101,903,598	6
	주엽 1동	₩1,345,489,346	18
	주엽 2동	₩1,729,082,037	10
	대화동	₩3,236,907,916	1
	송포동	₩618,123,395	29
	송산동	₩2,202,195,958	5

[그림 3-21]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전체 사용량 공간정보 시각화



# 제 4 장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사별 세부분석

제1절 KB 국민은행 선불카드 분석 결과

제2절 NH 농협 선불카드 분석 결과

제3절 분석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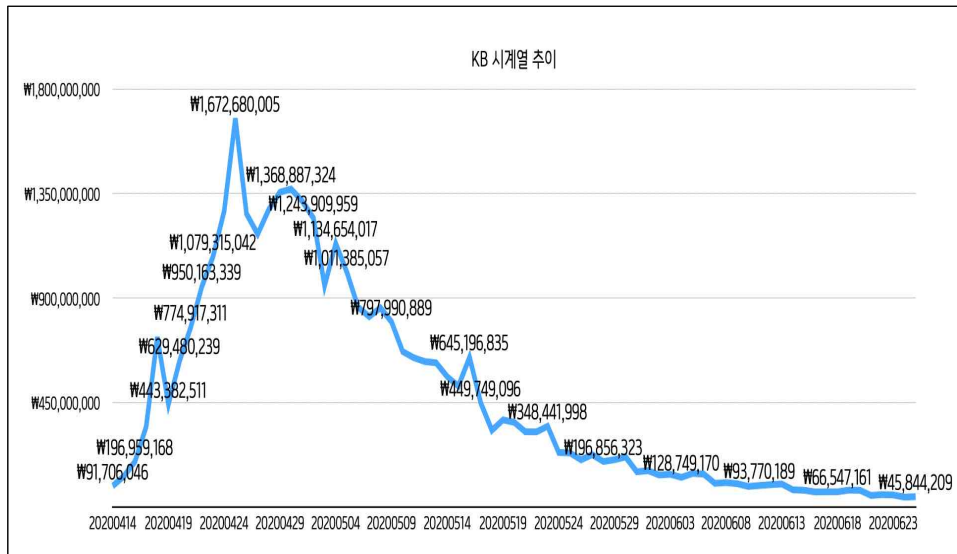


## 제절 KB 국민은행 선불카드 분석 결과

### 1. KB 국민 선불카드 시계열 추이 분석

국민(KB) 선불카드는 4월 14일부터 배부가 시작되어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4월 25일에 사용량을 최고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후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이 있는 주(4월 말부터 5월 초)에 다시 사용량이 증가한 후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5월 18일날 지급되는 정부긴급재난금에 맞춰 지자체 지원금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1] KB국민 위기극복지원금 시계열 추이



## 2. KB 국민 선불카드 업종별 분석

### 1) KB 선불카드 대분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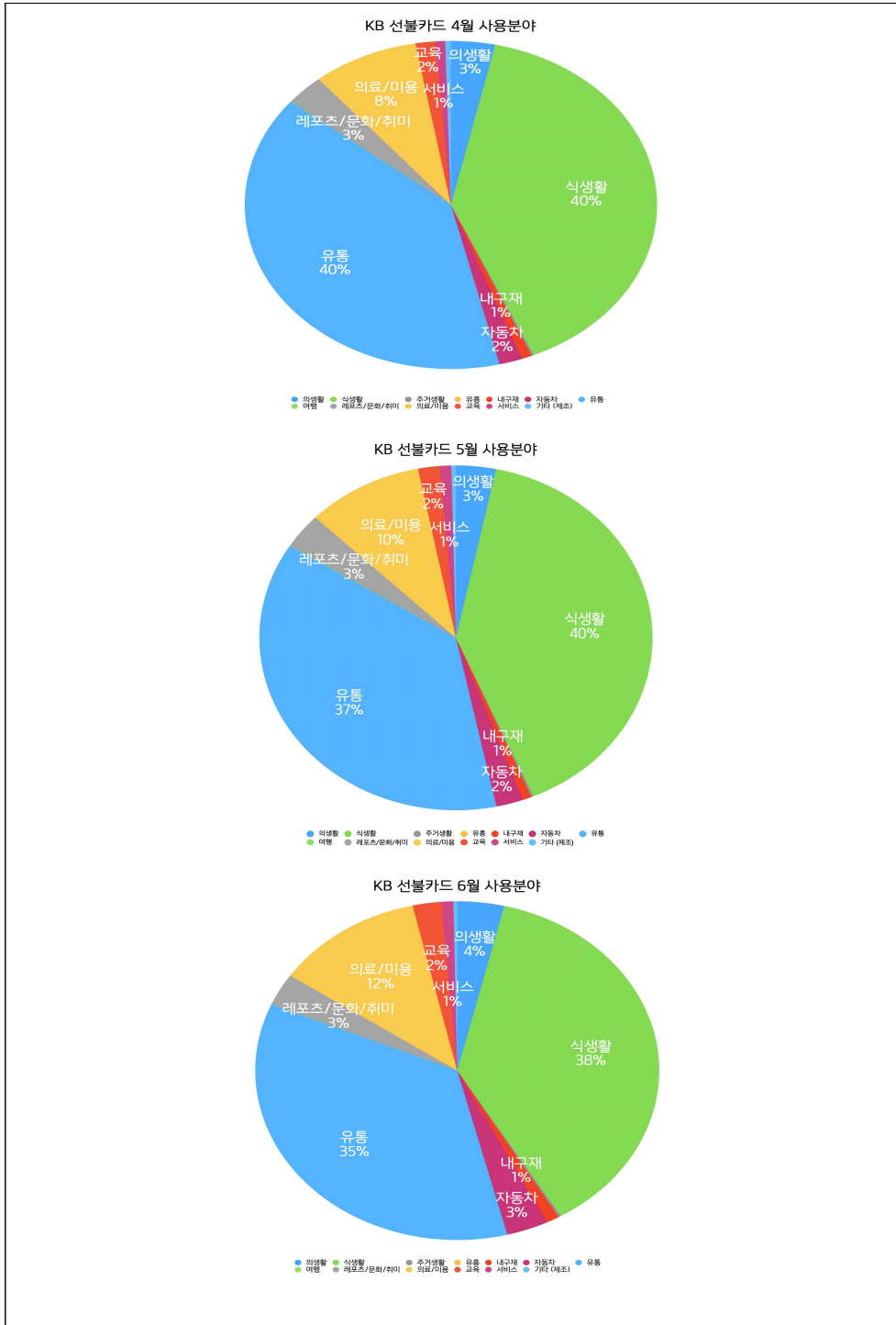
앞서 서술한 업종분류표를 참조하면, 대분류는 총 13개로 ‘식생활’ 분야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며, ‘유통’ 분야에서 37% 정도를 차지한다. 이 둘의 합계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며, KB 선불카드로 지급된 위기극복지원금을 ‘식생활’과 ‘유통’ 분야에서 대부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순위로 많이 사용된 분야는 ‘의료/미용’ 분야이며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의생활 분야’와 ‘레포츠/문화/취미’ 분야,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분야가 3%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과 ‘내구재’ 분야에서 1%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자제되면서, ‘여행’ 분야에서 소비는 매우 한정되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흥’ 분야는 지자체에서 처음 위기극복지원금을 지원할 때, 공적으로 지원하는 세금의 특성상 사용이 자제되는 분야로 공지를 하였기 때문에 사용량이 없다. ‘기타(제조업)’ 분야 역시 사용량은 있으나,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산업의 특성상 사용이 많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위기극복지원금의 지원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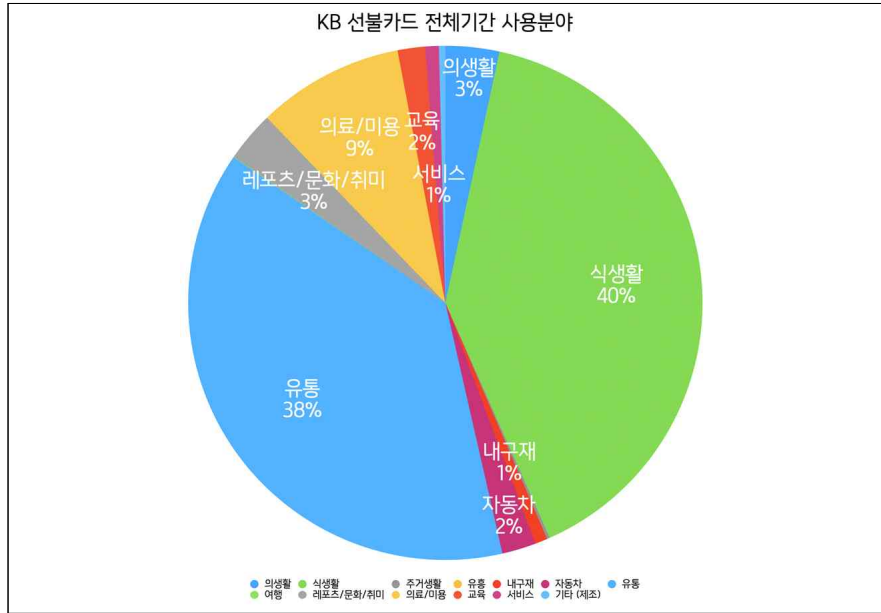
많은 분야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은 활용도 높게 사용이 되었지만, 자영업자 중에서도 ‘기타(제조업)’과 ‘여행’, ‘유흥’ 분야의 시민들은 위기극복지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림 4-2] KB 국민 위기극복지원금 4월, 5월, 6월 사용 분야 (대분류)



[그림 4-3] KB 위기극복지원금 전체기간 사용 분야 (대분류)



## 2) KB 선불카드 소분류 분석

### (1)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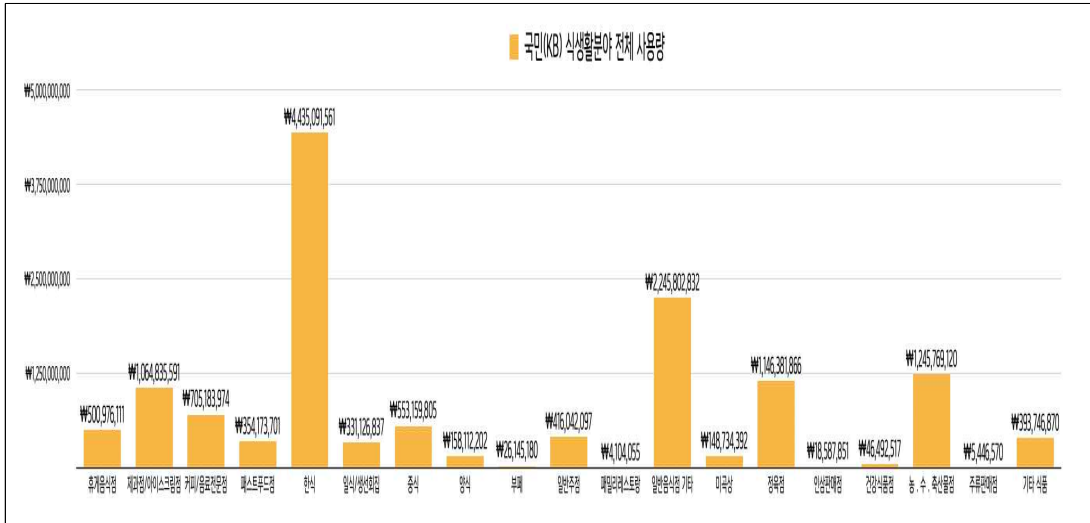
국민(KB) 선불카드 데이터 중 ‘식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한식’ 소분류에서 4,435,091,561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기타’에서 2,245,802,832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그 후로 ‘농,수,축산물점’과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순으로 소비가 이어진다.

월별 소비를 살펴보면, 4월과 5월, 6월 모두 ‘한식’, ‘일반음식점 기타’, ‘농,수,축산물점’,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 분야는 모든 소분류에서 고루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서술될 다른 대분류의 소비 동향과 비교하면, ‘스포츠/문화/레포츠’만이 고루 소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나머지 대분류에서 특정 소분류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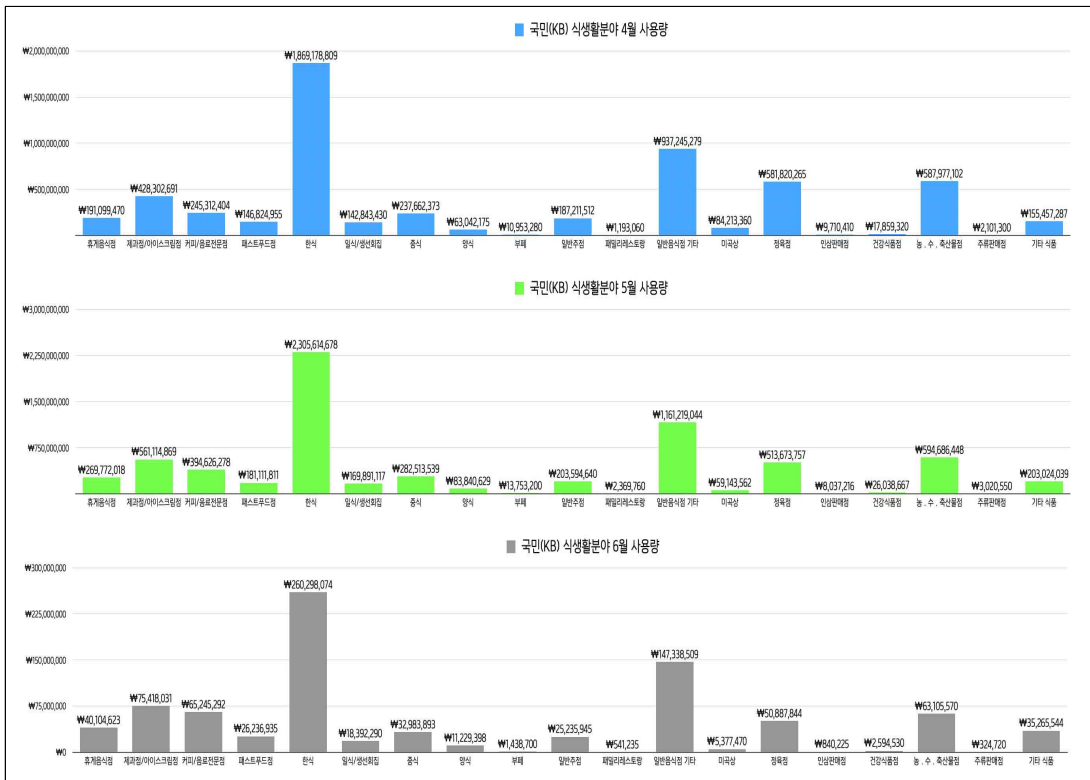
국민(KB) 선불카드의 ‘식생활’ 분야는 전체 위기극복지원금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위의 소분류에 사용된 금액이 다른 대분류 전체에 사용된 금액만큼 사용되거나 그 이상이 사용된 소분류도 존재한다. 위기극복지원금이 식생활 위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서술될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식생활’ 분야는 ‘일반음식점 기타’,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 ‘농,수,축산물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소분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협(NH) 선불카드 역시 식생활에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4-4] KB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5] KB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2)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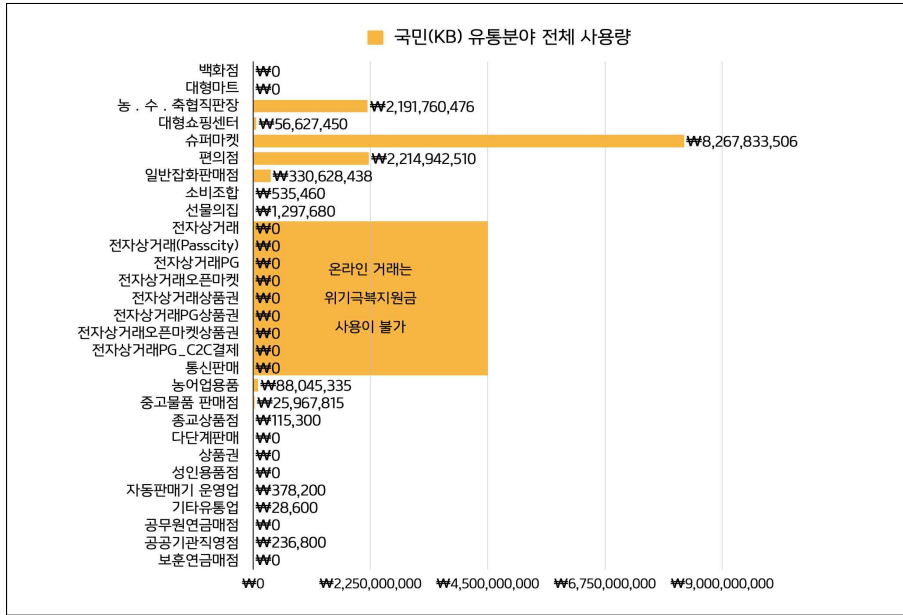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유통’ 분야를 살펴보면, ‘슈퍼마켓’ 분야에서의 소비가 8,267,833,506원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대분류에서의 소비가 여러 소분류들의 소비들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된다. 단일 대분류 항목에서 단일 소분류 항목으로 가장 많은 소비량과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 ‘슈퍼마켓’ 소분류는 ‘유통’ 분야 소비의 62.7%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편의점’ 소분류에서 2,214,942,510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농,수,축협 직판장’이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편의점’과 사용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 후로 ‘일반잡화판매점’, ‘농어업용품’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월별 소비를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월별 사용량은 역시 ‘슈퍼마켓’이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4월은 ‘농,수,축협 직판장’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5월과 6월은 ‘편의점’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후 모든 월별 사용량은 ‘일반잡화판매점’, ‘농어업용품’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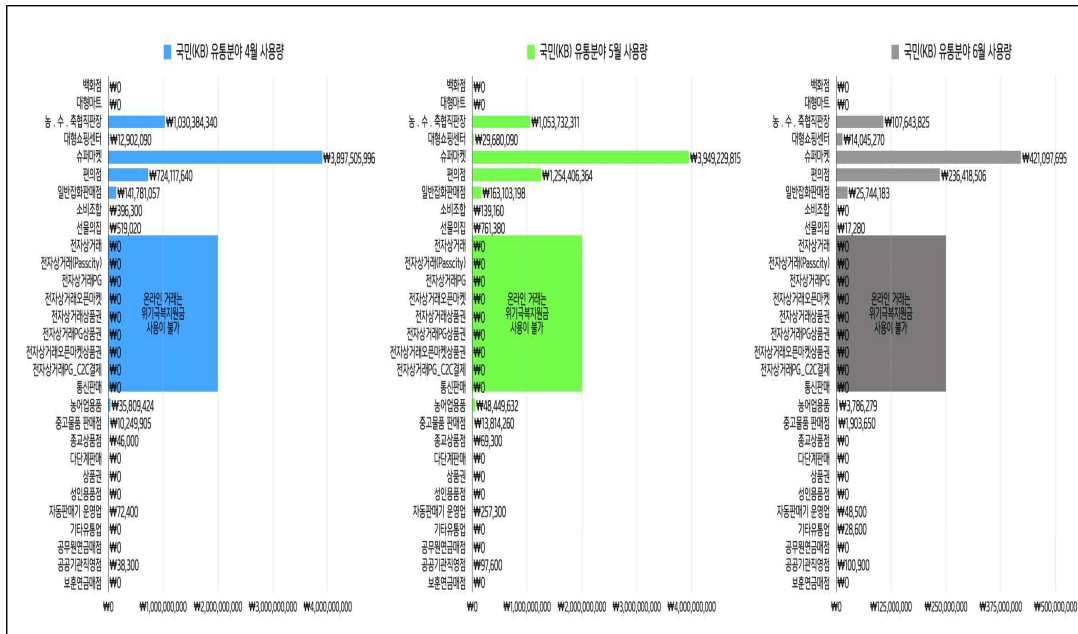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유통’ 분야 역시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농,수,축협직판장’, ‘편의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소분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협(NH) 선불카드 역시 ‘유통’에서 전체 사용량 중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분류는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여 0원을 기록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온라인 채널의 결제 역시 불가하기 때문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은 분야가 다수 있다. ‘서울시 제로페이’의 경우 앱과 사이트에서 지역화폐(상품권)가 사용가능한 점에서 고양시 역시 온라인 거래를 확대한다면, 더 편리하고, 넓게 사용이 가능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림 4-6] KB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7] KB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월별 사용량



### (3) 의료 / 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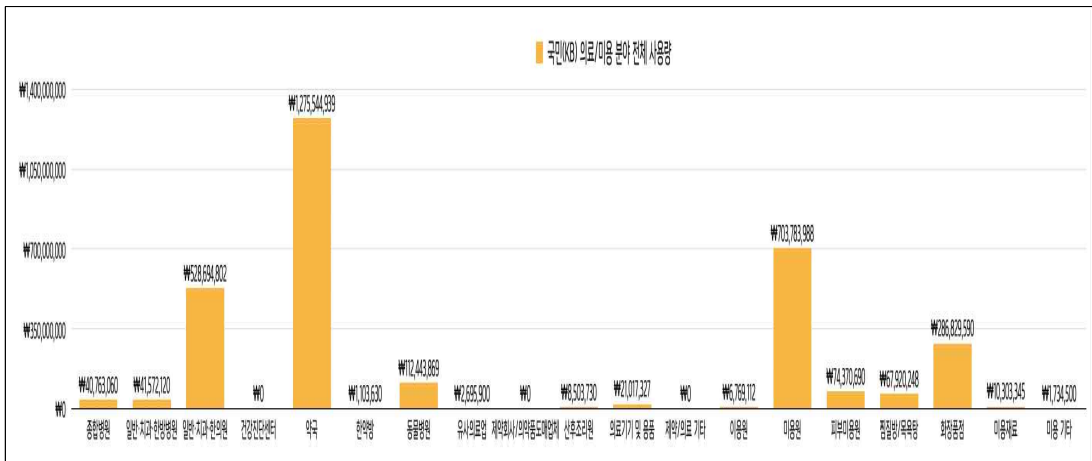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의료 / 미용’ 분야를 살펴보면, ‘약국’ 소분류에서 1,275,544,939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용원’에서 703,783,988원으로 두 번째로 소비가 많이 되었다. 또한 ‘일반·치과·한의원’ 분야에서 소비도 528,694,802원으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위기극복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비교적 비용이 드는 병원 치료에 소비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위기극복지원금이 단순 가계지원 정책이 아닌 의료·복지적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 가능한 점이다.

‘의료 / 미용’ 분야를 ‘의료’와 ‘미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의료’ 분야는 2,032,339,377원으로 63.8%를 차지한다. ‘미용’ 분야는 1,151,711,473원으로 36.2%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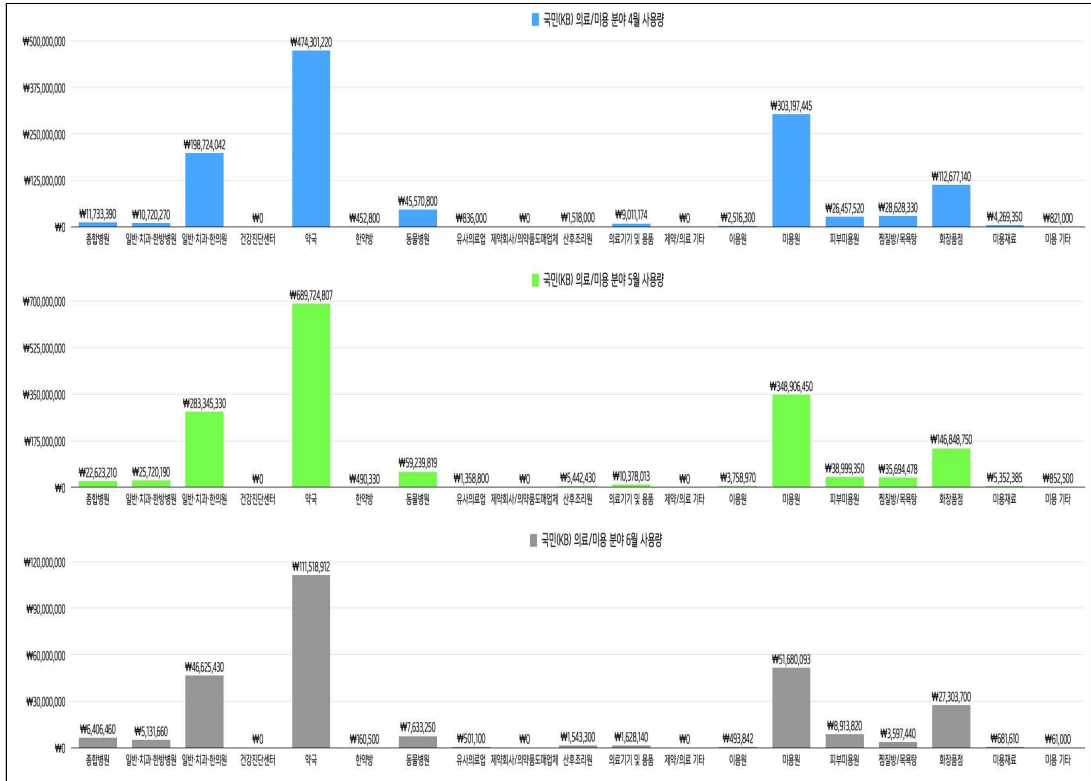
월별 소비를 살펴보면, ‘의료 / 미용’ 분야 역시 전체 사용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약국’, ‘미용원’, ‘일반·치과·한의원’, ‘화장품점’ 순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과 5월의 경우 ‘동물병원’이 다섯 번째로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6월의 경우 ‘피부미용원’이 다섯 번째로 많은 소비를 차지했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의료 / 미용’ 분야 역시 ‘약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미용원’, ‘일반·치과·한방병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KB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9] KB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월별 사용량



(4) 의생활

국민(KB) 카드데이터를 살펴보면, ‘의생활’ 분야에서는 ‘기성복’ 항목이 384,891,271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의생활’ 분야에서는 2개의 소분류가 ‘의생활’ 소비데이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경점’에서의 소비는 347,892,866원으로 ‘기성복’ 항목과 비슷한 매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수품이 된 품목 중 안경이 가격대를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기극복지원금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의판매점’과 ‘침구/커튼/카페트점’, ‘아동 및 유아복점’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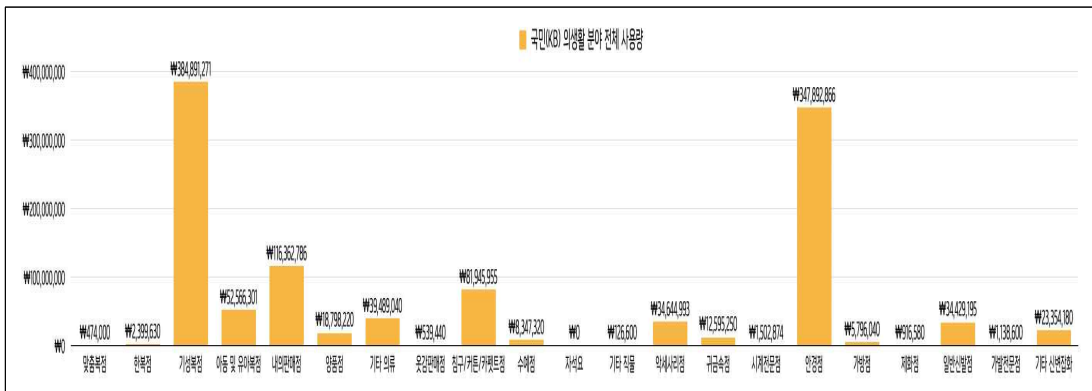
월별 소비를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각 월별 사용량의 모습이 유사하다. 4월, 5월, 6월 모두 ‘기성복점’, ‘안경점’, ‘내의판매점’, ‘침구/커튼/카페트점’, ‘아동 및 유아복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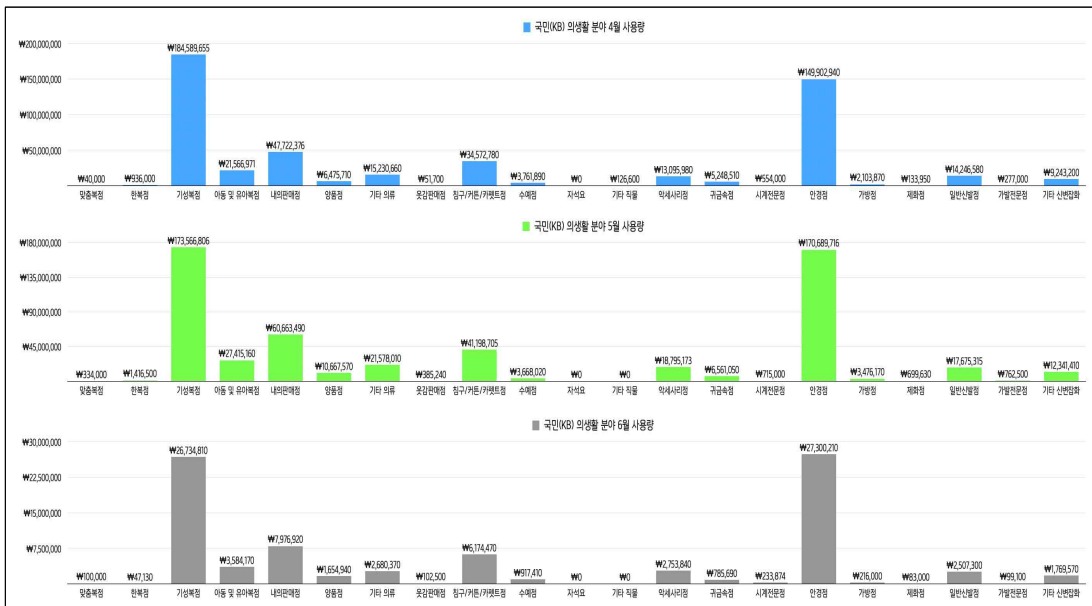
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된 순서로 살펴보면, 실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안경, 컨택트 렌즈 등에 소비와 잠자리에 필요한 이불, 배게, 커튼에 대한 소비, 평소 착용하는 내의, 양말과 같은 소모품에 대한 소비, 그리고 아이들이 입는 아동 및 유아복점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의생활’ 분야 역시 ‘기성복’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안경점’, ‘기타 신변잡화’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KB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11] KB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5)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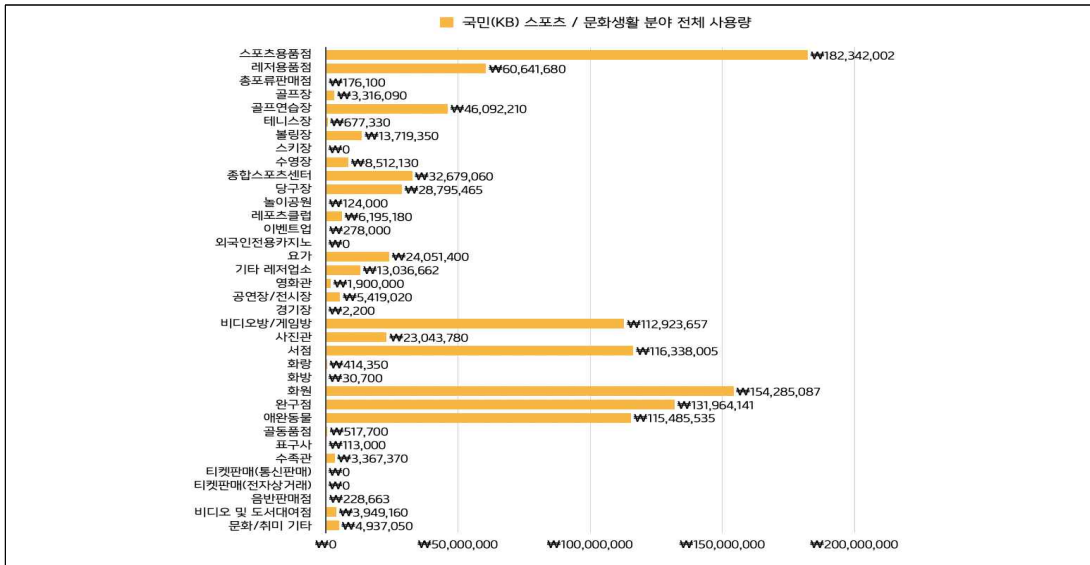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를 살펴보면, 다른 대분류들과는 다르게 많은 소분류 항목들이 각각 고루 사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소분류에서 많은 사용이 행해진 다른 대분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에서 제일 많은 소비를 보인 분류는 ‘스포츠용품점’으로 182,342,002원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회원’에서 154,285,087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소분류는 ‘완구점’으로 131,964,141원이 사용되었다. 이어지는 소분류는 ‘서점’, ‘애완동물점’ 등 순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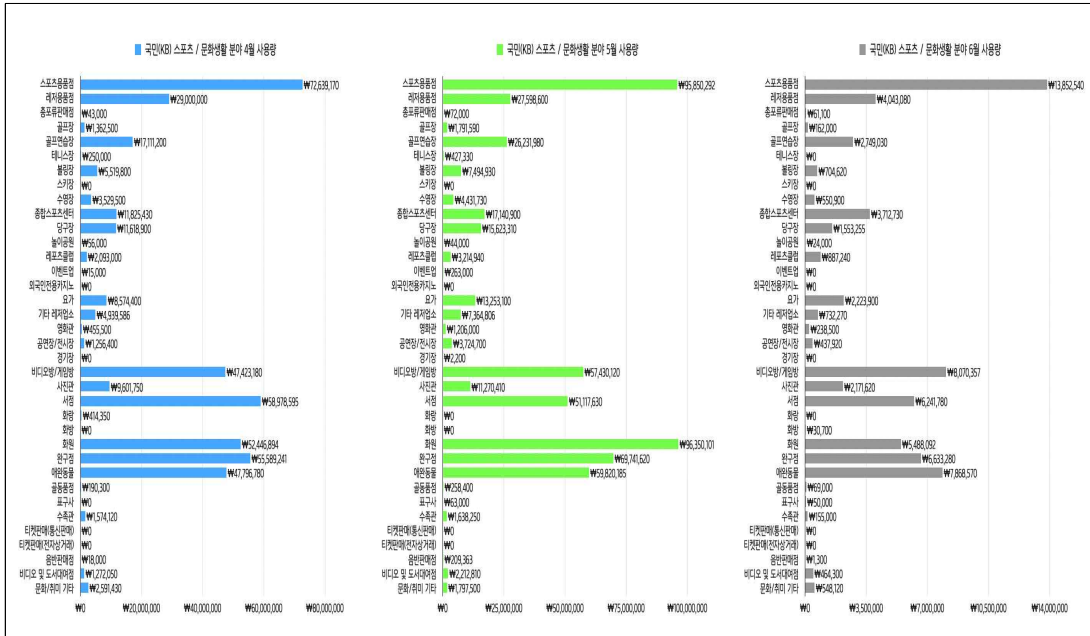
월별 소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의 모습과 비슷하다. 4월, 5월, 6월 사용량 모두 ‘스포츠용품점’, ‘회원’, ‘완구점’, ‘서점’, ‘애완동물용품점’ 순으로 소비되었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 역시 ‘스포츠용품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서점’, ‘기타 레저업소’, ‘회원’, ‘애완동물’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를 살펴보았을 때, 소분류 한 개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상위 여러 소분류에서 큰 편차 없이 비슷한 소비액이 나타났다.

[그림 4-12] KB 위급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13] KB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6) 교육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문리계학원’이 181,864,923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며, ‘문방구점’에서 150,912,435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예체능계학원’이 세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였으며, ‘외국어학원’, ‘독서실’ 순으로 소비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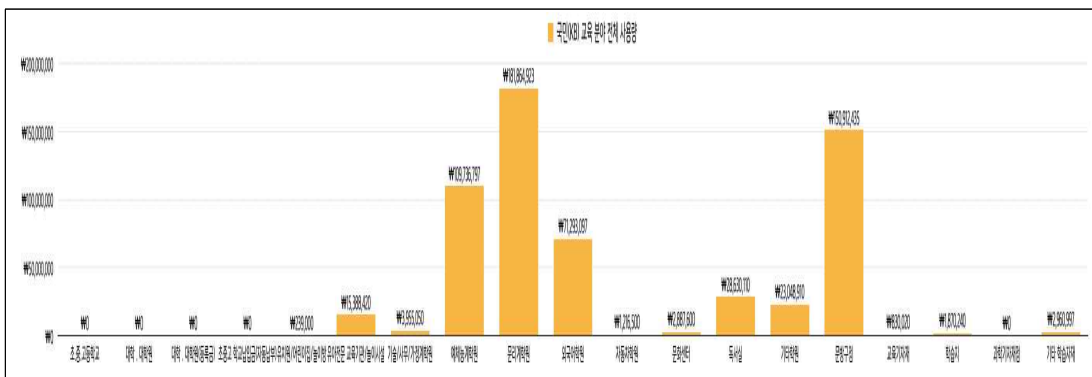
월별 소비로 살펴보면, 4월과 5월의 경우 ‘문리계학원’, ‘문방구점’, ‘예체능계학원’, ‘외국어학원’, ‘독서실’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6월의 경우 ‘문방구점’이 가장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며, ‘문리계학원’, ‘예체능계학원’, ‘외국어학원’, ‘기타학원’ 순으로 이어진다. 5순위의 경우 4월과 5월이 ‘독서실’인 것과 비교했을 때, 6월에서 ‘기타학원’이 ‘독서실’보다 약간 많은 소비를 보인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교육’ 분야 역시 ‘문리계학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문방구점’, ‘예체능계학원’, ‘기술 / 사무 / 가정계학원’,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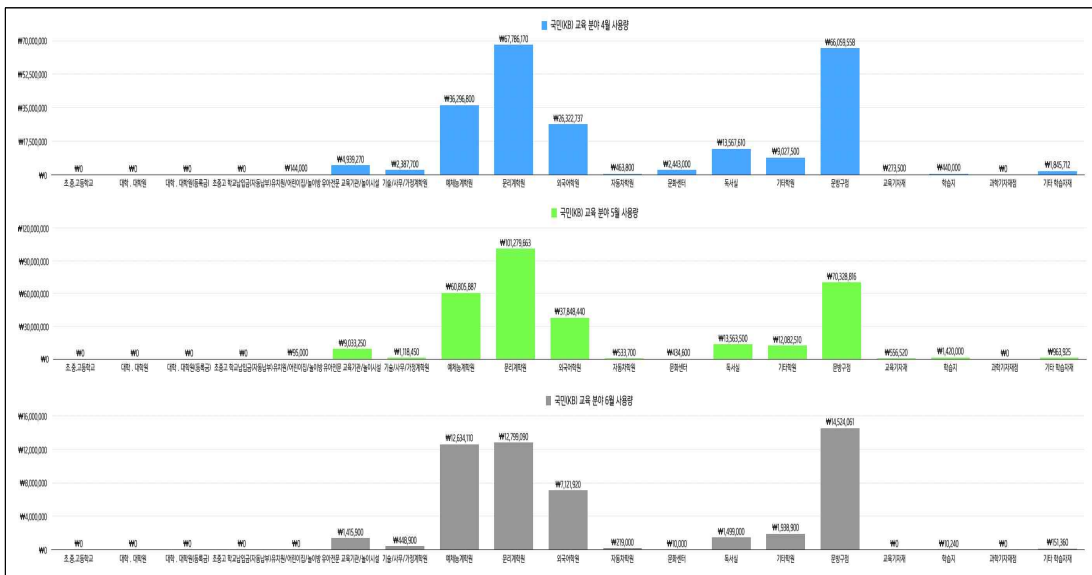
국어학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는 ‘학원’ 분야에 사용한 소비와 ‘학습자재’에서 사용한 소비가 주를 이룬다. 위기극복지원금이 여러 종류의 학원 분야에서 사용된 것에 반해, ‘문방구점’은 단일 항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학원’ 소분류들이 71.1%를 차지하며, ‘학습자재’ 소분류들이 26.3%를 차지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나머지 2.6%를 차지한다.

**[그림 4-14] KB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15] KB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월별 사용량**



## (7)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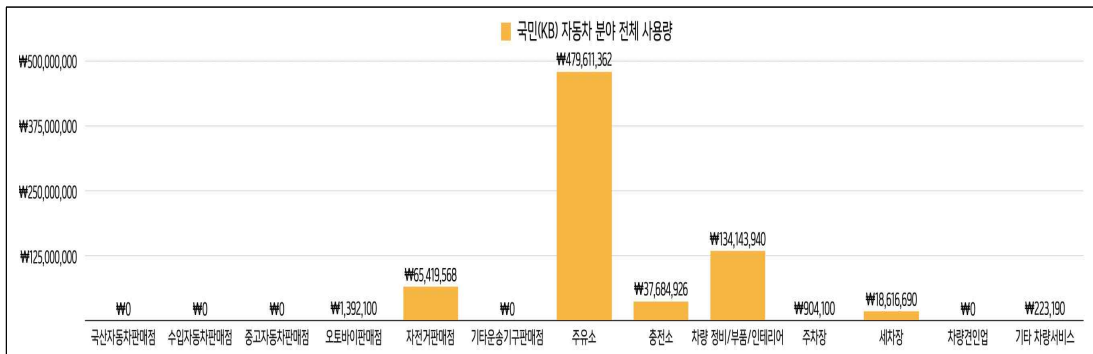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자동차’ 분야를 살펴보면, 주유소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 역시 한 소분류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479,611,362원으로 ‘자동차’ 분류에서 거의 대부분 소비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가 134,143,940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이후로 ‘자전거판매점’과 ‘충전소’, ‘세차장’에서 차례로 소비가 이어졌다.

월별 소비로 살펴보면, 4월과 5월은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월별 사용량이 ‘주유소’,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 ‘자전거판매점’, ‘충전소’, ‘세차장’ 순으로 이어진다. 6월의 경우 ‘주유소’와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가 1순위, 2순위인 것은 같지만, ‘충전소’가 3순위를 차지했으며, ‘세차장’이 4순위, ‘자전거판매점’이 5순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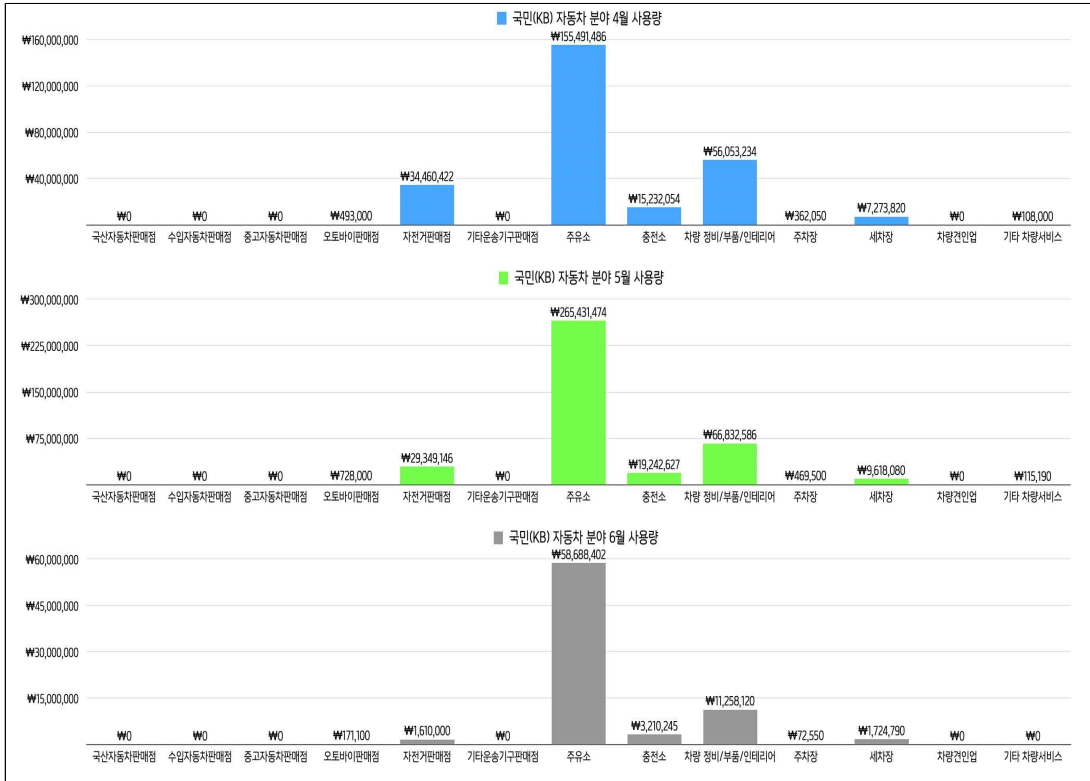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자동차’ 분야 역시 ‘주유소’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 ‘충전소’, ‘세차장’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이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특성상 ‘국산자동차판매점’, ‘수입자동차판매점’,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라는 물품이 워낙 고액으로 거래되는 분야이다 보니 오히려 차량 정비나 부품, 내부 인테리어 용품 측면으로 소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6] KB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17] KB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월별 사용량



(8) 서비스

국민(KB) 카드 데이터 중 ‘서비스’ 대분류를 살펴보면, 다른 대분류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분야가 존재한다. ‘세탁소’ 소분류는 202,545,871원으로 ‘서비스’ 분야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된 소분류는 ‘기타 용역서비스’로 41,304,013원이 사용되었다.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된 소분류는 ‘시설대여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각종 수리업종’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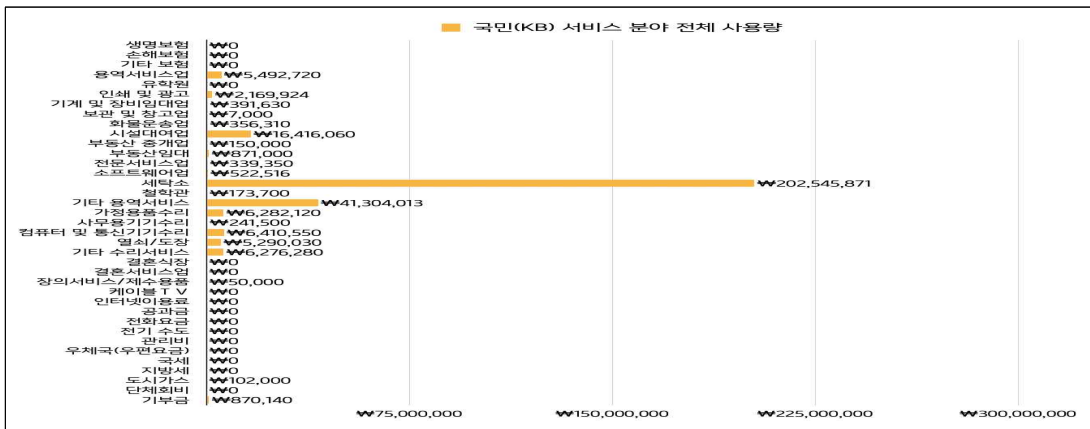
월별 소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세탁소’, ‘기타 용역서비스’, ‘시설대여업’, ‘각종 수리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후에 서술될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서비스’ 분야 역시 ‘세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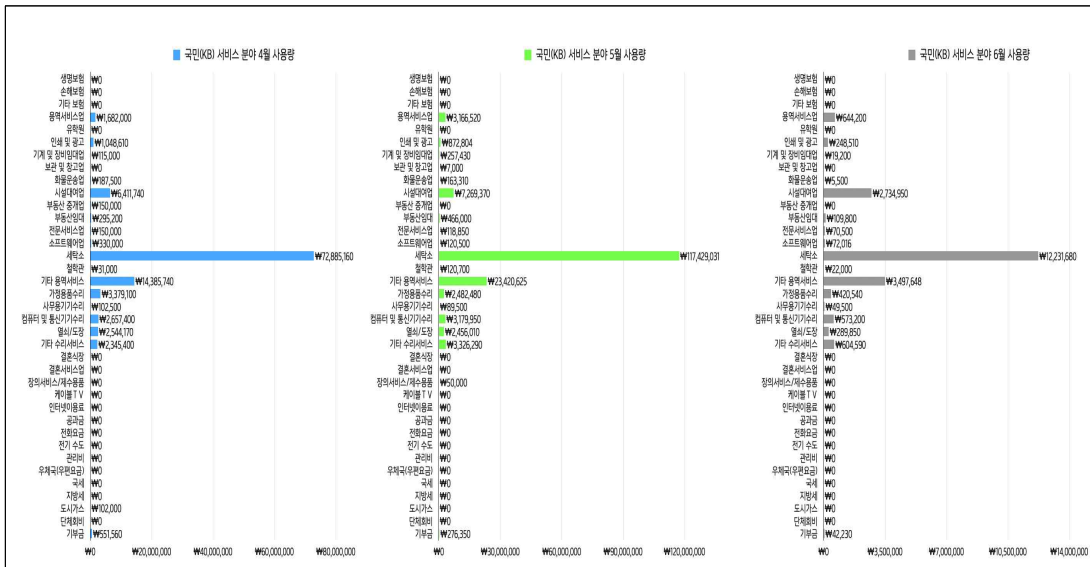
소'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시설대여업', '각종 수리업종'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 대면적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대분류는 위기극복지원금 자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세탁소'를 제외한 서비스업은 위기극복지원금의 소비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그림 4-18] KB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19] KB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월별 사용량



## (9) 내구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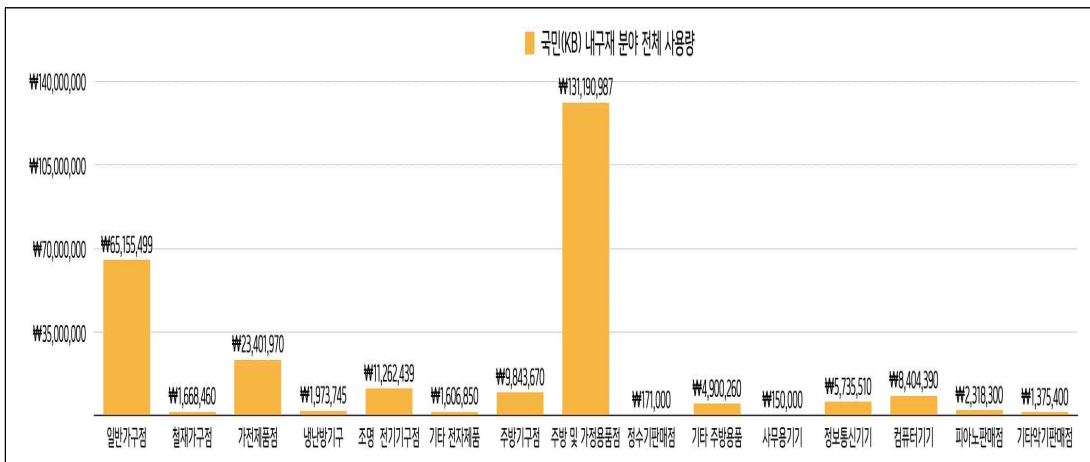
국민(KB) 카드데이터를 살펴보면, ‘내구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는 항목은 ‘주방 및 가정용품점’이다. ‘주방 및 가정용품점’에서의 소비는 131,190,987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소비가 일어난 소분류는 ‘일반 가구점’으로 65,155,499원이 사용되었다. 그 후로 ‘가전제품점’과 ‘조명 전기기구점’, ‘주방기구점’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주방 및 가정용품점’, ‘일반가구점’, ‘가전제품점’, ‘조명 전기기구점’, ‘주방기구점’ 순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내구재’ 분야는 ‘일반가구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주방 및 가정용품점’, ‘가전제품점’, ‘주방기구점’, ‘정보통신기기’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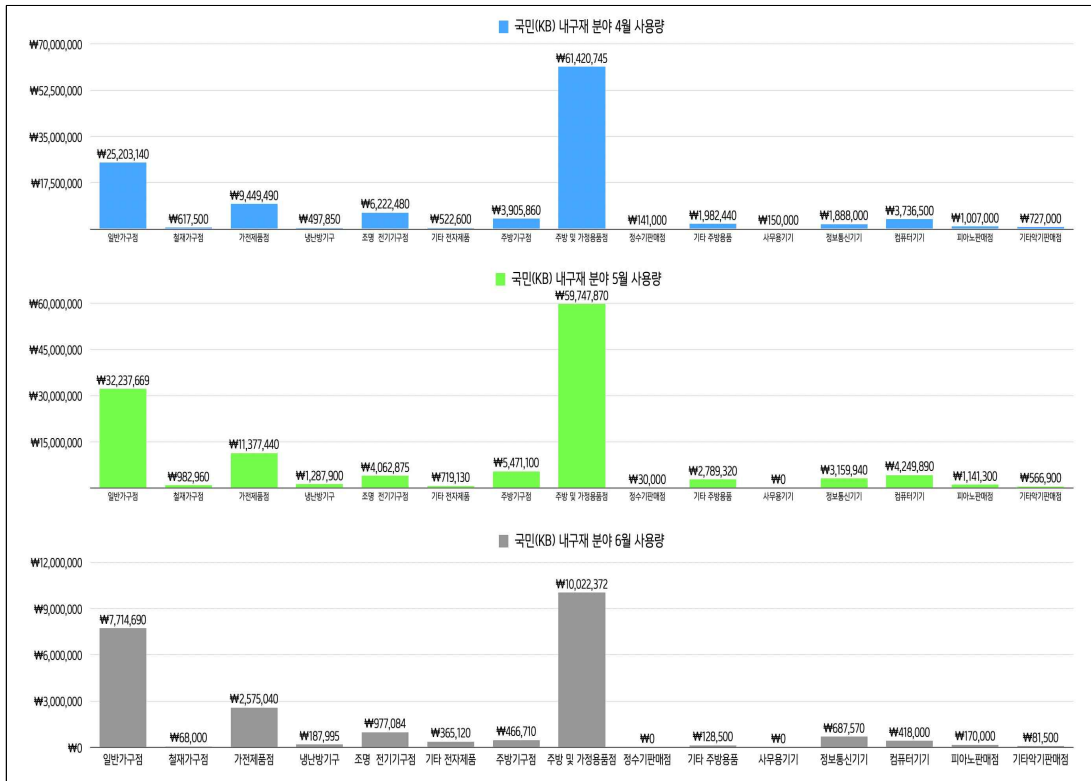
‘내구재’ 분야의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라이프 스타일과도 연관이 깊다. 외부활동보다 내부활동의 시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주방 및 가정용품’의 소비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함으로 그 관심은 ‘일반가구점’, ‘가전제품점’, ‘조명 전기기구점’, ‘주방기구점’에서의 소비로 이어졌다 유추한다.

[그림 4-20] KB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21] KB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월별 사용량



## (10) 기타 (제조)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제조’ 분야를 살펴보면, ‘기계류 제조/도매업’, ‘식품류 제조/도매업’, ‘기타 제조/도매업’ 세 가지 소분류 중 ‘식품류 제조/도매업’에서의 소비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식품류 제조/도매업’ 소분류의 금액은 122,628,307원으로 다른 2개의 소분류의 금액을 합친 것과 7.6배의 차이를 보인다. ‘기타 제조/도매업’이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었으며, ‘기계류 제조/도매업’과 금액적인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이 ‘식품류 제조/도매업’에 편중되어 사용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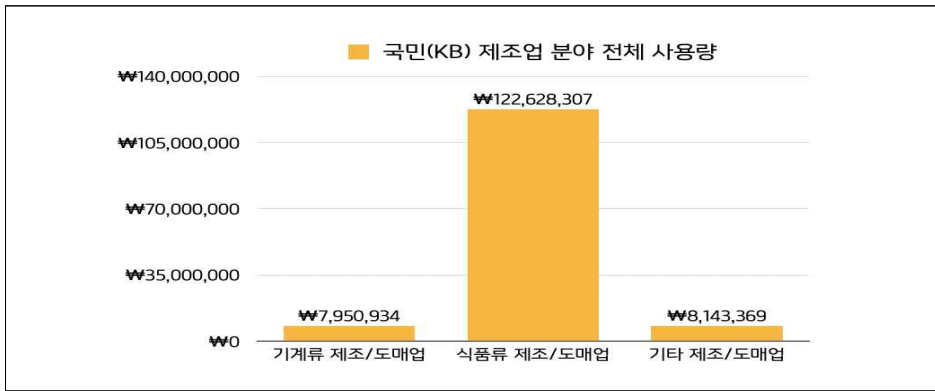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의 모습과 비슷하다. 4월, 5월, 6월 모두 ‘식품류 제조/

도매업'이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인다. 4월은 '기계류 제조/도매업', '기타 제조/도매업' 순이지만, 5월과 6월은 '기타 제조/도매업', '기계류 제조/도매업'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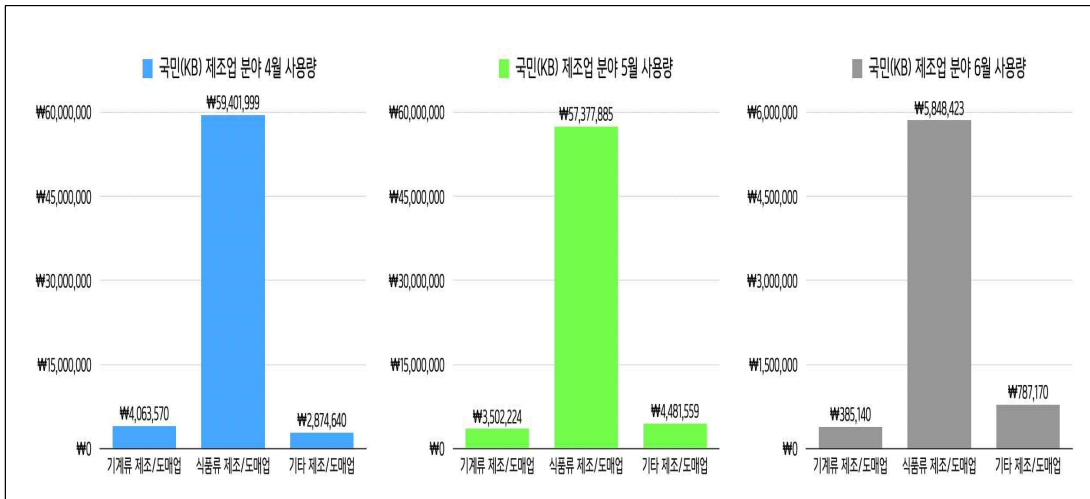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제조' 분야는 오직 '기계류 제조 / 도매업'에서만 발생했으며, 국민(KB) 선불카드의 사용처가 '식품류 제조 / 도매업'에서 많이 소비된 모습과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조' 분야 역시 산업특성상 위기극복지원금이 사용되기 어려운 업종이다 보니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4-22] KB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23] KB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월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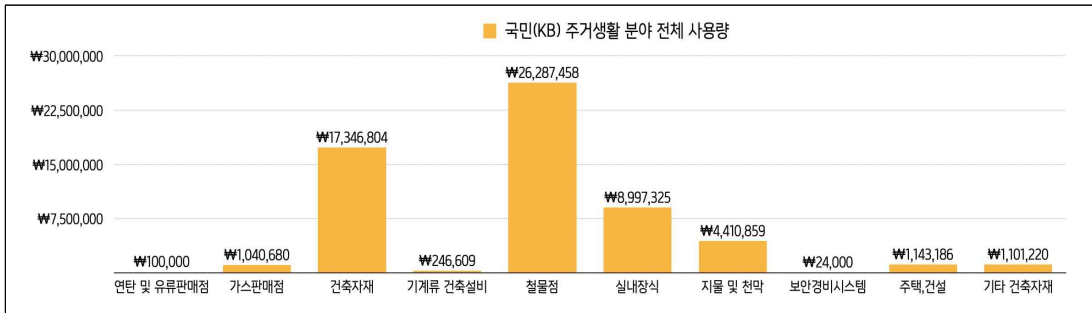
## (11) 주거생활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주거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철물점’, ‘건축자재’, ‘실내장식’, ‘자물 및 천막’ 순으로 위기극복지원금이 소비된 것을 알 수 있다. ‘철물점’에서의 소비는 26,287,458원으로 가장 많으며, ‘건축자재’ 소비액은 17,346,804원, ‘실내장식’ 소비액은 8,997,325원, ‘자물 및 천막’ 소비액은 4,410,859원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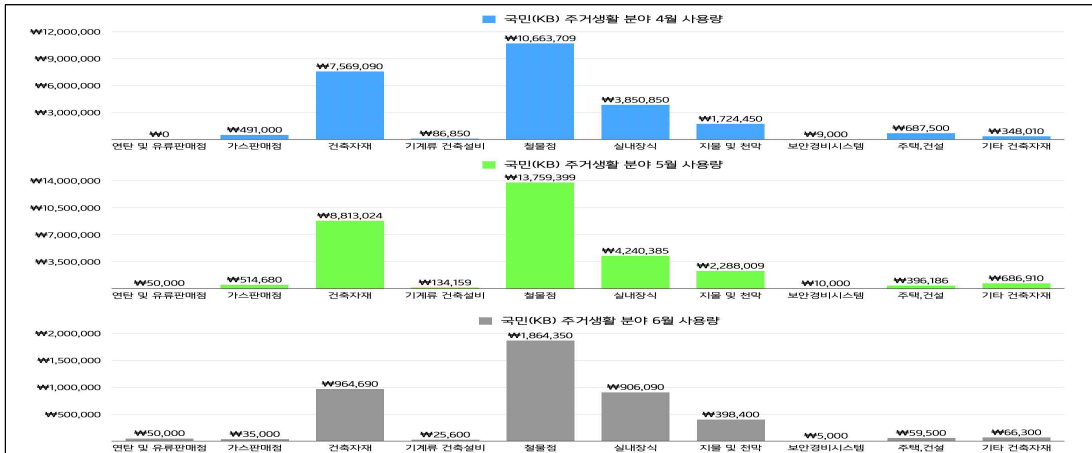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철물점’, ‘건축자재’, ‘실내장식’, ‘자물 및 천막’, ‘주택, 건설’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주거생활’ 분야는 ‘기타 건축자재’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차지했으며, ‘실내장식’, ‘건축자재’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KB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25] KB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12)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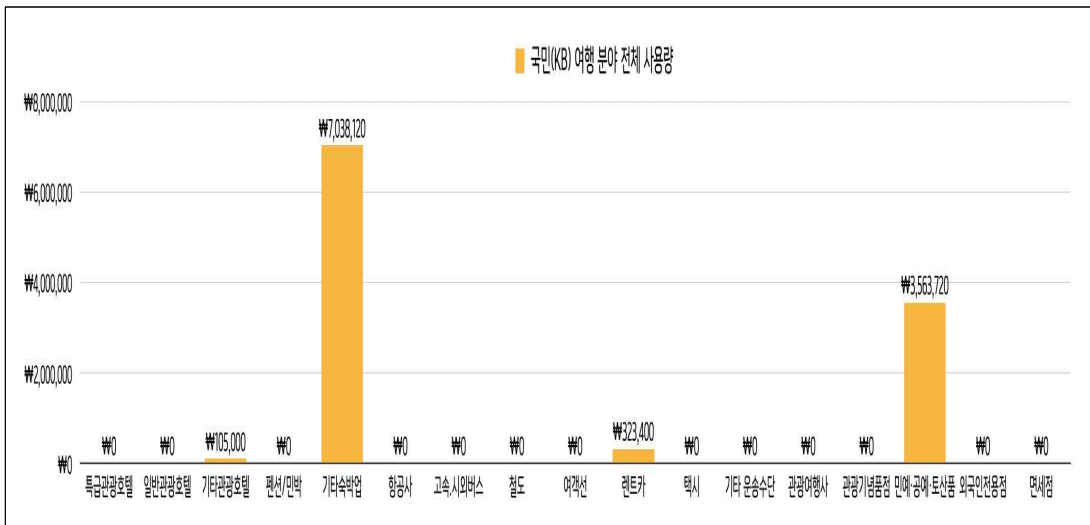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여행’ 분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대분류들 중 가장 많은 소분류가 0원 소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여행’ 분야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위기극복지원금의 1%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 ‘기타숙박업’과 ‘민예·공예·토산품’에서 소비를 보이고 나머지 소분류에서는 0원이거나 아주 작은 금액이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숙박업’에서 7,038,120원이 소비되었으며, ‘민예·공예·토산품’에서 3,563,720원이 소비되었다. 그 외로 ‘렌트카’ 323,400원, ‘기타 관광호텔’ 105,000원만 이 소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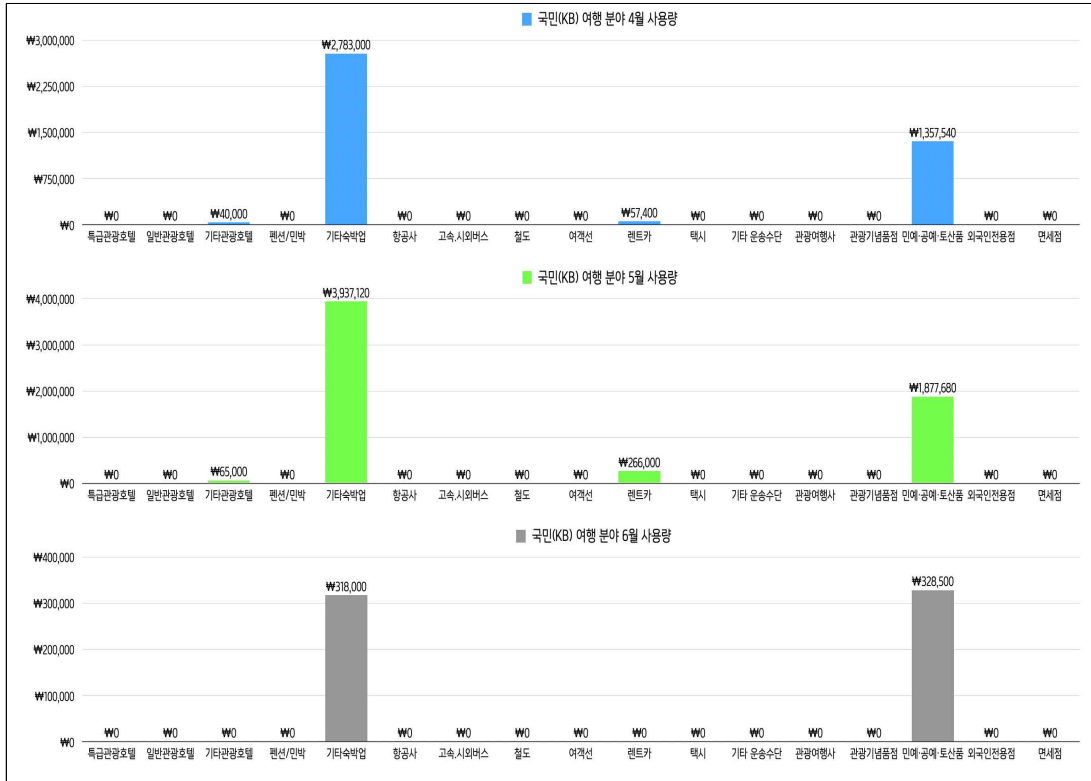
월별로 살펴보면, ‘여행’ 분야 사용량은 ‘기타 숙박업’, ‘민예·공예·토산품’, ‘렌트카’, ‘기타관광호텔’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NH)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농협(NH)의 ‘여행’ 분야는 ‘관광 기념품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며, ‘기타숙박업’, ‘민예·공예·토산품’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KB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27] KB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월별 사용량



### (13) 유흥

국민(KB) 카드데이터 중 ‘유흥’ 분야를 살펴보면, ‘유흥’ 분야의 소비는 전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지원금 성격이 강한 ‘위기극복지원금’ 특성상 처음부터 ‘유흥’ 분야의 소비는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별 소비량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 3. 국민(KB) 선불카드 지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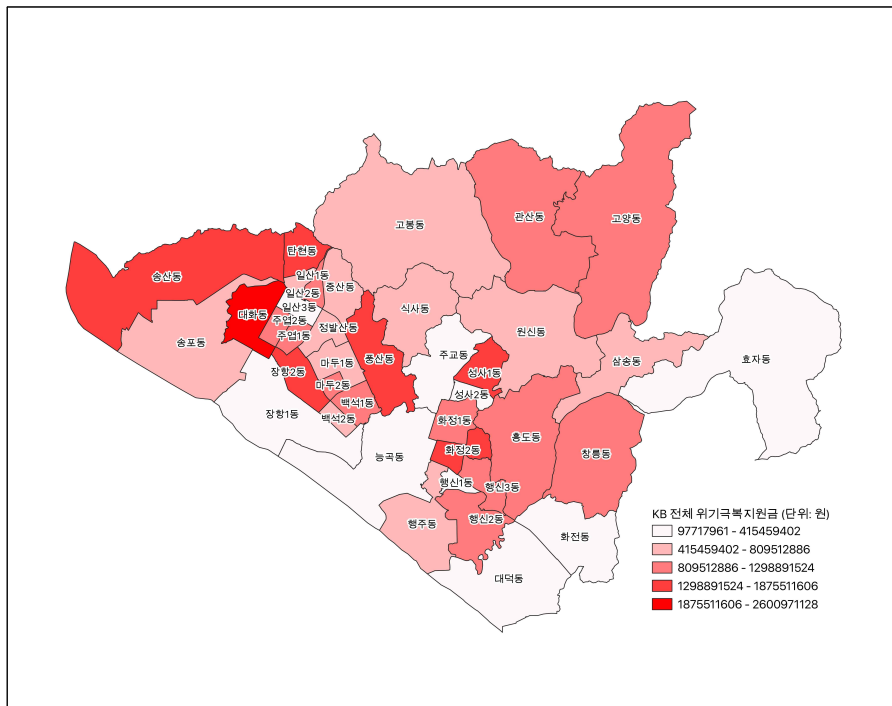
#### 1) 국민(KB) 선불카드 행정동별 전체 사용량

[표 4-1] KB국민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b>총합</b>	<b>₩14,142,428,591</b>	<b>1</b>
	주교동	₩225,563,719	36
	원신동	₩694,411,049	23
	흥도동	₩1,298,891,524	8
	성사 1동	₩1,614,004,158	5
	성사 2동	₩178,438,337	37
	효자동	₩104,205,835	38
	삼송동	₩568,313,901	27
	창릉동	₩1,115,683,157	13
	고양동	₩890,825,291	19
	관산동	₩1,209,911,078	11
	능곡동	₩334,781,053	35
	화정 1동	₩1,004,222,276	15
	화정 2동	₩1,399,000,739	7
	행주동	₩604,708,254	25
	행신 1동	₩345,712,577	32
	행신 2동	₩894,010,856	18
	행신 3동	₩1,218,366,454	10
	화전동	₩343,660,372	33
	대덕동	₩97,717,961	39
일산동구	<b>총합</b>	<b>₩9,479,098,091</b>	<b>3</b>
	식사동	₩612,951,863	24
	중산동	₩697,591,853	21
	정발산동	₩809,512,886	20
	풍산동	₩1,875,511,606	2
	백석 1동	₩906,055,428	17
	백석 2동	₩697,280,065	22
	마두 1동	₩525,398,352	29
	마두 2동	₩950,850,873	16
	장항 1동	₩415,459,402	31
	장항 2동	₩1,478,487,895	6
	고봉동	₩509,997,868	30

구	행정동	금액	순위
일산서구	<b>총합</b>	<b>₩10,913,207,248</b>	<b>2</b>
	일산 1동	₩584,675,758	26
	일산 2동	₩1,173,756,925	12
	일산 3동	₩338,594,065	34
	탄현동	₩1,640,543,308	4
	주엽 1동	₩1,066,363,590	14
	주엽 2동	₩1,258,038,516	9
	대화동	₩2,600,971,128	1
	송포동	₩530,293,538	28
송산동	₩1,719,970,420	3	

[그림 4-27] KB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 1) 월별 사용량

## (1) 국민(KB) 선불카드 행정동별 4월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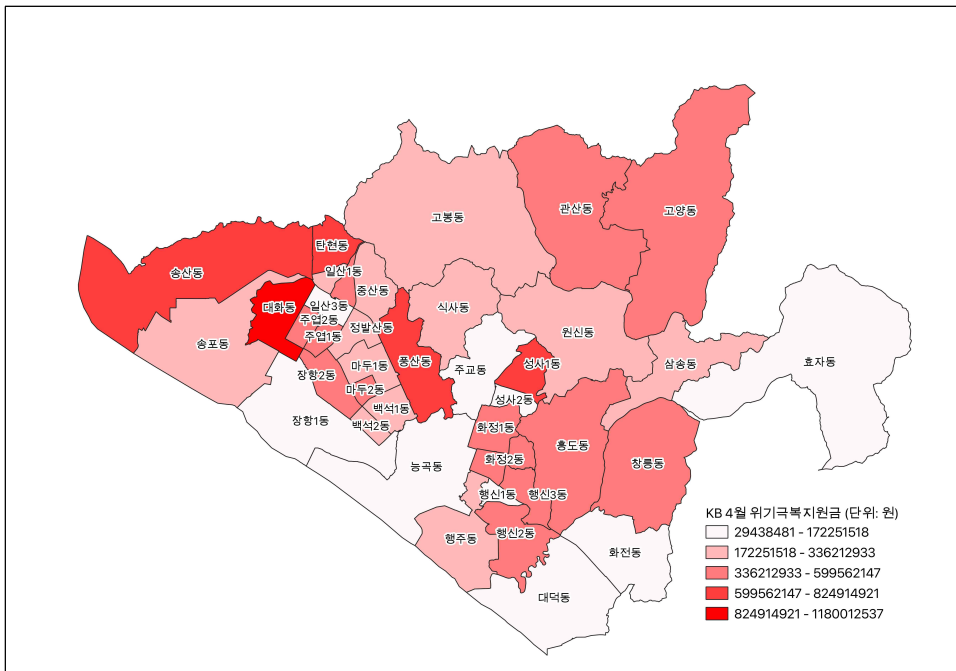
[표 4-2] KB 4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b>총합</b>	<b>₩5,796,204,248</b>	<b>1</b>
	주교동	₩101,835,340	36
	원신동	₩255,286,522	25
	흥도동	₩470,291,091	13
	성사 1동	₩766,465,070	5
	성사 2동	₩75,667,966	37
	효자동	₩29,438,481	39
	삼송동	₩210,179,052	30
	창릉동	₩410,028,059	16
	고양동	₩410,117,255	15
	관산동	₩581,081,809	7
	능곡동	₩142,800,636	34
	화정 1동	₩384,362,678	17
	화정 2동	₩538,445,498	9
	행주동	₩264,450,529	23
	행신 1동	₩144,618,217	33
	행신 2동	₩377,805,105	18
	행신 3동	₩492,847,593	12
	화전동	₩110,261,437	35
	대덕동	₩30,221,910	38
일산동구	<b>총합</b>	<b>₩3,854,355,299</b>	<b>3</b>
	식사동	₩223,257,401	28
	중산동	₩315,462,531	21
	정발산동	₩336,212,933	19
	풍산동	₩824,914,921	2
	백석 1동	₩335,751,952	20
	백석 2동	₩260,596,540	24
	마두 1동	₩223,134,885	29
	마두 2동	₩413,737,435	14
	장항 1동	₩172,251,518	31
	장항 2동	₩525,440,352	10



구	행정동	금액	순위
일산서구	고봉동	₩223,594,831	27
	<b>총합</b>	<b>₩5,117,049,353</b>	<b>2</b>
	일산 1동	₩309,774,221	22
	일산 2동	₩599,562,147	6
	일산 3동	₩150,023,190	32
	탄현동	₩808,496,848	3
	주엽 1동	₩499,415,898	11
	주엽 2동	₩547,116,110	8
	대화동	₩1,180,012,537	1
	송포동	₩251,782,286	26
	송산동	₩770,866,116	4

[그림 4-28] KB 4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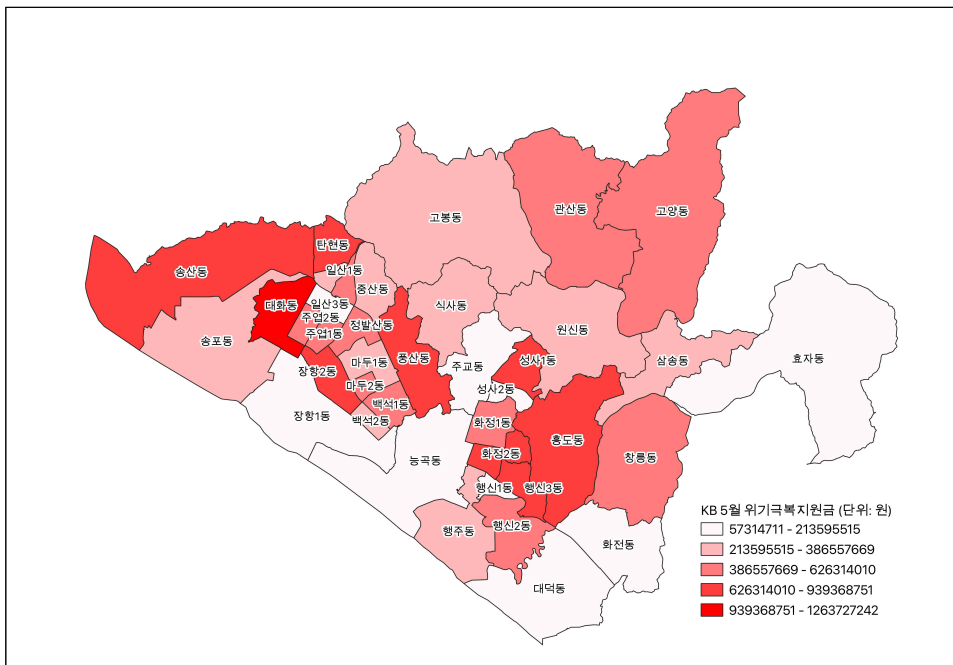
## (2) 국민(KB) 선불카드 행정동별 5월 사용량

[표 4-3] KB국민 5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b>총합</b>	<b>₩7,384,883,545</b>	<b>1</b>
	주교동	₩110,621,199	36
	원신동	₩386,557,669	21
	흥도동	₩727,589,311	8
	성사 1동	₩768,291,678	5
	성사 2동	₩92,197,898	37
	효자동	₩63,441,814	38
	삼송동	₩313,420,944	25
	창릉동	₩614,946,504	11
	고양동	₩429,964,594	19
	관산동	₩563,735,398	12
	능곡동	₩169,275,752	34
	화정 1동	₩548,802,229	13
	화정 2동	₩759,559,662	6
	행주동	₩302,552,024	26
	행신 1동	₩179,871,837	33
	행신 2동	₩456,281,870	18
	행신 3동	₩645,721,223	9
	화전동	₩194,737,228	32
	대덕동	₩57,314,711	39
일산동구	<b>총합</b>	<b>₩4,946,145,788</b>	<b>3</b>
	식사동	₩337,018,252	23
	중산동	₩336,778,846	24
	정발산동	₩419,791,599	20
	풍산동	₩939,368,751	2
	백석 1동	₩501,786,036	16
	백석 2동	₩386,478,731	22
	마두 1동	₩267,794,295	27
	마두 2동	₩474,497,150	17
	장항 1동	₩213,595,515	31
	장항 2동	₩818,838,024	4
	고봉동	₩250,198,589	28

구	행정동	금액	순위
일산서구	<b>총합</b>	<b>₩5,146,077,071</b>	<b>2</b>
	일산 1동	₩245,798,367	30
	일산 2동	₩516,166,917	14
	일산 3동	₩165,536,421	35
	탄현동	₩741,587,557	7
	주엽 1동	₩503,754,172	15
	주엽 2동	₩626,314,010	10
	대화동	₩1,263,727,242	1
	송포동	₩248,387,499	29
	송산동	₩834,804,886	3

[그림 4-29] KB 5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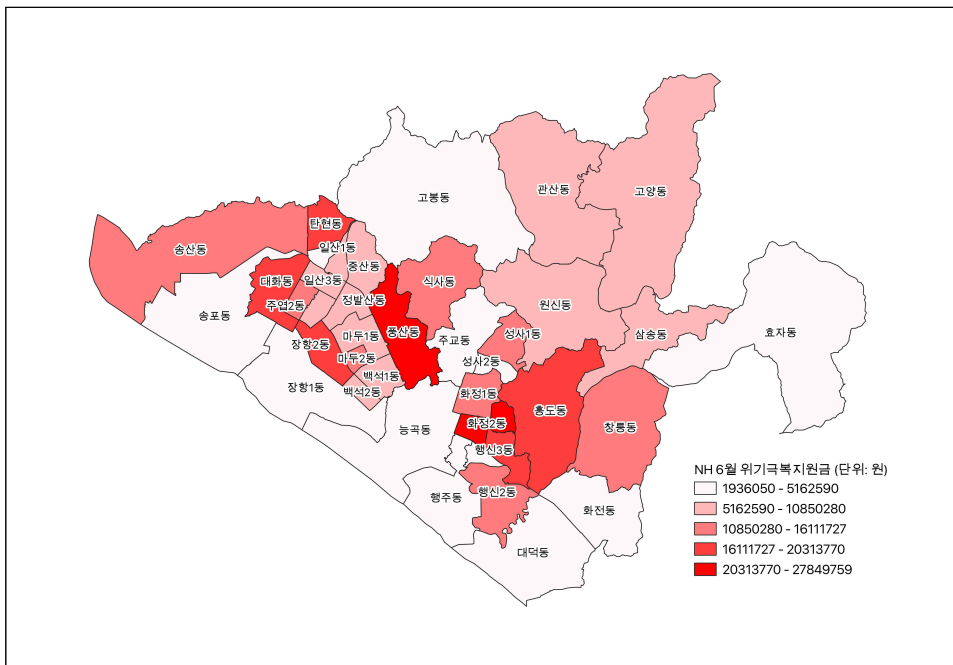
## (3) 국민(KB) 선불카드 행정동별 6월 사용량

[표 4-4] KB국민 6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b>총합</b>	<b>₩961,340,798</b>	<b>1</b>
	주교동	₩13,107,180	36
	원산동	₩52,566,858	21
	흥도동	₩101,011,122	5
	성사 1동	₩79,247,410	11
	성사 2동	₩10,572,473	38
	효자동	₩11,325,540	37
	삼송동	₩44,713,905	25
	창릉동	₩90,708,594	7
	고양동	₩50,743,442	22
	관산동	₩65,093,871	14
	능곡동	₩22,704,665	34
	화정 1동	₩71,057,369	12
	화정 2동	₩100,995,579	6
	행주동	₩37,705,701	27
	행신 1동	₩21,222,523	35
	행신 2동	₩59,923,881	17
	행신 3동	₩79,797,638	10
	화전동	₩38,661,707	26
	대덕동	₩10,181,340	39
일산동구	<b>총합</b>	<b>₩678,597,004</b>	<b>2</b>
	식사동	₩52,676,210	20
	중산동	₩45,350,476	24
	정발산동	₩53,508,354	19
	풍산동	₩111,227,934	4
	백석 1동	₩68,517,440	13
	백석 2동	₩50,204,794	23
	마두 1동	₩34,469,172	29
	마두 2동	₩62,616,288	16
	장항 1동	₩29,612,369	31
	장항 2동	₩134,209,519	2
	고봉동	₩36,204,448	28

구	행정동	금액	순위
일산서구	<b>총합</b>	<b>₩650,080,824</b>	<b>3</b>
	일산 1동	₩29,103,170	32
	일산 2동	₩58,027,861	18
	일산 3동	₩23,034,454	33
	탄현동	₩90,458,903	8
	주엽 1동	₩63,193,520	15
	주엽 2동	₩84,608,396	9
	대화동	₩157,231,349	1
	송포동	₩30,123,753	30
	송산동	₩114,299,418	3

[그림 4-30] KB 6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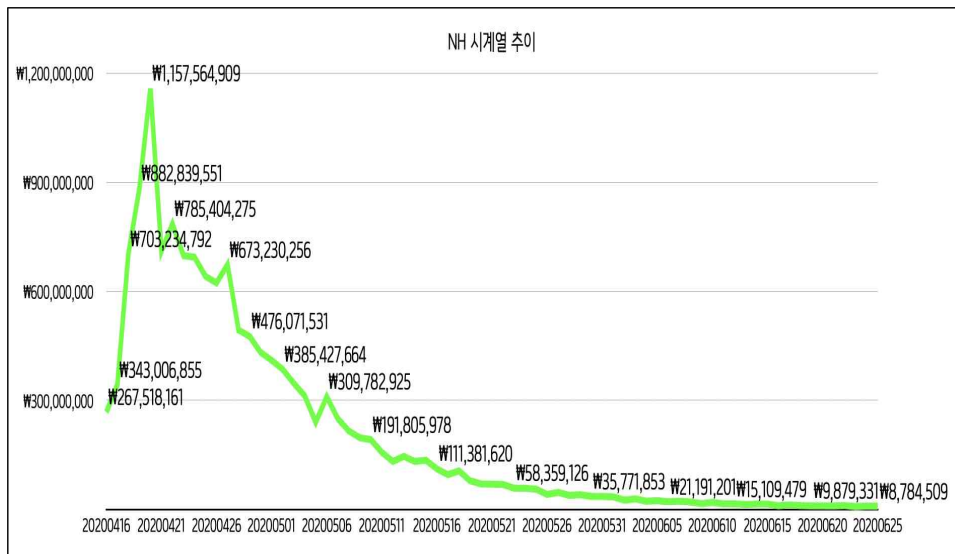
## 제2절 NH농협 선불카드 분석 결과

### 1. 농협(NH) 선불카드 시계열 추이

농협(NH) 선불카드는 4월 16일부터 배부가 시작되어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4월 20일에 사용량을 최고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후 4월 22일에 한 번, 4월 27일에 한 번 사용량이 증가하고 난 후 꾸준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국민(KB) 선불카드에 비해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있는 황금연휴(4월 말부터 5월 초)에도 뚜렷한 증가 없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5월 18일날부터 지급된 정부 긴급지원금 후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농협(NH) 선불카드는 지급된 첫 주에 급격한 사용량을 보이고, 2주차까지 대부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남은 잔여 금액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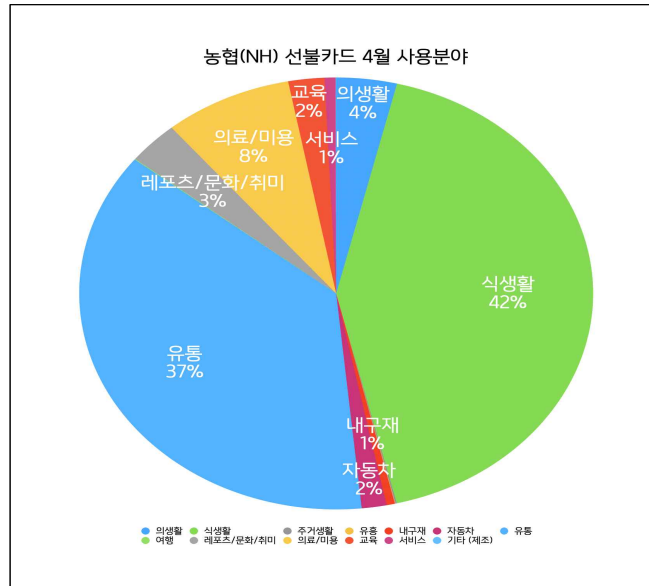
[그림 4-31] NH농협 위기극복지원금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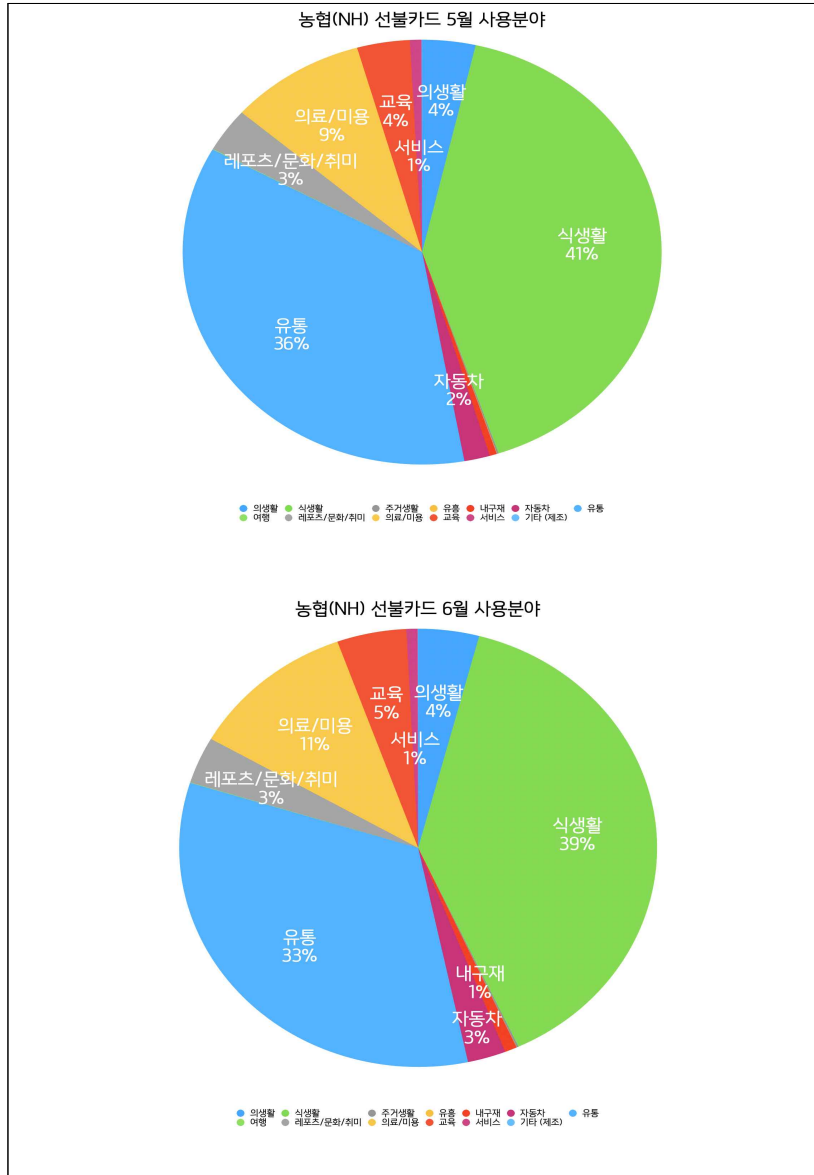
## 2. 농협(NH) 선불카드 대분류 분석

농협(NH) 위기극복지원금 역시 13개의 대분류로 구분된다. ‘식생활’ 분야에서 약 40%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유통’ 분야 역시 30%가 넘는 소비 점유율을 보인다. ‘식생활’ 분야와 ‘유통’ 분야에서 80%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준다. 3순위로는 의료/미용 분야로 10% 내외를 기록하며, 국민(KB) 선불카드와 비슷한 소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로는 ‘의생활’ 분야에서 4%, 레포츠 / 문화 / 취미 분야에서 3%, 자동차 분야 3%, 내구재 분야 1%, 서비스업 1%가 사용되었다. 국민(KB) 선불카드와 다른 점은 농협(NH)는 교육 분야에서 4월부터 6월까지 2%, 3%, 4%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8%, 9%, 11%로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2] 농협(NH) 위기극복지원금 4월 사용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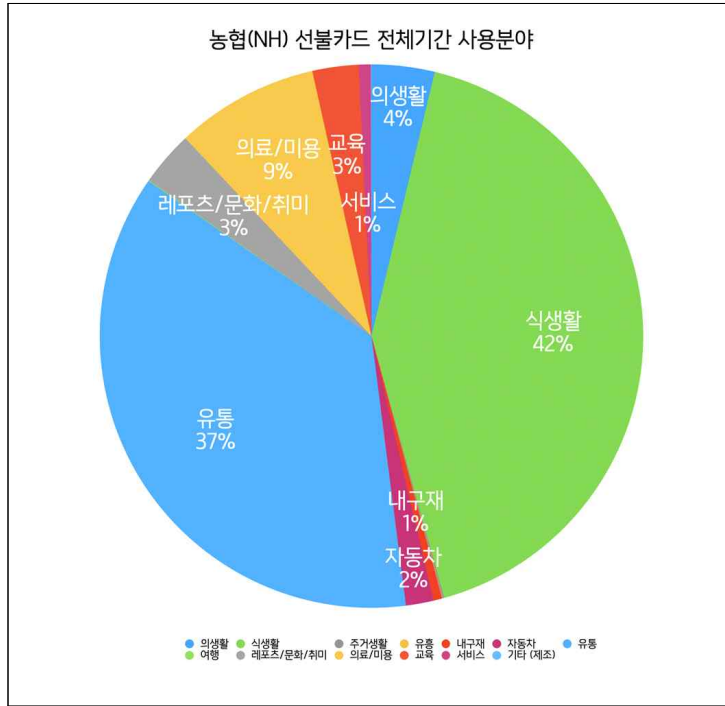


[그림 4-33] NH 위기극복지원금 5월, 6월 사용분야





[그림 4-34] NH 위기극복지원금 전체기간 사용분야



### 3. 농협(NH) 선불카드 소분류 분석

#### 1) 식생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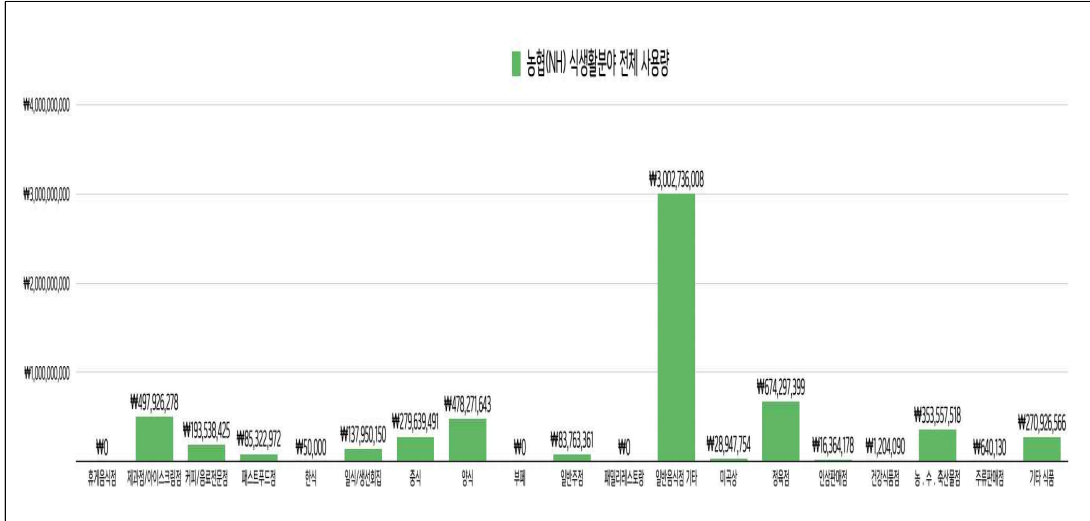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식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일반음식점 기타’ 소분류에서 3,002,736,008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그리고 ‘정육점’에서 674,297,399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과점 / 아이스크림점’과 ‘양식’, ‘농,수,축산물’ 순으로 소비가 이어진다. 위기극복지원금이 식당과 식료품 분야에서 많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월별 소비를 살펴보면, 4월과 5월, 6월 모두 ‘일반음식점 기타’,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 ‘농,수,축산물점’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 분야는 모든 소분류에서 고루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서술될 다른 대분류의 소비 동향과 비교하면, ‘스포츠/문화/레포츠’만이 고루 소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나머지 대분류에서 특정 소분류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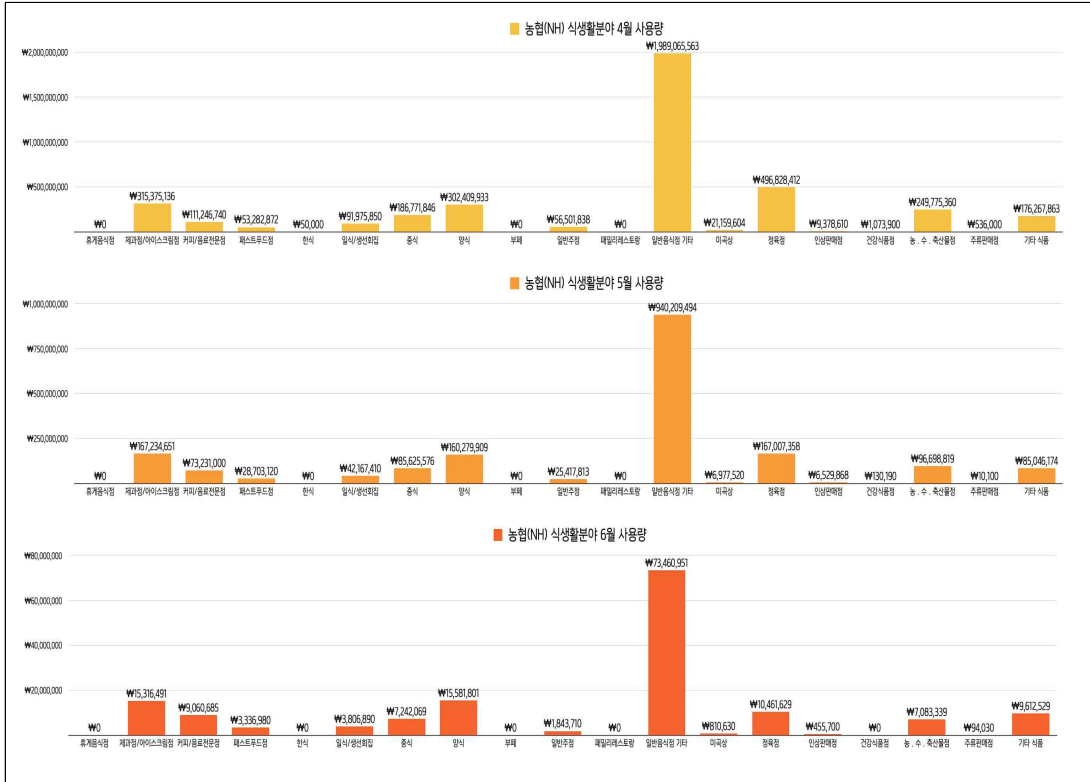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국민(KB) 선불카드의 ‘식생활’ 분야와 비교하자면, 농협(NH)은 가장 많이 사용된 소분류가 ‘일반음식점 기타’인 반면, 국민(KB) 선불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소분류는 ‘한식’이다. 국민(KB)의 경우, 전체 사용량과 월별 사용량은 ‘한식’ → ‘일반음식점 기타’ → ‘농,수,축산물점’ → ‘정육점’ → ‘제과점/아이스크림점’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NH) 선불카드의 ‘식생활’ 분야는 전체 위기극복지원금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위의 소분류에 사용된 금액이 다른 대분류 전체에 사용된 금액만큼 사용되거나 그 이상이 사용된 소분류도 존재한다. 위기극복지원금이 식생활 위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5] NH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36] NH 위기극복지원금 식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2)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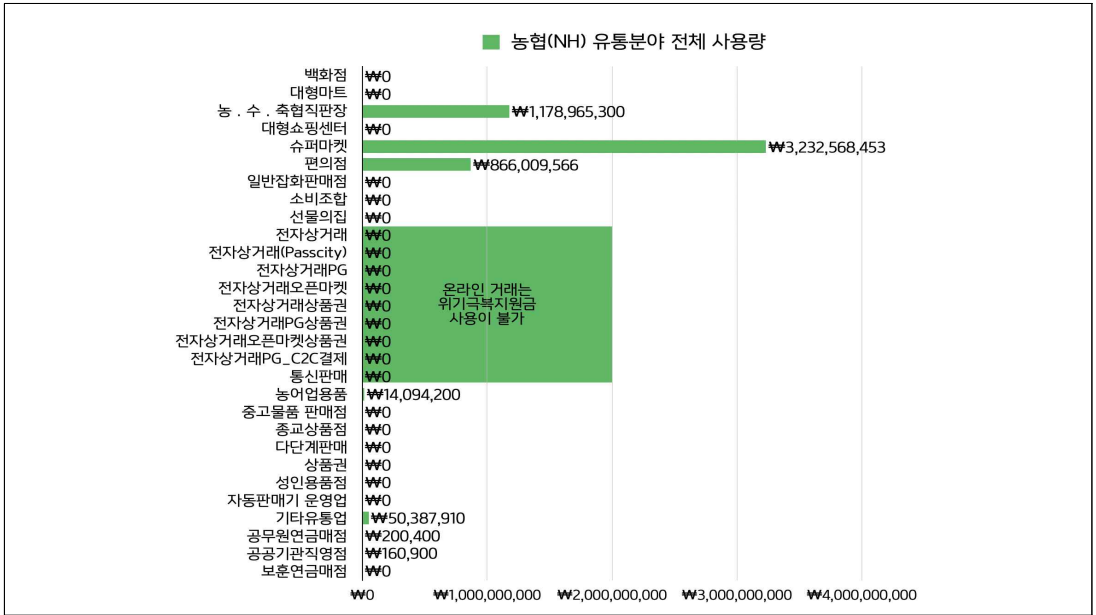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유통’ 분야를 살펴 보면, ‘슈퍼마켓’ 분야에서의 소비가 3,232,568,453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다른 대분류에서의 소비가 여러 소분류들의 소비들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된다. ‘슈퍼마켓’은 단일 대분류 항목에서 단일 소분류 항목으로 가장 많은 소비량과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소비가 된 소분류는 ‘농·수·축협 직판장’이며, 세 번째로 많은 소비가 된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은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판매점에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월별 소비를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월별 사용량은 4월, 5월, 6월 모두 ‘슈퍼마켓’이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4월과 5월은 ‘농·수·축협 직판장’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순으로 이어진다. 6월은 ‘편의점’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농·수·축협 직판장’이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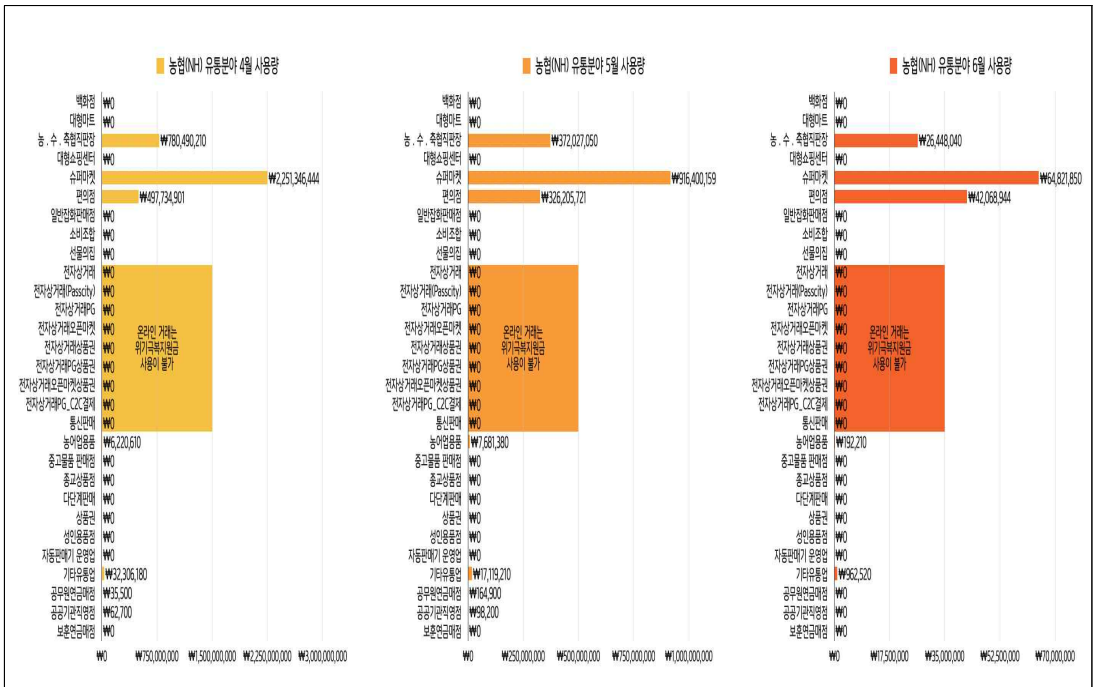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국민(KB) 선불카드의 ‘유통’ 분야와 비교하자면, 농협(NH)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된 소분류는 ‘슈퍼마켓’이다. 국민(KB)의 경우, 전체 사용량은 ‘슈퍼마켓’ → ‘편의점’ → ‘농·수·축협 직판장’ → ‘일반잡화판매점’ → ‘농어업용 용품’ 순으로 이어진다. 비교적 농협(NH)의 경우, ‘농·수·축협 직판장’이 ‘편의점’ 소분류보다 많이 소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기극복지원금’은 온라인 거래 사용이 제한됨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사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출 규모 역시 사용처의 가능 여부에 포함되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분류에서의 소비도 0원을 기록했다.

[그림 4-37] NH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38] NH 위기극복지원금 유통 분야 월별 사용량



### 3) 의료 / 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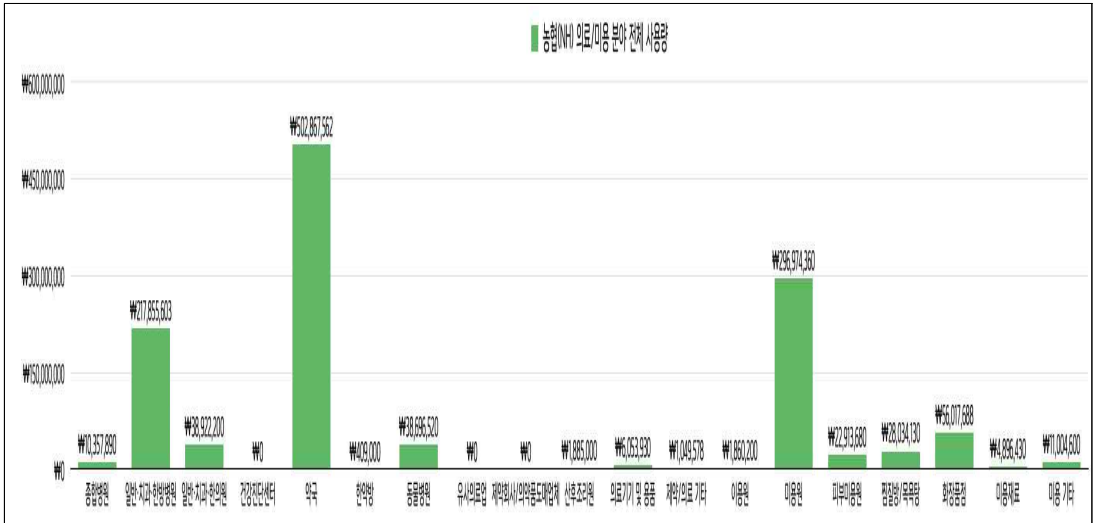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의료 / 미용’ 분야를 살펴보면 ‘의료’ 분야에서는 ‘약국’ 소분류의 소비가 502,867,562원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치과·한방병원’ 소분류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이는 위기극복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비교적 비용이 드는 병원 치료에 소비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위기극복지원금이 단순 가계 지원 정책이 아닌 의료·복지적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 가능한 점이다

또한 ‘의료 / 미용’ 중 ‘미용’ 분야에서 ‘미용원’의 소비가 296,974,360원으로 가장 많은 위기극복지원금이 소비되었고, 전체 금액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가 되었다. 일상 생활에서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화장품점’에서의 소비도 ‘일반·치과·한의원’과 비슷한 소비량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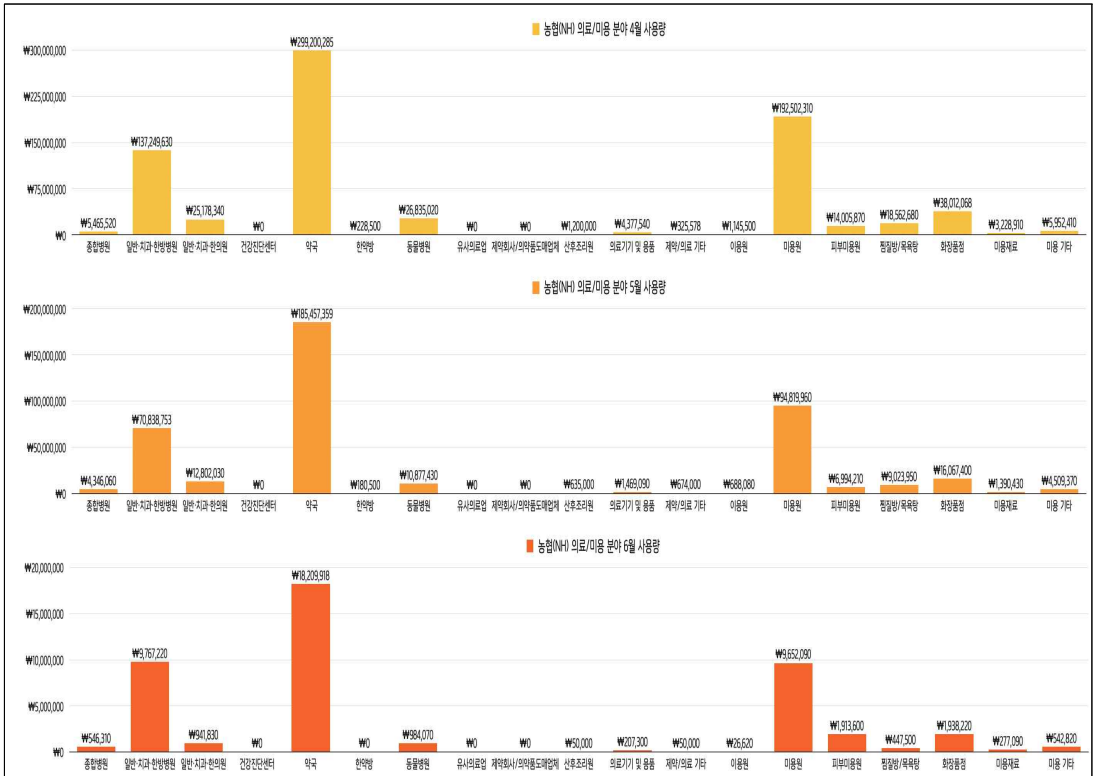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의 모습과 유사하다. 4월, 5월, 6월 모두 ‘약국’에서의 월별 사용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과 5월은 ‘약국’, ‘미용원’, ‘일반·치과·한방병원’, ‘화장품점’ 순으로 이어지며, 4월은 ‘동물병원’이 5순위로 이어지고, 5월은 ‘일반·치과·한의원’이 5순위로 나타났다. 6월은 ‘약국’, ‘일반·치과·한방병원’, ‘미용원’, ‘화장품점’, ‘피부미용원’ 순으로 이어진다.

앞서 살펴본 국민(KB) 선불카드의 ‘의료 / 미용’ 분야와 비교하자면, 농협(NH)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된 소분류는 ‘약국’이다. 국민(KB)의 경우, 전체 사용량은 ‘약국’ → ‘미용원’ → ‘일반·치과·한의원’ → ‘화장품점’ → ‘동물병원’ 순으로 이어진다. 비교적 농협(NH)의 경우, ‘일반·치과·한방병원’의 소비가 ‘일반·치과·한의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국민(KB)의 ‘일반·치과·한의원’의 소비가 ‘일반·치과·한방병원’보다 많이 일어난 것과 대비된다.

[그림 4-39] NH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40] NH 위기극복지원금 의료 / 미용 분야 월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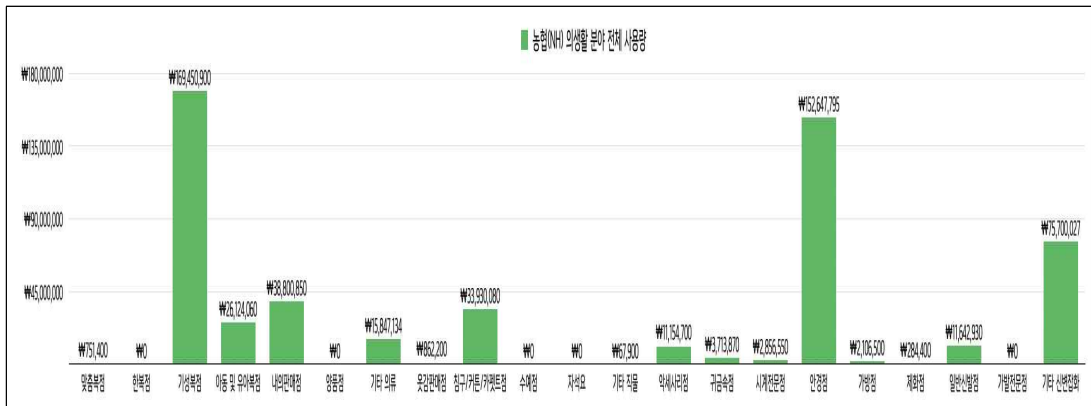
#### 4) 의생활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의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기성복’ 항목이 169,450,900원으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의생활’ 분야에서는 2개의 소분류가 ‘의생활’ 소비데이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경점’에서의 소비는 152,647,795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또한 ‘안경점’은 ‘기성복’ 항목과 비슷한 매출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수품이 된 품목 중 안경이 가격대를 가진 물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기극복지원금을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타 신변잡화’와 ‘내의판매점’, ‘침구 / 커튼 / 카펫점’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기성복점’에서의 월별 사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사용량을 차지한 항목 역시 ‘안경점’으로 나타났다. 이 후, ‘기타 신변잡화’, ‘내의판매점’, ‘침구 / 커튼 / 카펫점’ 순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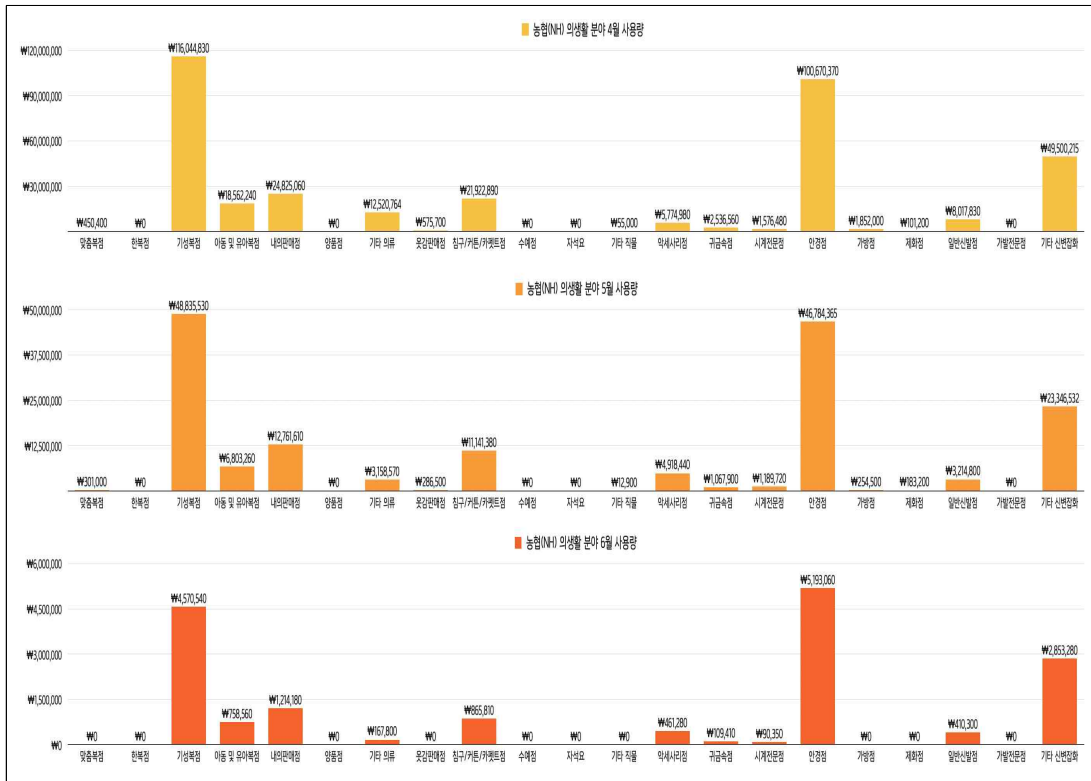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국민(KB) 선불카드의 ‘의생활’ 분야와 비교하자면, 농협(NH) 역시 사용된 분야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는 ‘기성복점’과 ‘안경점’이었으며, 국민(KB)의 경우, 전체 사용량과 월별 사용량은 ‘기성복점’ → ‘안경점’ → ‘내의판매점’ → ‘침구/커튼/카펫점’ → ‘아동 및 유아복점’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NH)의 경우 3순위가 ‘기타 신변잡화’ 소분류가 차지하며, ‘아동 및 유아복점’이 6순위를 차지한다.

[그림 4-41] NH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42] NH 위기극복지원금 의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5)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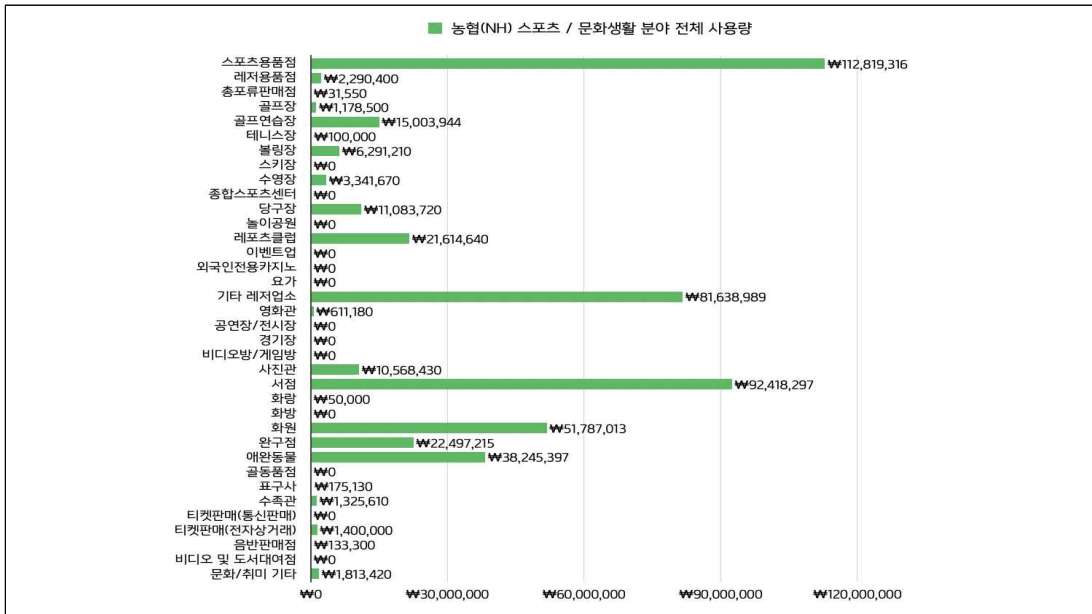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 분야를 살펴보면, 비교적으로 다른 대분류들과는 다르게 많은 항목들이 많은 분야에서 고루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한 소분류에서 많은 사용량을 보여준 다른 대분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제일 많은 소비를 보인 분류는 ‘스포츠용품점’으로 112,819,316원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서점’에서 92,418,297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소분류는 ‘기타 레저업소’로 81,638,989원이 사용되었다. 이어지는 소분류는 ‘화원’, ‘애원동물점’ 순으로 사용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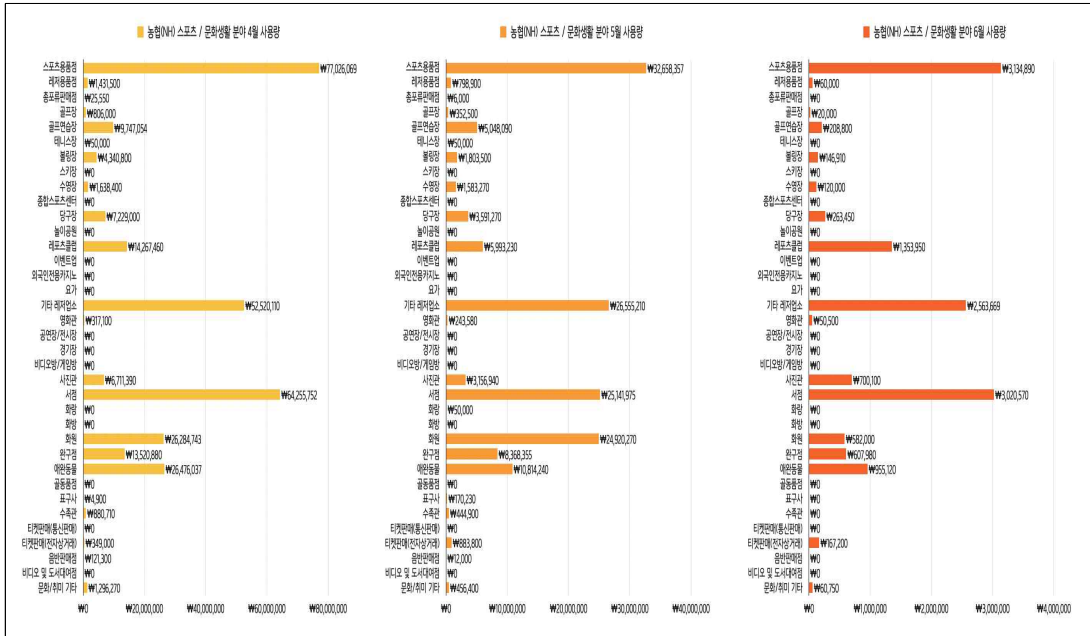
월별 소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마찬가지로 4월, 5월, 6월 사용량 모두 ‘스포츠용품점’에서 소비가 가장 많았다. 4월과 6월은 ‘서점’에서의 소비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기타 레저업소’의 소비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의 경우 ‘기타 레저업소’가 두 번째로 많은 소비가 일어났으며, ‘서점’, ‘회원’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앞서 서술한 국민(KB) 선불카드의 ‘스포츠 / 문화 / 레저 관련 용품’과 비교하자면,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스포츠용품점’으로 같다. 국민(KB)의 경우 ‘스포츠용품점’ → ‘회원’ → ‘완구점’ → ‘서점’ → ‘애완동물용품점’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은 ‘스포츠용품점’ → ‘서점’ → ‘기타 레저업소’ → ‘회원’ 순으로, 사용된 소분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3] NH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44] NH 위기극복지원금 스포츠 / 문화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 6) 교육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학원’ 분야에 사용한 소비와 ‘문방구점’에서 사용한 소비가 주를 이룬다. ‘학원’ 분야 중 ‘문리계학원’에서 130,756,070 원으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인다. 위기극복지원금이 여러 종류의 학원 분야에서 사용된 것에 반해, 단일 항목으로 많이 사용된 ‘문방구점’은 86,903,646원으로 ‘교육’ 분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예체능계학원’, ‘기술 / 사무 / 가정계학원’, ‘외국어학원’, ‘기타학원’, ‘독서실’ 순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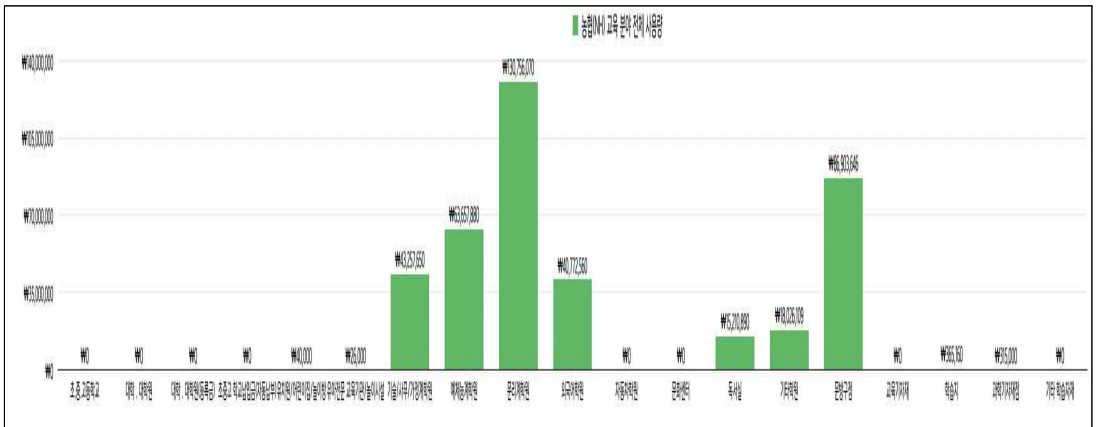
월별 소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문리계학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인다. 4월 사용량은 ‘문리계학원’, ‘문방구점’, ‘예체능계학원’, ‘기술 / 사무 / 가정계학원’, ‘외국어학원’ 순으로 이어진다. 5월과 6월은 ‘예체능계학원’이 ‘문방구점’보다 소비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술한 국민(KB) 선불카드의 ‘교육’ 분야와 비교하자면, 가장 많이 사용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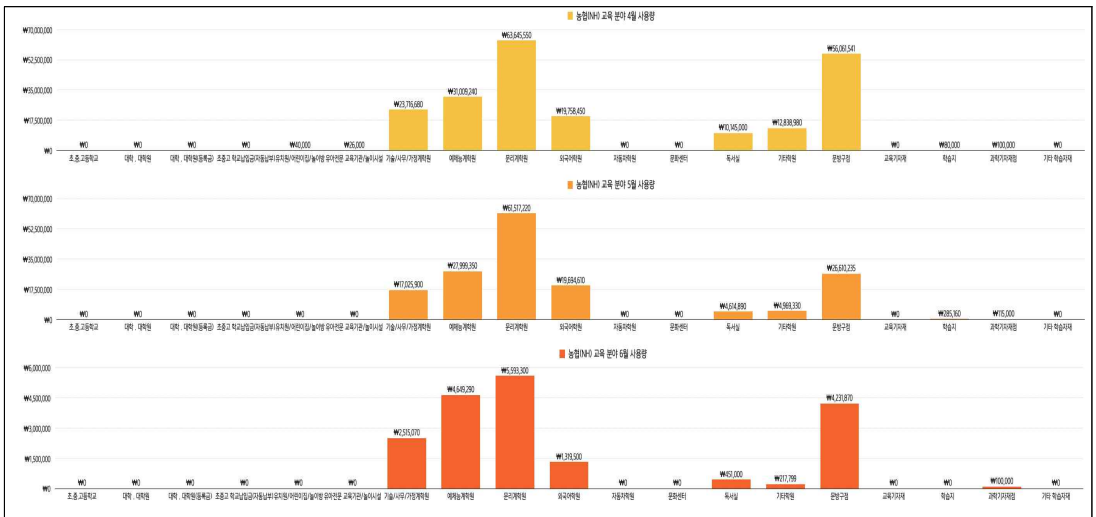
야는 ‘문리계학원’으로 같다. 국민(KB)의 경우, ‘문리계학원’ → ‘문방구점’ → ‘예체능계학원’ → ‘외국어학원’ → ‘독서실’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NH)의 경우, 국민(KB)와는 다르게 ‘기술 / 사무 / 가정계학원’에서의 소비가 더 많이 발생했다.

‘교육’ 분야는 ‘학원’ 분야에 사용한 소비와 ‘학습자재’에서 사용한 소비가 주를 이룬다. 위기극복지원금이 여러 종류의 학원 분야에서 사용된 것에 반해, ‘문방구점’은 단일 항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교육’ 분야에서 ‘학원’ 소분류들이 약 78%를 차지하며, ‘학습자재’ 소분류들이 약 21.9%를 차지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나머지 0.1%를 차지한다.

[그림 4-45] NH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46] NH 위기극복지원금 교육 분야 월별 사용량



## 7)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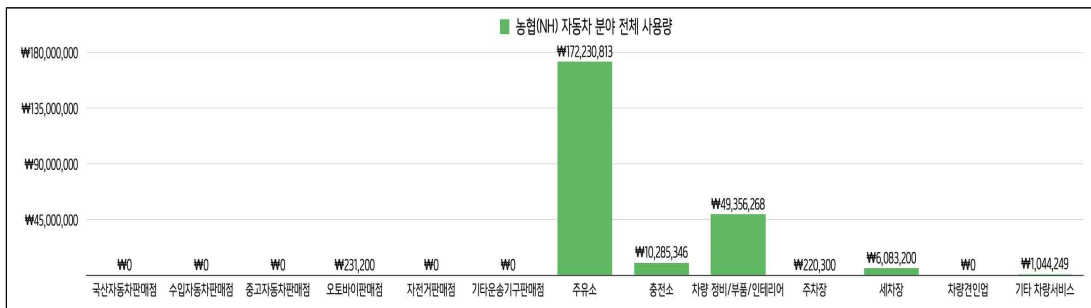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자동차’ 분야를 살펴보면 ‘주유소’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 역시 한 소분류에서 집중적으로 소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172,230,813원으로 ‘자동차’ 분류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 정비/부품/인테리어’가 49,356,268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인다. 이후로 ‘충전소’와 ‘세차장’, ‘기타 차량서비스’에서 차례로 소비가 이어졌다.

월별 소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주유소’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나타났다. 4월과 5월의 월별 사용량은 ‘주유소’,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 ‘자전거판매점’, ‘충전소’, ‘세차장’ 순으로 이어진다. 6월의 경우 ‘주유소’와 ‘차량 정비 / 부품 / 인테리어’가 1순위, 2순위로 나타나며, ‘세차장’이 3순위를 차지했으며, ‘충전소’가 4순위의 소비량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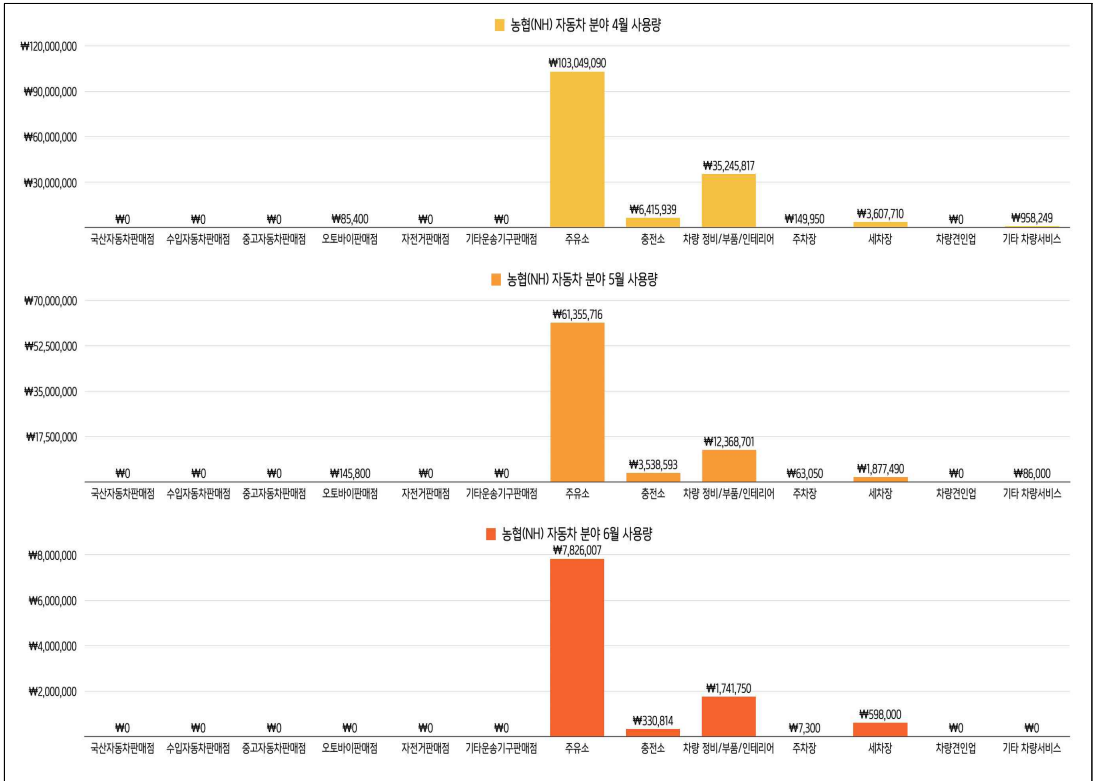
앞서 서술한 국민(KB) 선불카드의 ‘자동차’ 분야와 비교하자면, 사용량의 모습이 비슷하다. 국민(KB)과 농협(NH)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주유소’로 같다. 국민(KB)의 경우, ‘주유소’ → ‘차량 정비/부품/인테리어’ → ‘자전거판매점’ → ‘충전소’ → ‘세차장’ 순으로 이어진다.

5만원이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특성상 ‘국산자동차판매점’, ‘수입자동차판매점’, ‘중고자동차판매점’에서는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라는 물품이 워낙 고액으로 거래되는 분야이다 보니 오히려 차량정비나 부품, 내부 인테리어 용품 측면으로 소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7] NH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48] NH 위기극복지원금 자동차 분야 월별 사용량



### 8) 서비스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서비스’ 대분류를 살펴보면, 다른 대분류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분야가 존재한다. ‘세탁소’ 소분류는 81,869,045원으로 ‘서비스’ 분야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된 소분류는 ‘시설대여업’으로 10,644,290원이 사용되었다.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된 소분류는 ‘각종 수리업종’ 중 ‘사무용기기수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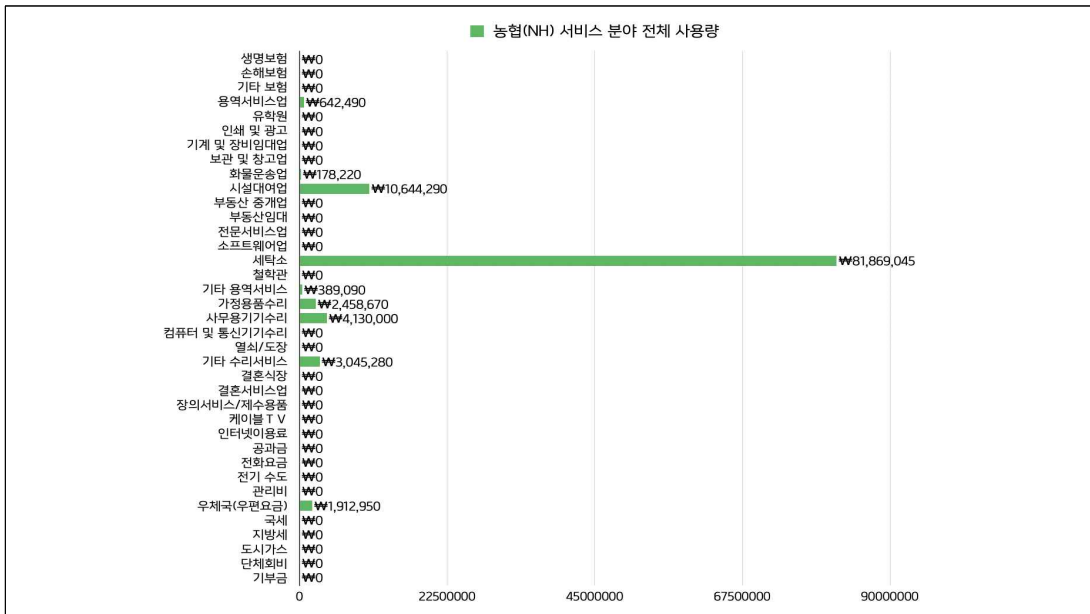
월별 소비로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 역시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세탁소’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이 발생했으며, 차례로 ‘시설대여업’, ‘각종 수리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술한 국민(KB) 선불카드의 ‘서비스’ 분야와 비교하자면, 사용량의 모습이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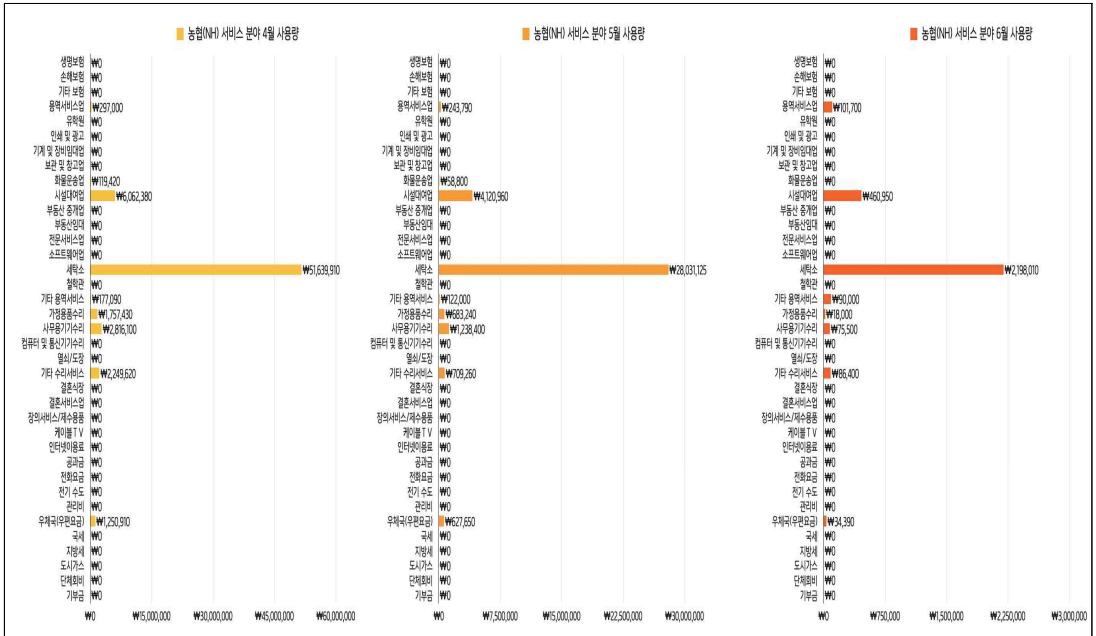
슷하다. 국민(KB)와 농협(NH)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세탁소’로 같다. 국민(KB)의 경우, ‘세탁소’ → ‘기타 용역서비스’ → ‘시설대여업’ → ‘각종 수리업종’ 순으로 이어진다. 농협(NH)의 경우, 국민(KB)보다 비교적으로 ‘시설대여업’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용역서비스’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 대면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대분류는 위기극복지원금 자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비대면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업종은 많은 피해를 받지 않았음을 ‘세탁소’ 소비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세탁소’를 제외한 서비스업은 위기극복지원금의 소비가 현저히 낮으므로, 서비스업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49] NH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50] NH 위기극복지원금 서비스 분야 월별 사용량



9) 내구재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내구재’ 분야를 살펴보면 ‘내구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이는 항목은 ‘일반가구점’이다. ‘일반가구점’에서의 소비는 27,704,885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소비가 일어난 소분류는 ‘주방 및 가정용품점’으로 13,868,840원이 사용되었다. 그 후로 ‘가전제품점’과 ‘주방기구점’, ‘정보통신기기’ 순으로 소비가 이어졌다.

월별로 살펴보면, ‘내구재’ 분야 역시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일반가구점’이 가장 많은 소비량이 발생했다. 4월과 5월의 경우 차례로 ‘주방 및 가정용품점’, ‘일반가구점’, ‘가전제품점’, ‘조명 전기기구점’, ‘주방기구점’ 순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의 경우 ‘가전제품점’이 ‘주방 및 가정용품점’보다 소비가 약간 많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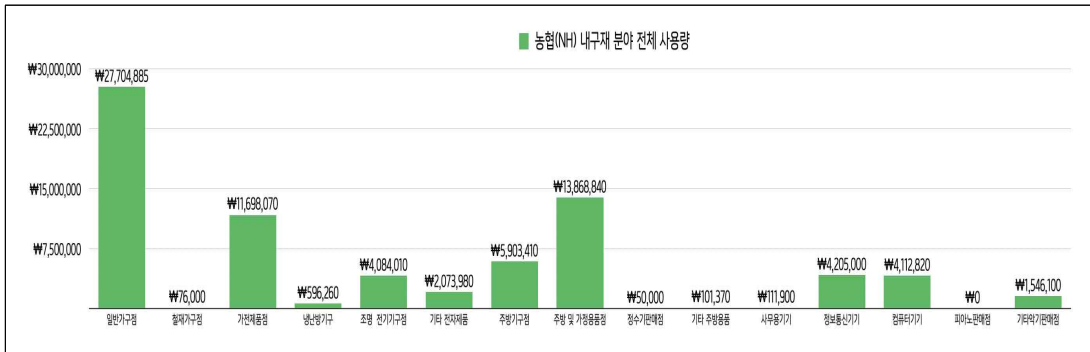
앞서 서술한 국민(KB) 선불카드의 ‘내구재’ 분야와 비교하자면, 농협(NH)이 ‘일반가구점’에서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지만, 국민(KB)은 ‘주방 및 가정용품점’에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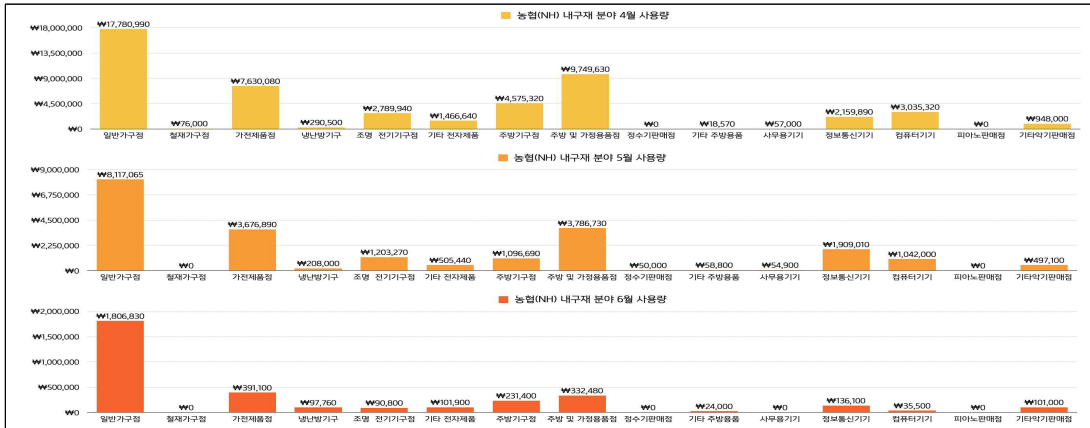
많은 사용량을 보인다. 국민(KB)의 경우, ‘주방 및 가정용품점’ → ‘일반가구점’ → ‘가전제품점’ → ‘조명 전기기구점’ → ‘주방기구점’ 순으로 이어진다. 국민(KB)와 농협(NH)의 모습은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가 다르지만, 소분류들의 사용 분야들이 대부분 유사하다. 두 카드사의 ‘내구재’ 분야의 소비 동향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내구재’ 분야의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라이프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예측한다. 외부활동보다 내부활동의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방 및 가정용품’의 소비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여 ‘일반가구점’, ‘가전제품점’, ‘조명 전기기구점’, ‘주방기구점’에서의 소비로 이어졌으리라 추측해 본다.

[그림 4-51] NH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52] NH 위기극복지원금 내구재 분야 월별 사용량



## 10) 제조 (기타)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제조(기타)’ 분야를 살펴보면 기계류, 식품류, 기타 세 가지 소분류 중 ‘기계류 제조/도매업’에서의 소비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계류 제조/도매업’에 사용된 금액은 5,110,655원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위기극복지원금이 ‘기계류 제조/도매업’에 편중되어 사용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의 모습과 일치한다. 4월, 5월, 6월 모두 ‘기계류 제조/도매업’에서만 소비가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소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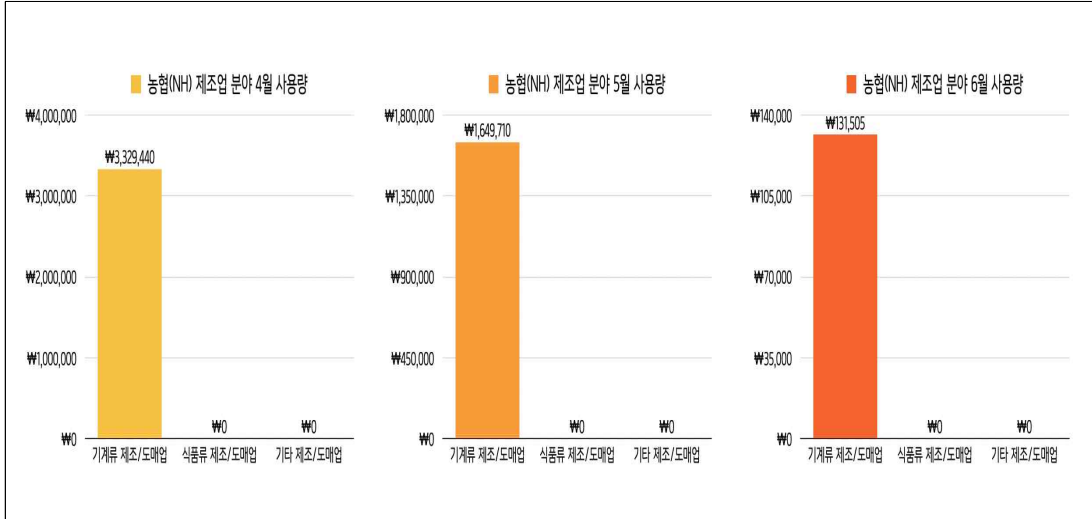
앞서 본 국민(KB) 제조와 비교했을 때, 국민(KB) 제조업 소비가 ‘식품류 제조/도매업’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제조’ 분야 역시 산업특성상 위기극복지원금이 사용되기 어려운 업종이다 보니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4-53] NH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54] NH 위기극복지원금 제조업 분야 월별 사용량



## 11) 주거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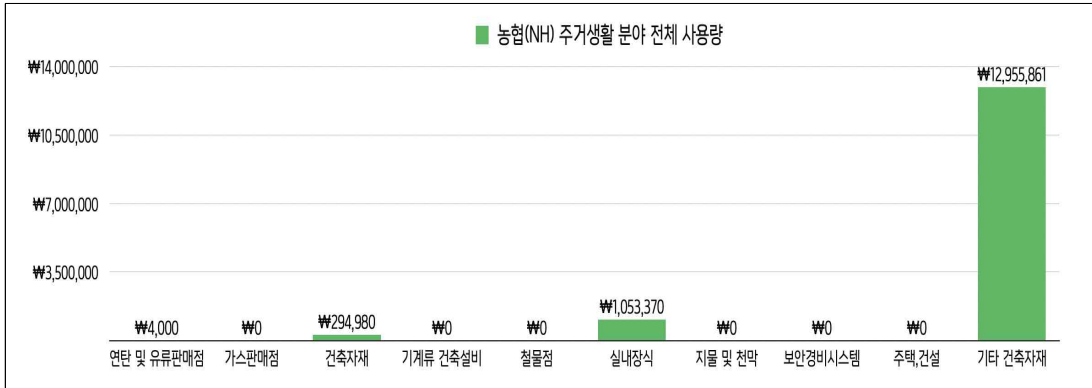
농협(NH) 카드 데이터 중 ‘주거생활’ 분야를 살펴보면 ‘기타 건축자재’, ‘실내장식’, ‘건축자재’, ‘연탄 및 유류판매점’ 순으로 위기극복지원금이 소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독 ‘기타 건축자재’에서의 소비는 12,955,861원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내장식’은 1,053,370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보였다. ‘건축자재’는 294,980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소비를 보이며, ‘연탄 및 유류판매점’에서 4,000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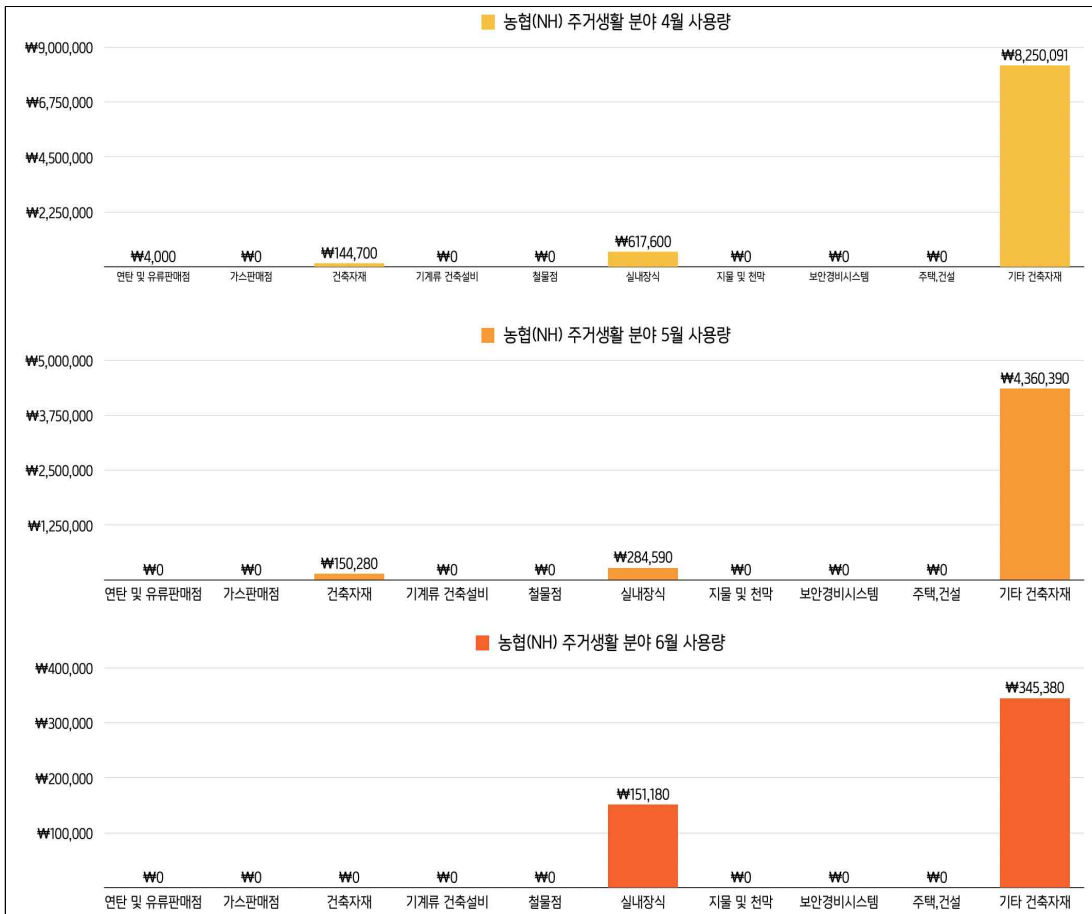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월, 5월, 6월 모두 ‘기타 건축자재’, ‘실내장식’, ‘건축자재’ 순으로 이어진다.

앞서 살펴본 국민(KB) 카드 데이터의 ‘주거생활’이 ‘철물점’, ‘건축자재’, ‘실내장식’, ‘자물 및 천막’ 등의 소분류로 골고루 사용이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림 4-55] NH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56] NH 위기극복지원금 주거생활 분야 월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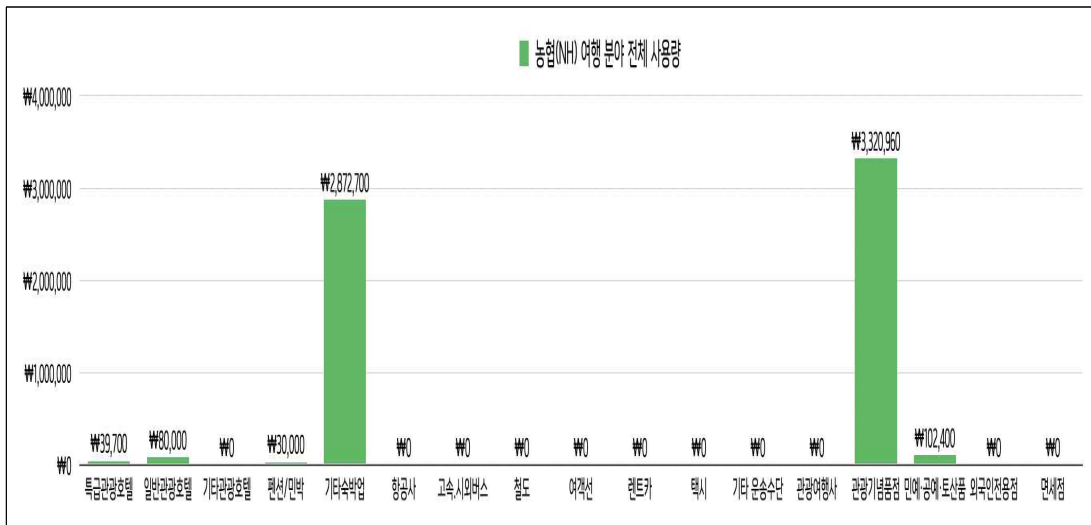
## 12) 여행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여행’ 분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대분류들 중 가장 많은 소분류가 0원 소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여행’ 분야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위기극복지원금의 1%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중 ‘관광기념품점’과 ‘기타숙박업’ 그리고 ‘민예/공예/토산품’에서 소비를 보이고 나머지 소분류에서는 0원이거나 아주 작은 금액이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광기념품점’에서 3,320,960원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었으며, ‘기타숙박업’에서 2,877,700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었다. 그 후로 ‘민예·공예·토산품’에서 102,400원, 일반관광호텔에서 80,000원, ‘특급관광호텔’에서 39,700원, ‘펜션 / 민박’에서 30,000원의 소비를 보여준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량과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 분야 사용량은 ‘관광기념품점’, ‘기타숙박업’, ‘민예·공예·토산품’ 등 순으로 이어진다.

앞서 서술한 국민(KB) 선불카드의 ‘여행’ 분야와 비교하자면, 국민(KB)은 ‘기타 숙박업’ 소분류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였으며, 농협(NH)은 ‘관광기념품점’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보였다. 국민(KB)의 경우, ‘기타 숙박업’ → ‘민예·공예·토산품’ → ‘렌트카’ 순으로 이어진다.

[그림 4-57] NH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58] NH 위기극복지원금 여행 분야 월별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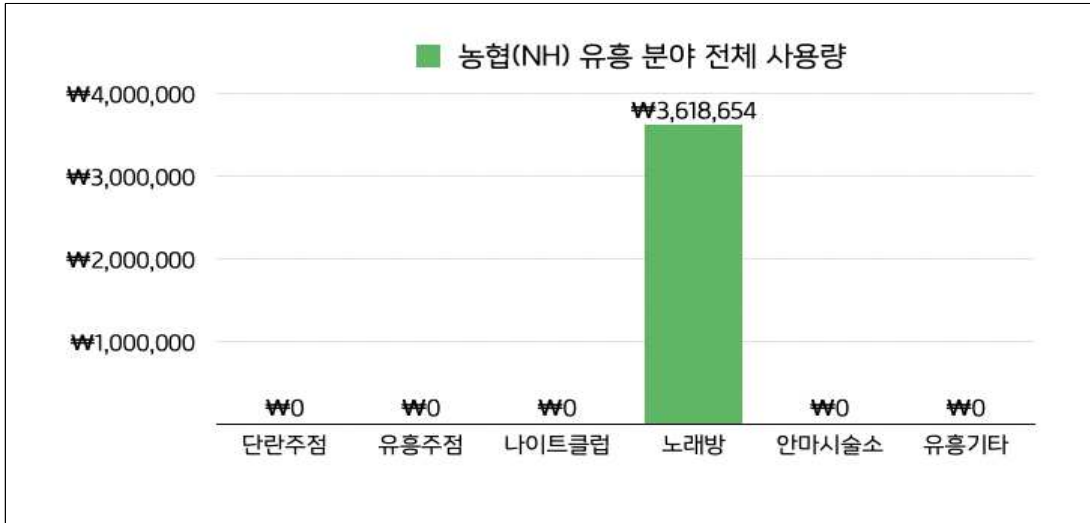


### 13) 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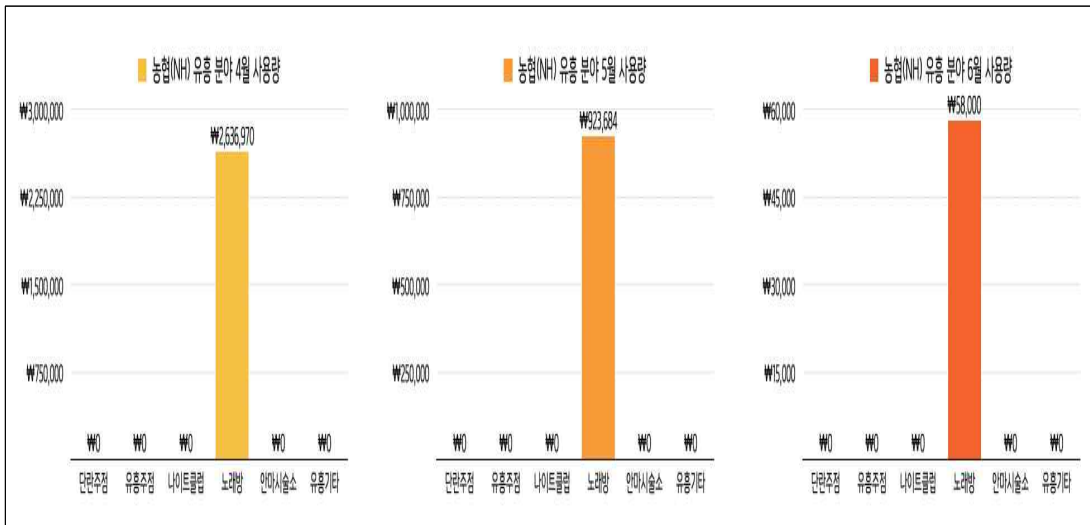
농협(NH) 카드데이터 중 ‘유흥’ 분야를 살펴보면 ‘노래방’ 소분류만 소비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래방’에서 소비된 금액은 3,618,654원으로 모든 위기극복지원금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사용된 대분류이다.

‘유흥’ 분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사용이 제한된 업종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노래방’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업종분류코드에 따르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카드사의 업종분류표에 노래방을 ‘유흥’ 대분류로 분류했을 뿐, 실질적으로 ‘노래방’이나 ‘코인노래방’ 같은 업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4-59] NH 위기극복지원금 유흥 분야 전체 사용량



[그림 4-60] NH 위기극복지원금 유흥 분야 월별 사용량



### 3. 농협(NH) 선불카드 지역별 분석

#### 1) 농협(NH) 선불카드 행정동별 전체 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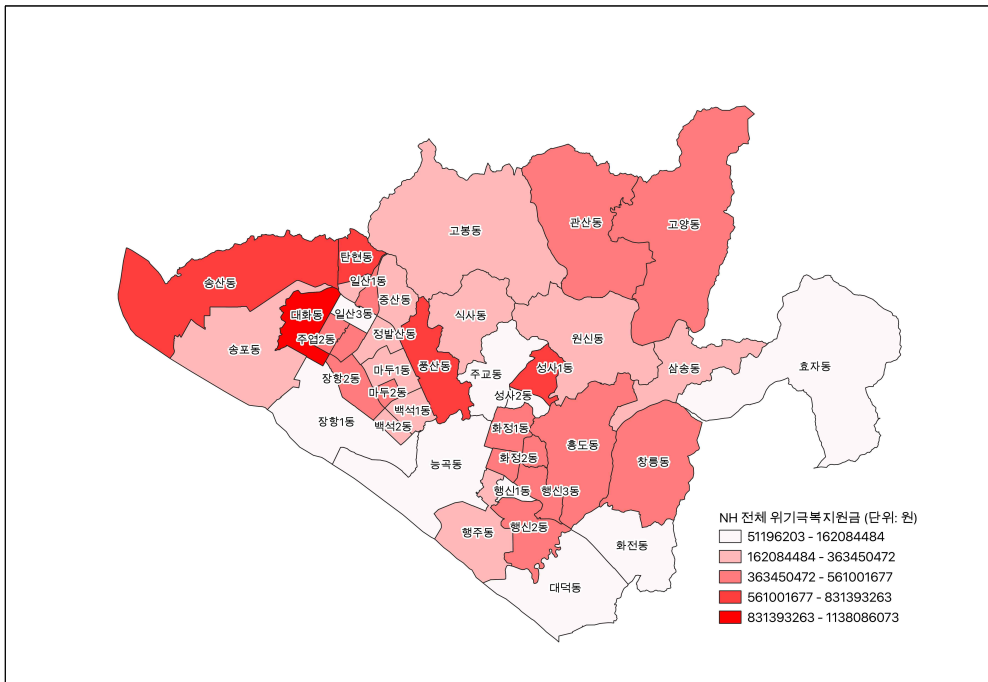
[표 4-5] NH농협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b>총합</b>	<b>₩7,077,942,986</b>	<b>1</b>
	주교동	₩104,942,621	34
	원신동	₩333,820,431	21
	흥도동	₩624,041,588	6
	성사 1동	₩816,810,100	3
	성사 2동	₩87,489,321	37
	효자동	₩51,196,203	39
	삼송동	₩248,472,014	26
	창릉동	₩440,400,251	15
	고양동	₩478,357,077	10
	관산동	₩411,807,127	17
	능곡동	₩162,084,484	30
	화정 1동	₩561,001,677	7
	화정 2동	₩831,393,263	2
	행주동	₩276,965,426	25
	행신 1동	₩194,450,497	29
	행신 2동	₩512,869,117	8
	행신 3동	₩730,687,998	4
	화전동	₩135,771,868	32
	대덕동	₩75,381,923	38
일산동구	<b>총합</b>	<b>₩4,376,429,979</b>	<b>2</b>
	식사동	₩429,785,658	16
	중산동	₩440,793,563	14
	정발산동	₩363,450,472	20
	풍산동	₩1,138,086,073	1
	백석 1동	₩393,711,704	19
	백석 2동	₩218,683,825	27
	마두 1동	₩306,143,970	23
	마두 2동	₩408,119,905	18
	장항 1동	₩130,577,279	33
	장항 2동	₩457,519,731	13
	고봉동	₩89,557,799	35



구	행정동	금액	순위
일산서구	<b>총합</b>	<b>₩3,103,012,256</b>	<b>3</b>
	일산 1동	₩161,441,140	31
	일산 2동	₩326,988,768	22
	일산 3동	₩197,060,598	28
	탄현동	₩461,360,290	12
	주엽 1동	₩279,125,756	24
	주엽 2동	₩471,043,521	11
	대화동	₩635,936,788	5
	송포동	₩87,829,857	36
	송산동	₩482,225,53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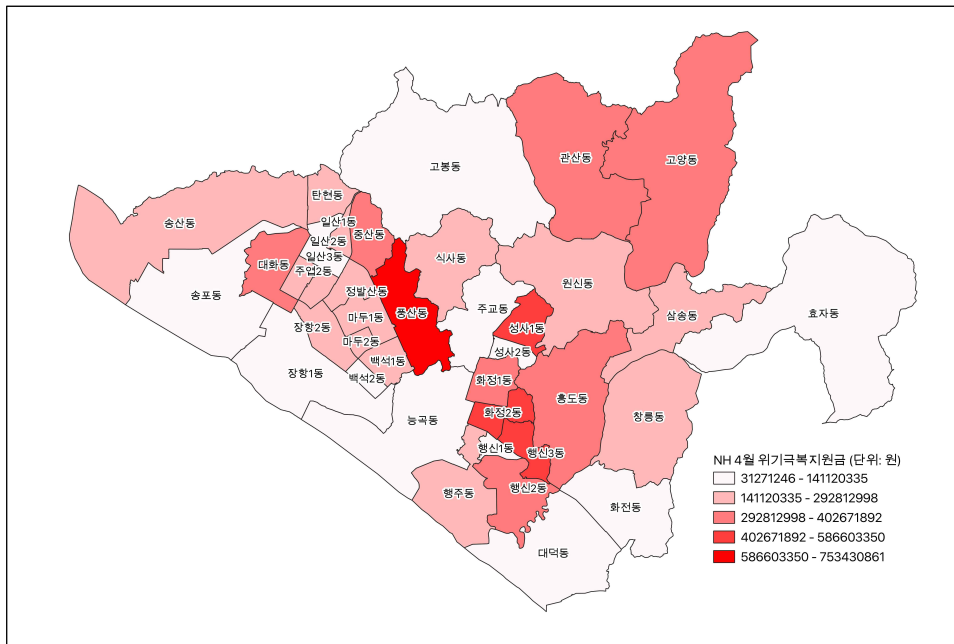
[그림 4-61] NH 전체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1) 월별 현황

(1) 농협(NH) 선불카드 행정동별 4월 사용량

[그림 4-62] NH 4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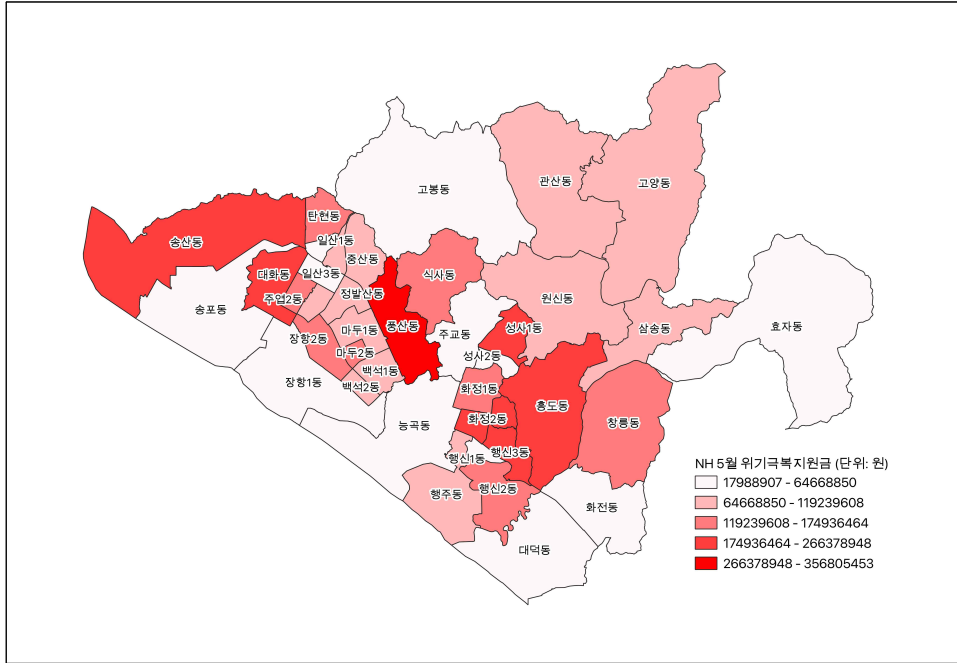


[표 4-6] NH농협 4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 별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b>총합</b>	<b>₩4,776,914,872</b>	<b>1</b>
	주교동	₩72,100,868	34
	원신동	₩207,318,302	22
	흥도동	₩402,671,892	5
	성사 1동	₩586,603,350	2
	성사 2동	₩57,858,743	36
	효자동	₩31,271,246	39
	삼송동	₩165,125,150	26
	창릉동	₩275,945,260	15
	고양동	₩349,697,076	8
	관산동	₩311,737,173	11
	능곡동	₩114,365,181	30
	화정 1동	₩370,547,093	7
	화정 2동	₩539,586,135	3
	행주동	₩201,415,388	24
	행신 1동	₩130,001,570	28
	행신 2동	₩349,095,666	9
	행신 3동	₩485,046,119	4
	화전동	₩84,355,607	33
	대덕동	₩42,173,053	38
일산동구	<b>총합</b>	<b>₩2,863,564,958</b>	<b>2</b>
	식사동	₩266,933,665	17
	중산동	₩316,343,045	10
	장발산동	₩249,752,113	20
	풍산동	₩753,430,861	1
	백석 1동	₩264,396,993	18
	백석 2동	₩141,120,335	27
	마두 1동	₩202,163,931	23
	마두 2동	₩254,437,658	19
	장항 1동	₩84,783,579	32
	장항 2동	₩271,162,756	16
	고봉동	₩59,040,022	35
일산서구	<b>총합</b>	<b>₩1,939,298,474</b>	<b>3</b>
	일산 1동	₩112,101,230	31
	일산 2동	₩225,330,315	21
	일산 3동	₩126,166,048	29
	탄현동	₩279,794,245	13
	주엽 1동	₩183,081,313	25
	주엽 2동	₩292,812,998	12
	대화동	₩392,099,346	6
	송포동	₩51,842,222	37
	송산동	₩276,070,757	14

(2) 농협(NH) 선불카드 행정동별 5월 사용량

[그림 4-63] NH 5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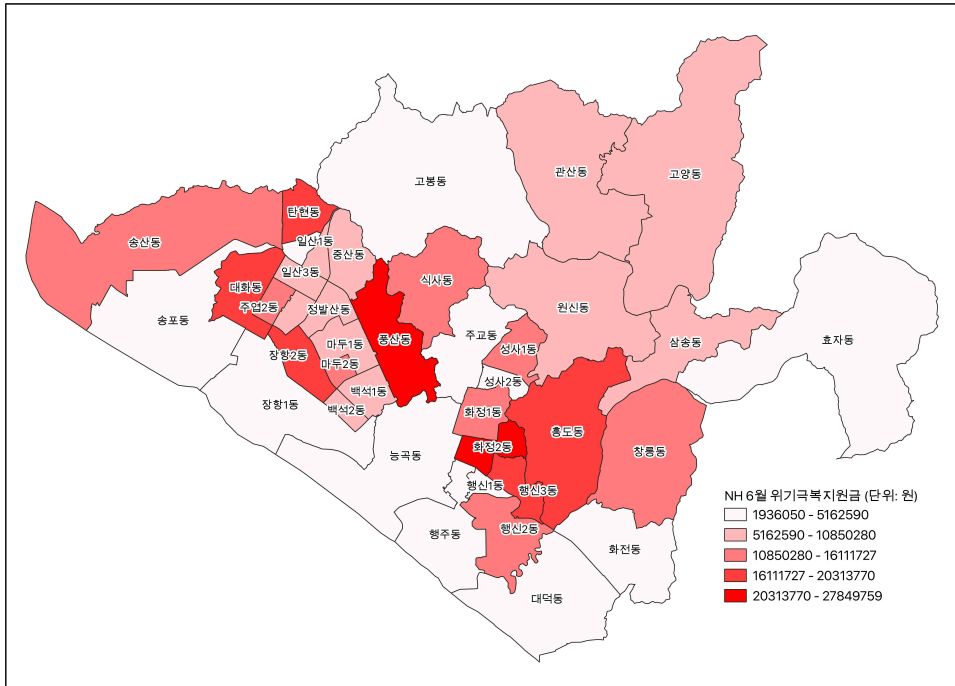


[표 4-7] NH농협 5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b>총합</b>	<b>₩2,117,644,346</b>	<b>1</b>
	주교동	₩29,745,293	36
	원산동	₩115,660,603	18
	흥도동	₩202,139,276	6
	성사 1동	₩214,892,001	5
	성사 2동	₩27,441,899	38
	효자동	₩17,988,907	39
	삼송동	₩76,878,435	25
	창릉동	₩151,192,595	12
	고양동	₩119,239,608	16
	관산동	₩93,580,478	23
	능곡동	₩44,739,478	32
	화정 1동	₩174,936,464	8
	화정 2동	₩266,378,948	2
	행주동	₩70,506,233	26
	행신 1동	₩59,670,007	29
	행신 2동	₩150,646,261	13
	행신 3동	₩225,328,109	4
	화전동	₩46,253,671	30
대덕동	₩30,426,080	35	
일산동구	<b>총합</b>	<b>₩1,385,402,659</b>	<b>2</b>
	식사동	₩148,495,790	14
	중산동	₩113,618,395	19
	정발산동	₩105,729,249	20
	풍산동	₩356,805,453	1
	백석 1동	₩118,464,431	17
	백석 2동	₩70,337,440	27
	마두 1동	₩95,613,899	21
	마두 2동	₩138,862,527	15
	장항 1동	₩42,619,290	33
	장항 2동	₩167,046,435	9
	고봉동	₩27,809,750	37
	일산서구	<b>총합</b>	<b>₩1,068,824,382</b>
일산 1동		₩45,512,690	31
일산 2동		₩94,901,473	22
일산 3동		₩64,668,850	28
탄현동		₩162,577,350	11
주엽 1동		₩87,928,013	24
주엽 2동		₩163,944,733	10
대화동		₩226,421,013	3
송포동		₩32,827,206	34
송산동		₩190,043,054	7

(3) 농협(NH) 선불카드 행정동별 6월 사용량

[그림 4-64] NH 6월 위기극복지원금 공간정보 시각화 (행정동)



[표 4-8] NH농협 6월 위기극복지원금 행정동별 사용량

구	행정동	금액	순위
덕양구	<b>총합</b>	<b>₩183,383,768</b>	<b>1</b>
	주교동	₩3,096,460	34
	원신동	₩10,841,526	17
	흥도동	₩19,230,420	5
	성사 1동	₩15,314,749	10
	성사 2동	₩2,188,679	38
	효자동	₩1,936,050	39
	삼송동	₩6,468,429	26
	창릉동	₩13,262,396	14
	고양동	₩9,420,393	19
	관산동	₩6,489,476	25
	능곡동	₩2,979,825	35
	화정 1동	₩15,518,120	9
	화정 2동	₩25,428,180	2
	행주동	₩5,043,805	29
	행신 1동	₩4,778,920	30
	행신 2동	₩13,127,190	15
	행신 3동	₩20,313,770	3
	화전동	₩5,162,590	28
대덕동	₩2,782,790	36	
일산동구	<b>총합</b>	<b>₩127,462,362</b>	<b>2</b>
	식사동	₩14,356,203	12
	중산동	₩10,832,123	18
	정발산동	₩7,969,110	22
	풍산동	₩27,849,759	1
	백석 1동	₩10,850,280	16
	백석 2동	₩7,226,050	23
	마두 1동	₩8,366,140	20
	마두 2동	₩14,819,720	11
	장항 1동	₩3,174,410	32
	장항 2동	₩19,310,540	4
	고봉동	₩2,708,027	37
일산서구	<b>총합</b>	<b>₩94,889,400</b>	<b>3</b>
	일산 1동	₩3,827,220	31
	일산 2동	₩6,756,980	24
	일산 3동	₩6,225,700	27
	탄현동	₩18,988,695	6
	주엽 1동	₩8,116,430	21
	주엽 2동	₩14,285,790	13
	대화동	₩17,416,429	7
	송포동	₩3,160,429	33
	송산동	₩16,111,727	8

## 제3절 분석의 한계

본 분석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의 제한적 제공에 따른 유의 및 인과성 분석의 한계를 가진다. 성, 연령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제한으로 집단 간의 차이 및 인과성 분석이 불가하였다.

둘째, 가맹점의 위치 또한 상세 주소 없이 우편번호로만 제공되어 공간정보 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셋째, 원데이터 정제 및 매칭, 가공을 통한 구조화 및 정형화된 데이터 융합셋 재생산에 많은 시간 및 노동력이 투입되었다.

넷째, 카드사 별 업종분류가 자체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각 매칭하여 통합 가맹점 업종명 칼럼 생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섯째, 업종분류표 매칭을 위해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와 업종분류 코드를 참조하여 분류코드 1,000~9,000까지 세부 항목을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섯째, 통일되지 못한 3개의 변수로 인한 공간정보 결합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주소가 아닌 우편번호 제공이며 우편번호도 구 우편번호와 혼재되어 매칭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반복적인 변수 매칭을 통한 지오코딩 정보의 통일성 확보 및 행정구역경계, 법정구역 경계의 혼재로 매칭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제 5 장

##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시민의식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 제절 조사 개요

### 1. 조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지역의 상권은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소득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원하였고, 고양시 또한 ‘위기극복지원금’을 2020년 7월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였다.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의 선불카드로 지급되었다. KB국민은행 선불카드는 2020년 4월 14일부터 지급되었고 NH농협 선불카드는 4월 16일부터 지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 2. 조사설계

조사시기는 2020년 8월 11일 ~ 2020년 8월 20일 까지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고양시 거주 시민들로 인구사회학적으로 표본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총 2,341 표본 중 3,456의 유효 표본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조사원 배정지역 및 인원 수

현장 조사는 39동을 기반으로 각 동마다 현장조사원 2명씩을 배치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원 배치 구역 지도 참조).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방역에 대한 교육 또한 수행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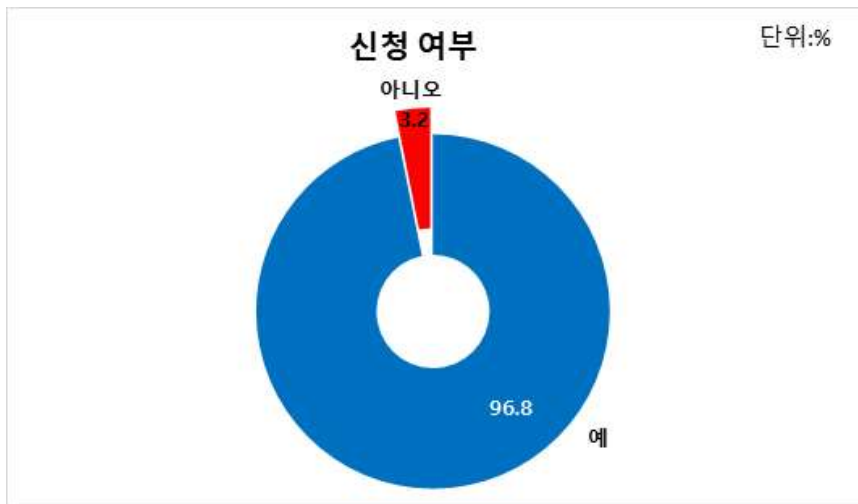
## 제2절 조사 결과

### 1.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여부 및 사용주체

#### 1) 신청여부

고양시민들의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여부를 보면 대다수가 ‘예’(96.8%)라고 답하고 있으며, 3.2%의 시민만이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 5-1] 위기극복지원금 신청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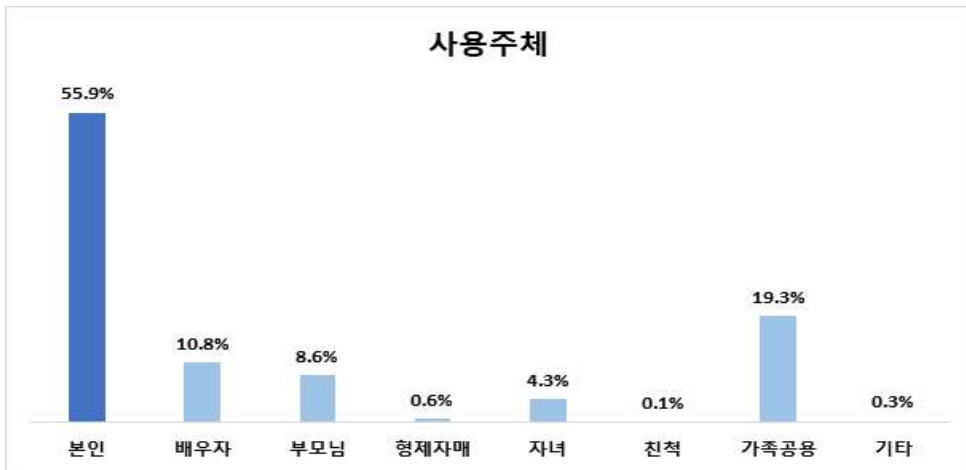


#### 2) 사용 주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주체에 대해 물어본 결과(다중응답) ‘본인’이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우자’(16.3%), ‘부모님’(10.6%), ‘자녀’(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금에 대한 사용주체는(다중응답) ‘본인’이 55.9%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공용’(19.3%), ‘배우자’(10.8%), ‘부모님’(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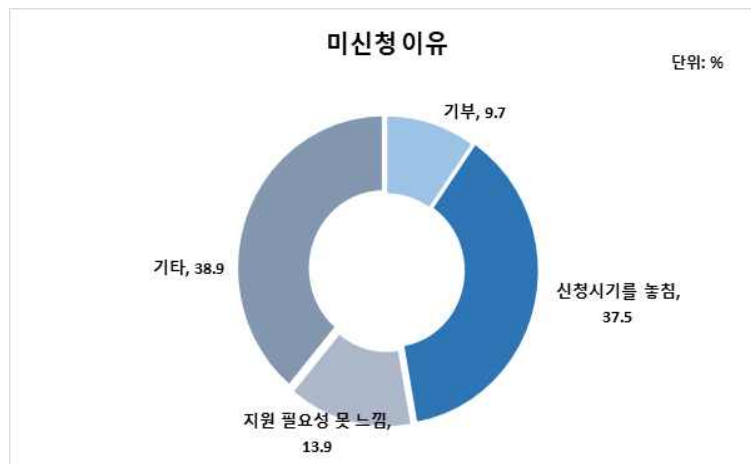
[그림 5-2]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주체



### 3) 지원금 미신청 이유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이유로는 ‘기타’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청시기를 놓침’(37.5%), ‘지원 필요성 못 느낌’(13.9%), ‘기부’(9.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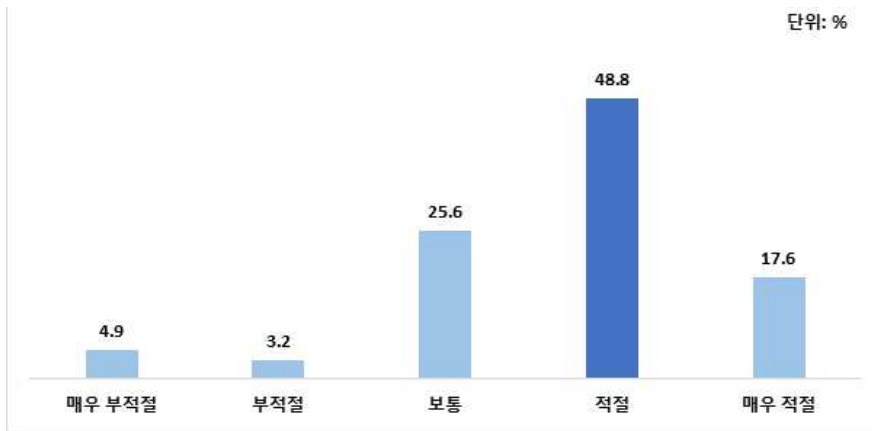
[그림 5-3] 위기극복지원금 미신청 이유



## 2.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시기의 적절성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의 지급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적절’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25.6%), ‘매우 적절’(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시기에 대해 적절(적절+매우 적절)하다고 느낀 시민이 66.4%로 절반 이상의 시민이 지원 시기에 만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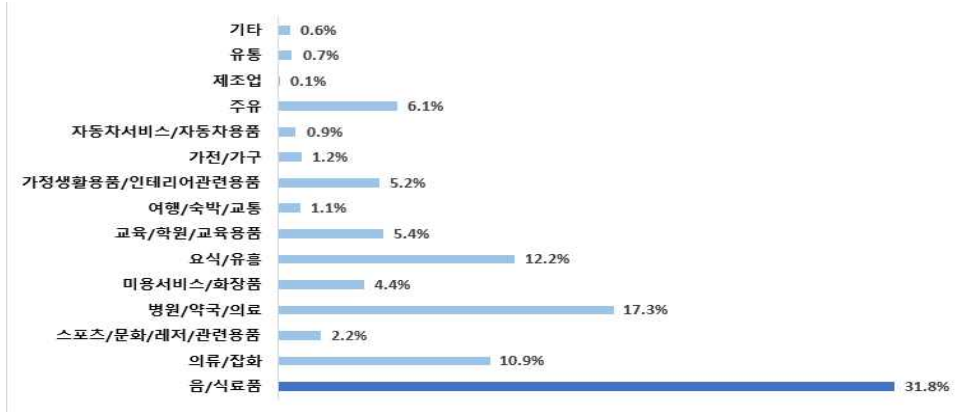
[그림 5-4]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시기 적절성



## 3. 위기극복지원금 사용 분야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주 사용 분야를 3개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약국/의료’(17.3%), ‘요식/유흥’(12.2%), ‘의류/잡화’(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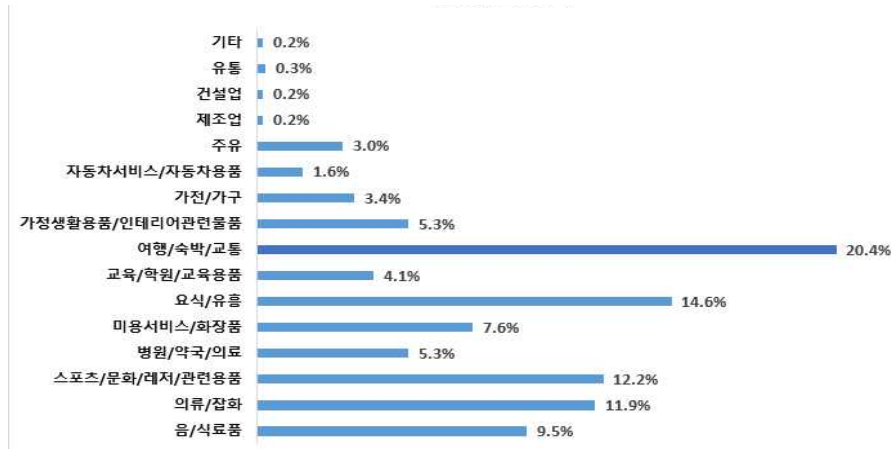
[그림 5-5] 위기극복지원금 지출항목



#### 4. 코로나19 확산이후 가계 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

코로나 이후, 지출 감소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여행/숙박/교통’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요식/유희’(14.6%), ‘스포츠/문화/레저/관련용품’(12.2%), ‘의류/잡화’(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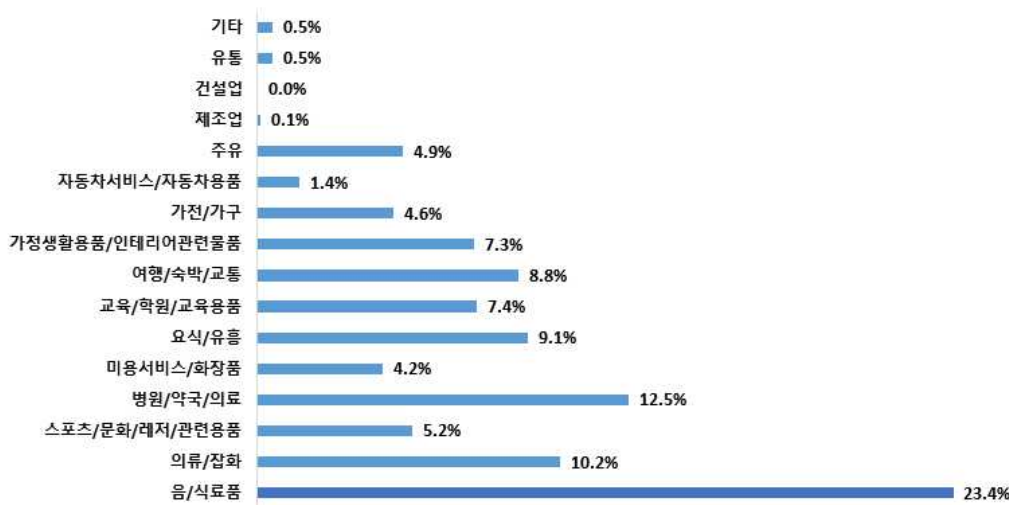
[그림 5-6] 위기극복 지원금 지출 감소 항목



## 5. 추가지원이 있을 경우 소비할 분야

위기극복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될 경우 어느 분야에 지출을 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음/식료품’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약국/의료’(12.5%), ‘의류/잡화’(10.2%), ‘요식/유흥’(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지출예정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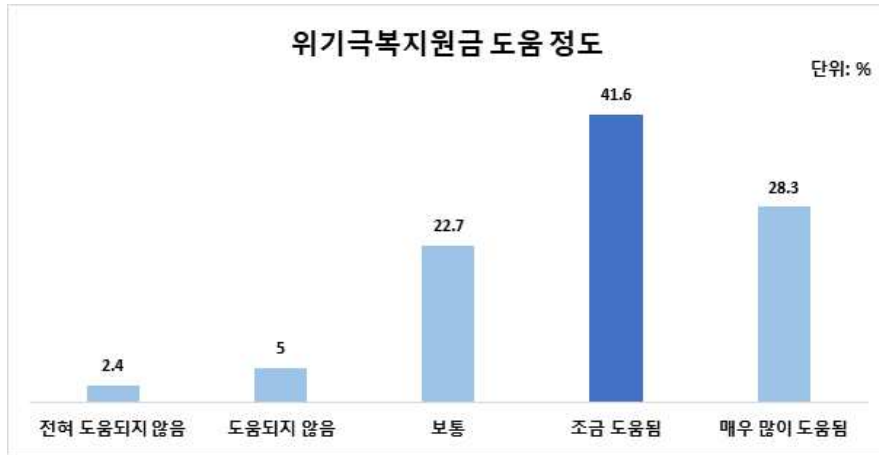


## 6. 위기극복지원금이 가계에 도움이 된 정도

위기극복지원금의 가계 도움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금 도움됨’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많이 도움됨’(28.3%), ‘보통’(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69.9%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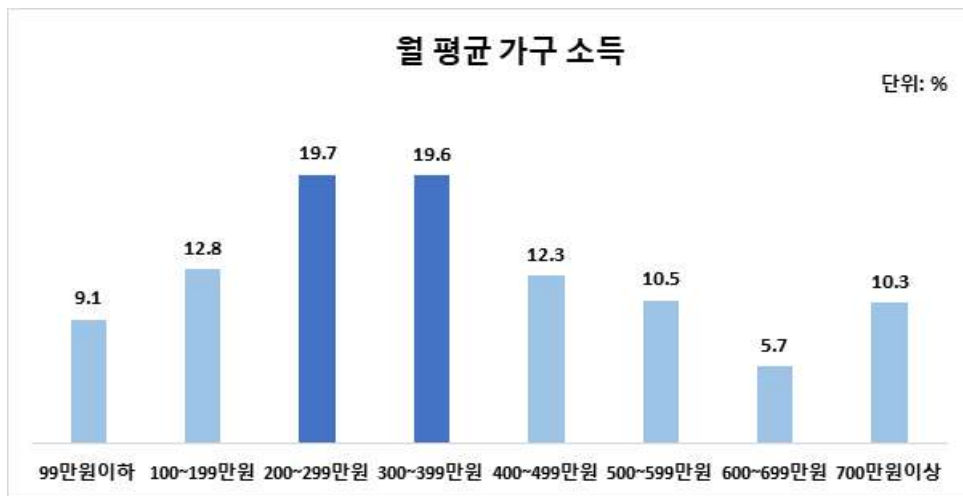
[그림 5-8] 위기극복지원금 도움 정도



## 7. 월 평균 가구 소득정도(이자소득포함)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0~299만원’과 ‘300~399만원’이 각각 19.7%, 19.6%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199만원’(12.8%), ‘400~499만원’(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9] 월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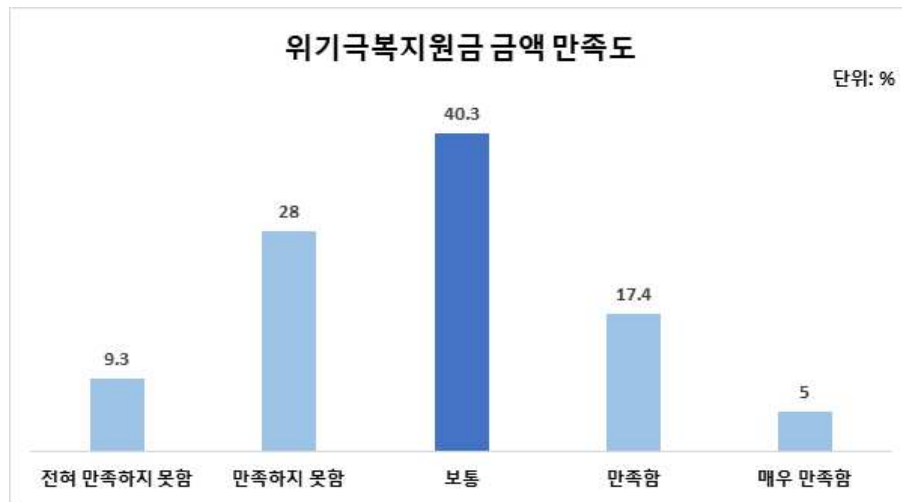
## 8. 위기극복지원금 금액 만족 및 추가지원 여부

### 1)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금액(1인당 5만원)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보통’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족하지 못함’(28%), ‘만족함’(17.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만족+매우만족)의 비율이 22.4%, 불만족(전혀만족못함+만족못함) 비율이 37.3%로 금액에 대한 만족보다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0] 위기극복지원금 금액 만족도



### 2)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

위기극복지원금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예’가 70.1%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29.9%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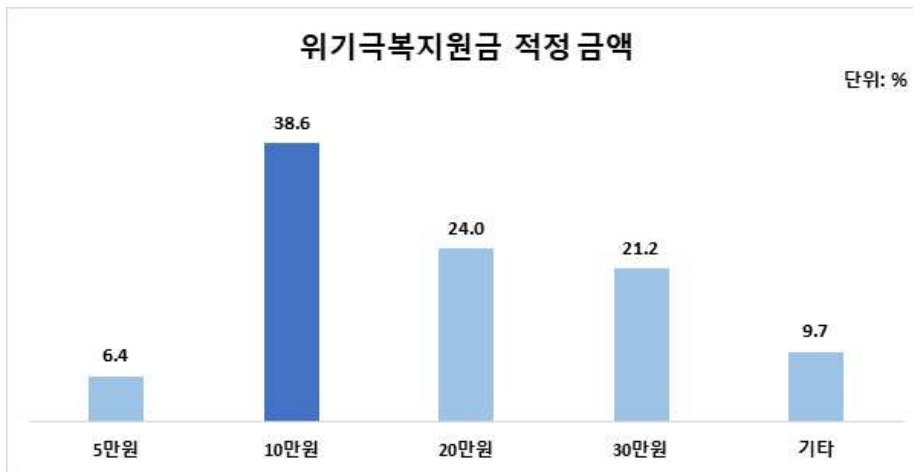
[그림 5-11] 위기극복지원금 추가 지원 필요성



### 3)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 금액정도(1인당)

위기극복지원금 추가지원에 대한 적정금액을 물어본 결과 ‘10만원’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만원’(24%), ‘30만원’(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12] 위기극복지원금 적정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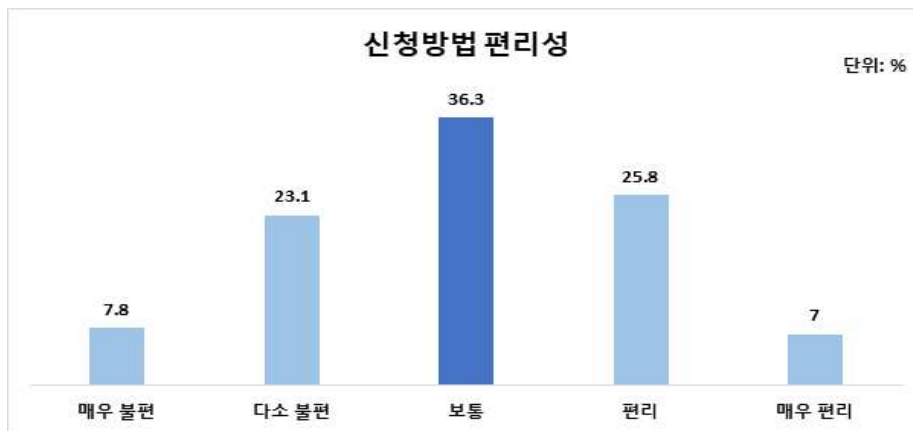


## 9. 위기극복지원금 신청과정

### 1)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 만족도

위기극복지원금 신청방법 편리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편리'(25.8%), '다소 불편'(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 가장 높은 반면, 불편하다는 측과 편리하다는 측의 비율이 유사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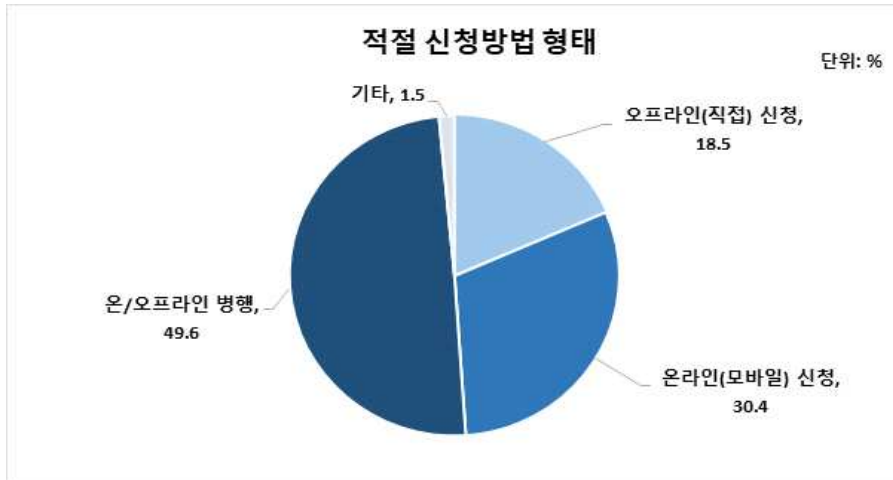
[그림 5-13] 신청방법 편리성



### 2) 위기극복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형태

위기극복지원금의 적절한 신청방법 형태를 질문한 결과 '온/오프라인 병행'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모바일) 신청'(30.4%), '오프라인(직접) 신청'(18.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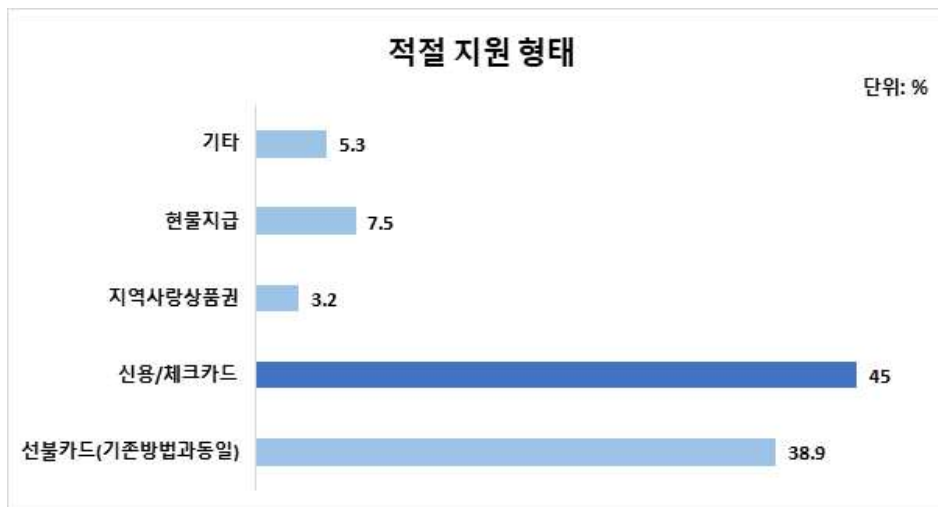
[그림 5-14] 신청방법 형태



## 10. 위기극복지원금 지원 형태의 적절성

위기극복지원금의 적절한 지급 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신용/체크카드’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불카드(기존 방법과 동일)’(38.9%), ‘현물 지급’(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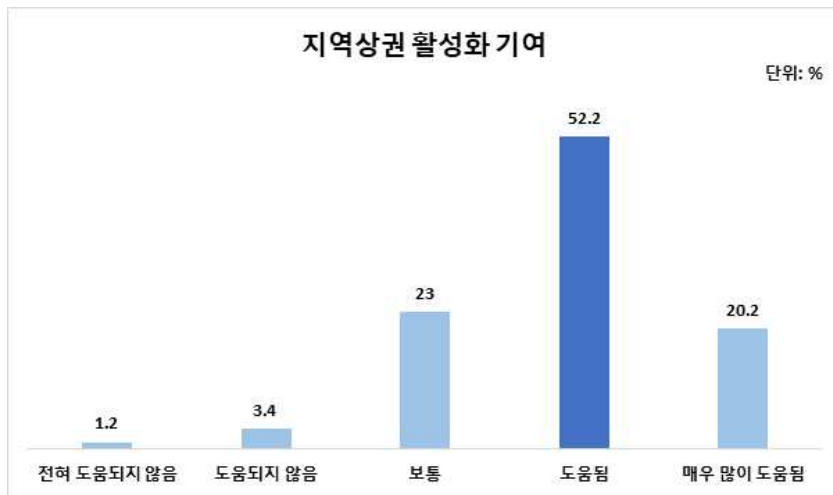
[그림 5-15] 지원금 지원 형태



## 11. 위기극복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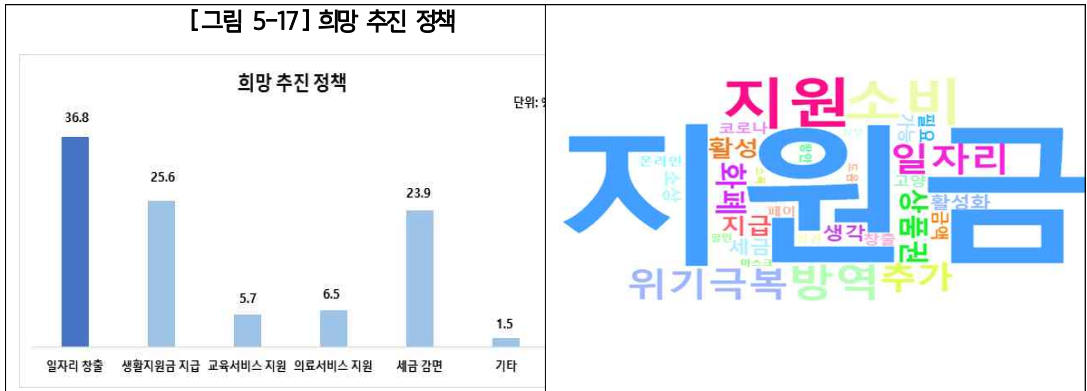
위기극복지원금의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움됨’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23%), ‘매우 많이 도움됨’(20.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켰다고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그림 5-16]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 12.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양시 추진 필요 정책(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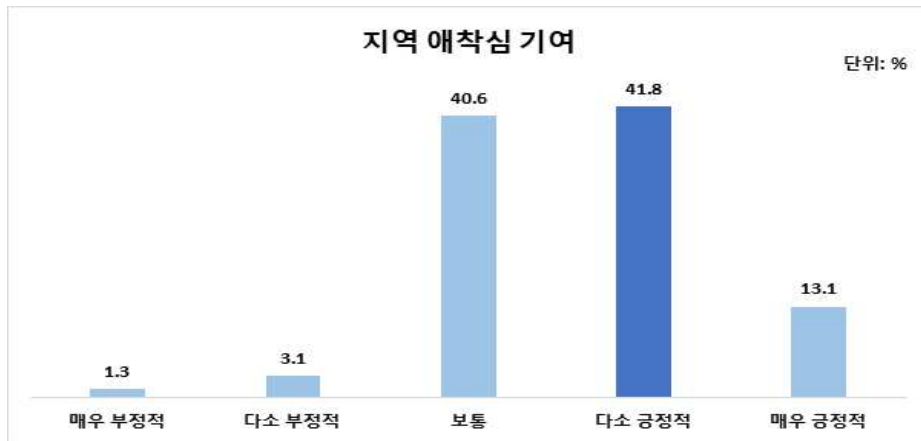
희망하는 고양시 추진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지원금 지급’(25.6%), ‘세금 감면’(23.9%) 등의 정책을 시민들은 선호하고 있었다.



### 13. 위기극복지원금을 통한 고양시 이미지 및 지역 애착심 향상 정도

위기극복지원금이 고양시에 대한 이미지와 지역 애착심에 기여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다소 긍정적’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 40.6%로 뒤를 따른다.

[그림 5-18] 지역 애착심 향상 정도







# 제 6 장

##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종별 매출액 증감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결과



## 제절 분석 개요

### 1. 분석목적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고양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경제 위축 실태 및 소비동향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고양시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 2. 분석자료 및 대상의 기간

고양시 전 지역 ○○카드 가맹점 개인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의 기간은 2019년 1월 1일 ~ 2019년 3월 30일, 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 15일로 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일을 기점으로 이후 주차별로 분석한다(월요일~일요일). 2019년 분석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 3. 분석업종

분석대상 카드 분류 업종의 사용을 보면 지역 소비와 무관한 자료는 제외한다. 주요 제외 업종은 보험, 통신, 자동이체, 제약, 세금, 홈쇼핑, 여행사, 온라인 등이 해당된다.

### 4. 소비금액

대상카드 가맹점 매출액을 전체 카드사 매출액으로 추정한다.

## 제2절 분석 결과

한 업체의 카드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2019년 대비 2020년 코로나 발생에 따른 업종별, 지역별 소비변화 정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고양시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양시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1, 2주는 2019년 소비대비 8% 소비증가를 보이다 3%로 감소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크게는 22-23%까지의 소비감소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 대분류 업종별 소비 변화 정도는 모든 업종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식음료 업종은 유일하게 11%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업종별 감소 추세가 심한 분야는 여행 47%, 패션 및 잡화 30%, 미용 23%, 교육 및 학원 22%, 요식 및 유흥 20% 순으로 나타났다. 중세분류 업종으로 살펴보면 요식 및 유흥의 경우 한식/부페 업종이 22% 감소하였고, 유흥은 노래방, 룸싸롱,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주점 등의 업종에서 34% 소비가 감소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이 68% 감소하였고, 학원이 8%로 감소하였다. 스포츠/문화/레저 업종은 20% 감소를 보이며 미용업의 경우 피부미용실, 스포츠 마사지, 대중목욕탕, 사우나탕 등에서 2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비증가를 보이는 업종은 정육점, 식품류, 인삼 및 건강제품 업종이 11%가 증가하였고 의료업종 중에서 약국이 16%, 자동차 판매업이 43%로 소비가 증가하였다.

본 결과를 토대로 보면,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다중이용시설 업종에서의 소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그중에서도 요식업의 소비가 크게 감소한 반면, 식재료 구입의 식음료업종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약국의 경우 마스크 및 상비약 구매로 소비가 증가하였고,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자제에 의한 차량 구매로 전년도 대비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양시 지역별 소비금액 변화 정도를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모든 지역에서 소비금액의 감소추세가 나타나는 반면, 효자동은 미세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소비

감소가 가장 큰 지역은 장항 2동으로 작년대비 동일 기간 소비금액이 -570억을 보인다. 장항 2동의 경우 소매업(1,376개)과 음식점 및 주점(1,083개)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효자동의 경우는 소비금액 자체가 39개동 중 가장 작으며, 증가율도 2%로 코로나19 확산 현상과는 무관하게 지역 내 소비수준이 다소 유지된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올해 신규 아파트 입주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 시도의 지원 정책을 보면 농산물 등의 가격인하로 소비유도정책,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농가 사료구매지원정책,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지역 배달서비스 앱 개발 및 활용, 정부기관 보유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업종에서 매출액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편의점, 의료 및 약국, 식음료 업종에서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결과와 앞서 분석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위기극복지원금의 경우 식생활 중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 분야가 한식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분석 결과 요식업 중 한식업이 코로나로 인한 매출액 감소 피해가 가장 큰 업종중 하나이다. 또한 미장원, 화장품, 의류업종의 경우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기극복지원금 사용 업종으로 보면 소비가 높게 나타난 업종들이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약국의 경우 코로나 이전 대비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업종임에도 위기극복지원금의 소비 또한 높게 나타난 업종으로 일부 업종은 소비가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면, 고양시 정책지원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먼저 데이터의 결과를 보면 업종별 감소추세가 심한 업종은 요식업, 쇼핑, 여가, 관광, 미용 등의 업종이 해당되어 이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업종은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당장의 소비유도를 이끌어 내기란 어려운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업종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처한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현금지원 또한 필요하다.

[표 6-1] 대분류 및 중분류 업종의 소비 증감

업종대분류	업종중분류	19_8W	20_8W	증감	증감율
가전/가구	가전/가구	79	70	△ 9.6	△ 12%
가정생활/서비스	인테리어	17	17	△ 0.6	△ 3%
가정생활/서비스	서비스	20	18	△ 2.2	△ 11%
교육/학원	학원	63	58	△ 4.7	△ 8%
교육/학원	교육용품	10	8	△ 1.9	△ 20%
교육/학원	유아교육	20	6	△ 13.9	△ 68%
미용	화장품	9	8	△ 1.9	△ 20%
미용	미용서비스	30	23	△ 6.9	△ 23%
스포츠/문화/레저	스포츠/문화/레저용품	31	26	△ 4.8	△ 16%
스포츠/문화/레저	스포츠/문화/레저	52	41	△ 10.4	△ 20%
여행/교통	숙박	6	3	△ 2.9	△ 47%
여행/교통	여행	1	0	△ 0.3	△ 53%
요식/유흥	한식	182	142	△ 40.0	△ 22%
요식/유흥	기타요식	107	88	△ 19.0	△ 18%
요식/유흥	일식/중식/양식	42	32	△ 9.9	△ 24%
요식/유흥	제과/커피/패스트푸드	32	31	△ 1.6	△ 5%
요식/유흥	유흥	15	10	△ 5.2	△ 34%
유통	할인점/슈퍼마켓	292	278	△ 13.5	△ 5%
유통	편의점	60	62	+1.8	+3%
유통	백화점	85	44	△ 40.3	△ 48%
유통	기타유통	39	27	△ 11.9	△ 31%
음/식료품	음/식료품	53	58	+5.7	+11%
의료	병원	156	129	△ 26.8	△ 17%
의료	기타의료	4	24	+20.1	+508%
의료	약국	28	33	+4.4	+16%
자동차	자동차서비스/용품	43	37	△ 5.6	△ 13%
자동차	자동차판매	11	16	+4.8	+43%
주유	주유	231	197	△ 33.4	△ 14%
패션/집화	의복/의류	18	12	△ 6.2	△ 34%
패션/집화	패션/집화	14	11	△ 3.7	△ 26%

# 제 7 장

##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 제절 결론 및 시사점

위기극복지원금 빅데이터 분석결과 사용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업종 중에 41%가 식생활, 38%가 유통분야에서 사용되어 총 79%가 두 분야에서 소비된 상황이다. 의료/미용업 9%, 의생활3%, 레포츠/문화/취미 3%, 교육 2%, 자동차(주유) 2%, 서비스 1%, 내구재 1%의 소비패턴을 보인다.

식생활의 경우 ‘한식’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했고 다음으로 ‘일반음식점 기타’, ‘농수축산물점’, ‘정육점’, ‘제과점/아이스크림점’ 순으로 소비가 발생하였다. 일반 신용카드 대상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이후의 소비증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매출액 감소를 보인 분야는 식생활이며, 세분류로 보면 한식업종이 해당하였으나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이 가장 높은 업종 또한 한식으로 위기극복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 증감의 효과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통의 경우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의 소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극복지원금의 금액 자체가 5만원으로 크지 않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식생활과 식음료 구매에서 소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야별 세부 사용처를 보면 약국, 안경점, 세탁소, 철물점 등이 타 업종에 비해 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가 높은 세부 업종의 유형을 보면 일상생활과 밀착된 업종에서 주로 소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은행 건별 사용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5만원의 금액으로 일상생활의 필요한 분야에서 ‘1~2’회의 지출로 소비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한식, 미용, 화장품, 의류 업종의 경우 20% 이상 매출액 감소를 보인 업종인 반면, 위기극복지원금의 소비량은 타 업종에 비해 높게 소비된 업종으로, 시민들에게는 소비지출의 혜택을 주었으며 본 업종의 사업자들에게는

매출증가의 혜택을 주어 정책적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일부 특정화 할 수 있다.

또한 위기극복지원금 카드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면, 위기극복지원금을 통해 소비하고자 하는 분야가 실제 소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민들은 위기극복지원금을 실생활과 밀접한 식생활, 유통, 의료, 의류 등의 업종에서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1차 지원금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희망업종에서의 소비가 실질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분석은 고양시 차원의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비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추가 지급에 대한 기준 및 비교 대상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및 정부 지원금 소비동향과의 비교, 타 데이터(타 카드 및 서베이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고양시 차원의 재난소득지원금의 실질적인 사용처와 향후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를 둔다.

##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극복지원금의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연령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 및 광역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통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다.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방식과 일원화하여 기간을 정하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고양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년층의 경우 오프라인 방식의 신청절차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며, 노년층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 위기극복지원금 지급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양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연령층에 따라서도 지급형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젊은 계층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가장 많이 선호하며, 연령이 높은 경우는 기존형태와 같은 선불카드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양페이 연계 지원방안 및 지원금액 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낮은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이다. 화성시 20만원, 성남시 10만원, 용인시 10만원 금액에 비해 절반정도의 금액에 불과하다.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될 수밖에 없겠지만, 시민들의 대다수가 10만원의 지원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추후 지급 계획이 있다면 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민의 70% 이상이 위기극복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원금을 통한 가계경제의 도움정도가 높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었다고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위기극복지원금 정책 및 고양페이 정책 목적의 방향성이 지역 상권 활성화인지 시민들의 소비지원과 사용편의성 확보인지에 따라 두 정책의 연계 방안이 달라 질 수 있다.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가 목적이라면 업종별로 인센티브나 마일리지를 다르게 적용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소비 지원 및 사용 편의 향상이라면 다양한 시정 정책과 연계된 소비자 혜택 우선의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 분석 및 시민의견 수렴 필요하며, 단일 유형의 데이터 분석이 아닌 융합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파악이 수반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현황을 통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시민 체감 정책의 시행은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반영 되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한 현황분석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기타자료]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30일부터 접수". 내손안에서(2020.03.18.),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3987>. (접속일 2020.09.22.)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신청 방법은?". KBS뉴스(2020.04.01.),  
<http://mn.kbs.co.kr/news/view.do?ncd=4415024>. (접속일 2020.09.21.)
-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접수 8일 만에 53만명 신청". 연합뉴스(2020.04.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120700061>. (접속일 2020.09.22.)
- "수원시 10만원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경향신문(2020.04.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71644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71644001). (접속일 2020.09.22.)
- "성남시민,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 원 더 지급받는다" 비전성남(2020.04.01.), <http://snvision.seongnam.go.kr/11900>.  
 (접속일 2020.09.22.)
- "성남시, 시민 편의 위해 '재난연대 안전자금' 신청 방식 개선". 비전성남(2020.04.08.),  
<http://snvision.seongnam.go.kr/11973>. (접속일 2020.09.22.)
- "용인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원 신청 접수". 용인시민신문(2020.04.10.),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65>. (접속일 2020.09.22.)
- "경기도 발표 10일만에 31개 시군 전원 재난기본소득 행렬 합류...최대 280만원 수령 가능". 경기일보(2020.04.0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5654>. (접속일 2020.09.21.)
- "고양시민 정부 재난지원금 전액 받는다". 고양신문(2020.04.06.),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52>. (접속일 2020.09.21.)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이엠디(2020.04.03.),  
<https://www.mdon.co.kr/news/article.html?no=26528>. (접속일 2020.09.22.)
- "[Q&A]우리집 재난지원금은 얼마..어디서 쓰면 될까". CBS노컷뉴스(2020.05.01.)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041. (접속일 2020.09.21.)
- "정부 재난지원금+서울형 긴급생활비' 서울 저소득층 4인 가구 최소 148만원 수혜". 머니투데이(2020.03.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3115421224638>. (접속일 2020.09.22.)
-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접속일 2020.09.21-09.22.)
- 고양시 홈페이지. <http://www.goyang.go.kr/>. (접속일 2020.09.21-09.22.)
- 수원시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 (접속일 2020.09.21-09.22.)

성남시 홈페이지. [www.seongnam.go.kr/](http://www.seongnam.go.kr/). (접속일 2020.09.21-09.2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o.kr/](http://www.seoul.go.kr/). (접속일 2020.09.21-09.22.)

성남복지넷 홈페이지 <http://www.snbokji.net/4549>. (접속일 2020.09.21.-09.22.)

용인시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 (접속일 2020.09.21-09.22.)

정부24.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접속일 2020.09.21.-09.22.)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종합) (연합뉴스 2020.04.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213751004>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일찍 받는 방법은? (동아닷컴 2020.09.2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23/103066235/2>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0.19)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885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finance-news 2020.09.10)  
<https://www.finance-news.co.kr/139#who5>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경북매일 2021.01.03)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64955>

6일부터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소상공인은 공고 확인하세요(동아닷컴 2021.01.06)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106/104787828/1>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신청 대상은?(BBC NEWS 2021.01.10)  
<https://www.bbc.com/korean/news-55607637>

정부3차재난지원금(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1.25)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2738>

15조원 추경안 통과...29일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겨레 2021.03.25)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8146.html>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아요"...4차 재난지원금 3~4월 지급 전망(동아닷컴 2021.02.0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02/105238776/1>

정부4차재난지원금(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4.15)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5550>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1천만원(2021.03.02)  
<https://www.nocutnews.co.kr/news/5508024>

모두에게 10만원씩... 이재명,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물꼬를 트다(오마이뉴스 2020.03.2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546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5464)  
"모두에게 10만 원씩"...'물꼬' 트인 재난기본소득(MBC 뉴스 2020.03.24)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5896\\_3252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5896_32524.html)  
고양시 '고위험시설 특별휴업지원금' 1001개 업소 지급(국민일보 2020.09.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64920&code=61121111&cp=nv>  
고양시, 소상공인에 2차 휴업지원금 300억 원 지급(고양일보 2021.02.04)  
<http://www.goyang1.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24>  
2차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설 전에 300억원 분다(고양일보 2021.02.04)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71>  
전국 재난기본소득 지급 본격화...보편 지급 지자체 48곳(파이낸셜뉴스 2020.04.09)  
<https://www.fnnews.com/news/202004091408207244>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15일부터 신청(e수원뉴스 2021.3.15)  
<https://news.suwon.go.kr/?p=86&viewMode=view&reqIdx=202103151031159995>  
용인시 "피해 시민들 부담 경감"...용인형 핀셋 긴급 재난지원(뉴스핌 2021.02.04)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204001167>  
용인시, 용인형 핀셋 긴급 재난지원...474억 투입(이데일리 2021.02.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27686628947240&mediaCodeNo=257>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요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https://123tax.tistory.com/331>

# abstract

## **A study of consumption trends: Applying big data analysis to Goyang City's stimulus prepaid card\***

Shin Hee Yun\*\*

The coronavirus has hit the nation's economy hard. This unprecedented economic disaster threatens the livelihoods of many citizens. Some even compare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to that of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S, which lasted from 1929 to 1939. The COVID-19 pandemic has shrunk consumer confidence dramatically, severely depressing almost all of the nation's regional markets. To help the general public cope with their economic hardship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distributed nationwide emergency relief funds. However, the payment methods, amounts, and beneficiaries of relief funds vary from government to government. Goyang City provided stimulus checks (prepaid cards) of ₩50,000 to each of its citizens in July 2020. This study aims to help formulate real and tangible support policies by measuring Goyang citizens' satisfaction with the emergency relief funds and analyzing how and where they have used them. Furthermore, this study conducts fundamental research assessing the role of emergency relief funds in revitalizing regional markets and proposes future directions for additional stimulus checks.

---

\* Emergency relief funds: In the form of Goyang City-initiated prepaid card worth ₩50,000 to boost consumption and spur local economy in the COVID-19 pandemic era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Using time-stamped data and information related to Goyang City's stimulus prepaid cards,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by sector and region to develop practical support policies. Additionally, this study seeks to promote such policies in the future based on citizen feedback regarding the emergency relief funds.

Goyang City provided two types of stimulus prepaid cards; it distributed prepaid cards issued by KB Kookmin Bank starting on April 14, 2020 and prepaid cards issued by NH Bank starting on April 16, 2020. To analyze overall consumption patterns, the study employs integrated matching of the two ca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time series analysis of consumption trends shows that Goyang citizens started to use both cards immediately after receiving them, with their card usage reaching a peak within 2–3 weeks. In the case of the KB Kookmin Bank cards, citizens spent a total of ₩34,534,830,930, while they spent a total of ₩14,559,349,591 using the NH Bank cards. During the April–June period, 51% of the total usage of the KB Kookmin Bank cards occurred in May, whereas 66% of the total usage of the NH Bank cards occurred in April.

By sector, food (41%) and distribution (38%) accounted for the overwhelming portion (79%) of card usage, followed by medical treatment and beauty (9%), clothing (3%), leisure & sports/cultural life/hobbies (3%), education (2%), cars (2%), service (1%), and durables (1%). Less than 1% of stimulus funds were spent on the pleasure and entertainment, travel, and other (manufacturing) sectors. More specifically, citizens spent the most on Korean foods in the food sector and the most on supermarkets and convenience stores in the distribution sector.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beauty sector, they spent the most on pharmacies, followed by beauty parlors, general clinics, and dentists. In the clothing sector, they spent the most on ready-made clothes and glasses while sports shops accounted for the lion's share in the sports and cultural life sector. In the education sector, citizens used their prepaid cards

most at liberal arts-related private institutes and stationery stores. In the car sector, they spent the most on gas. Laundry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expenditures in the service sector, while home and kitchen supplies and furniture comprised the largest percentage in the durables sector. In the manufacturing sector, KB card usage was concentrated on food manufacturing whereas NH Bank card usage was focused on machinery. In the housing sector, citizens spent the most at hardware stores. In the travel sector, accounting for less than 1% of total stimulus expenditures, they used KB Kookmin cards mostly for lodging while they used NH Bank cards mainly for folk arts/crafts/local products. Although, in principle, citizens were not allowed to use the prepaid cards in the pleasure and entertainment sector, they could use them at karaoke rooms, which belong to the sports/cultural/amusement facility sector. All spending in this sector was attributed to NH Bank card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elatively small amount of ₩50,000 gave citizens fewer options and that they tended to use their prepaid cards for easily accessible things such as foods and beverages. Notably, citizens spent more at pharmacies, optical shops, dry cleaners, and hardware stores than in other sectors. Given that these sectors are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this trend indicates that citizens spent the ₩50,000 on one or two occasions at such places (based on itemized spending records for the KB Kookmin Bank cards).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levels of Goyang citizens towards emergency relief fund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A sizable majority of people (69.9%) said that the emergency relief funds somewhat supplemented family income. In terms of satisfaction levels, 22.4% were satisfied, 12.1% were dissatisfied, and 40.3% (the largest share) were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A high percentage of the citizens (70.1%) favored additional relief funds—₩100,000 (38.6%) and ₩200,000 (24%). When asked about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tion procedures, 36.3% of

citizens responded “average,” 25.8% responded “convenient,” and 23.1% responded “slightly inconvenient.” On-/offline applicatio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49.6%), followed by online (mobile) application (30.4%) and offline (in-person) application (18.5%). Regarding payment methods, citizens preferred credit/check cards (45%), followed by prepaid cards (same as the existing method) (38.9%), and cash (7.5%). With rapid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the largest reduction in household expenditures occurred in travel/lodging/transportation (20.4%), followed by eating-out/entertainment (14.6%), sports/cultural life/leisure/related articles (12.2%), and clothing/sundry goods (11.9%). The surveyed citizens said that they would prefer to spend additional relief funds, if provided, on foods and beverages (23.4%), followed by hospital/pharmacy/medical treatment (12.5%), clothing/sundry goods (10.2%), and restaurants/entertainment (9.1%).

Big data analysis of emergency relief funds (in the form of stimulus prepaid cards) and the citizens survey confirmed that citizens’ planned relief funds spending aligned with their actual spending. That is, the citizens wanted to spend their relief funds on the sectors that related closely to their daily lives such as foods, distribution, medical treatment, and clothing, and the analysis of the first round of emergency relief funds showed much higher levels of spending in these sectors. The surveyed citizens also supported streamlining the relief funds application procedures, rendering age-specific services, providing more payment options, and distributing additional relief funds with increased amounts.

By delving into citizens’ consumption trends after the distribution of Goyang City’s first round of emergency relief funds, this study can provide benchmarks for more refined and sophisticated provision of additional stimulus checks down the road. In add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provides underlying data that researchers can utilize in future analyses comparing the relief funds-related spending patterns in Goyang City with those of

Gyeonggi-Do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fundamental data this study furnishes can also be used for comparative analyses involving other data (other cards' spending records and other surveys conducted in different cities and regions). In short, this study establishes a foundation upon which Goyang City can draft substantive policies to more effectively manage future relief funds and provide timely and practical assistance to its citizens.